여성 지도력에 대한 의식화 개발
-한미 교회 여성사역을 통하여-

DEVELOPING CONSCIOUSNESS ON WOMEN'S LEADERSHIP ISSUE
Through Ministering With Women In Korean-American Church

BY

JAEHIE LEE KIM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for Requiremen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iverside Drive, New York

2009

ABSTRACT

DEVELOPING CONSCIOUSNESS ON WOMEN'S LEADERSHIP ISSUE
Through Ministering With Women In Korean-American Church

BY

JAEHIE LEE KIM

The Body of Christ is dynamic organ and all members have freedom and responsibility to participate in various ministries and church activities. The head of the church is Jesus Christ. Accordingly all lordship of the church and authority is laid on Jesus Christ. In Mark 10:45, He showed us his authority and power in His Charisma Ministry as service and sharing.

And yet the church still tends to depend on the minister. Every member of the church has the gifts and talents given by God for the necessity of ministry(I Cor. 1:6-7). Therefore the task of the church is not only to discover gifts and talents of church members and train, but also to liberate their gifts and put them into service for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Korean women in general and Korean-American women in particular, have been oppressed and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important decision making and from church leadership, even though they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growth and mission of the church . Indeed , it is true that Korean women can not participate, by doing subjective role, in the church administration, because the affixed misconception of women, as of

traditional male-dominated society, permeated into the church in general, and Rockville Presbyterian in particular.

As a result, Korean church have left women in an oppressed status and have wasted women resources and gifts. Thus it is urgent task for the church to establish a proper understanding of women in order to excavate and activate the potentiality and leadership of women. And the conscientization of women is main task for this excavation in particular. Furthermore, conscientization is the most urgent task for the reformation fo the church from the vice which has been an obstacl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in general.

The Biblical scriptures have been written in the patriarchal culture, thus their language and structural logic are predominantly male-centered(androcentric). And there are only male leadership in the Bible, even many women leaders have existed who have been hidden. In case of our church, there are two aspects that need to be deal with :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and the conscientiztion of women in the church, in particular.

The focus of this thesis is "developing consciousness on women's leadership issue." The above interests originated from most of all from Korean-American Churches I have involved. As immigrant churches, Korean-American Churches are facing with many problems. Specially

Korean--American Women in American have severe doubled internal problems as immigrants, struggling of preserving Korean tradition and their values and roles and also same time of assimilating to the American culture and value. Externally, as an ethnic Korean-American women are struggling to deal with racial realities and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church and in the society as well.

Therefore I will have critical study about Korean tradition and Christian tradition which have been long rooted in idea that women are inferior and weak and secondary and they are only subordinate. The conscientization of women is almost taboo in the church, because one hundred years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has definable women's primary virtue is to be silent and obedient . It is not, of course, easy to change the deeply rooted prejudice. However I believe firmly that when we persue with patient, prayer and firm vision in God, the conscientization of women will bear fruit.

To recover Korean women's identity , spirituality and humanity, I will plan various programs to liberate members in general and Women in particular through developing consciousness on Church and leadership that men and women may serve together as partners. I believe that it can be possible only through understanding from Feminist perspectives.

Suc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existing in the church create and contribut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ensions for women and other members as well. These cause serious problems for the church to liberate women to serve church authentically and subjectively. It motivated me to explore the biblical meaning of leadership and elements to hinder them from Spiritual liberation. Based on the above interests, my first step was to do research their background to raise their awareness for self-realization. I attempt to understand the Christian community and ministerial competency from Biblical, theological, historical, sociological, political and economical perspectives compared with my pastoral ministry at the local church. And later evaluation for goal specifications for a

Through these processes, I will attempt to identify critical problems and conflicts of the church members in general, and of Korean-American women in particular, who are struggling in-between different cultures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to develop women's consciousness, I will deal with Biblical hermeneutic problems which has been stumbling block for women's leadership and women's ordination. And I will attempt to find a way to transform women's self identity of depreciation into self-realization.

ccomplishment and ministerial competency improvement will be explored.

And lastly, in short, I will summarize some significant findings and learning obtained from theoretical research and actual practical implementation as the conclusion of the project.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본 연구자는 남편 김윤석 선교사와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파송을 받고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후원으로 22 년간 인도네시아의 빌리뚱, 방카 섬에서 선교사로 교육선교에 종사해 왔다. 안식년 기간에 이 논문을 쓰던 중, 개인의 건강 문제로 논문을 완성하지 못 했다. 논문을 다시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 사를 드린다.

금번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창립 80 주년 기념대회에서 Dr. Dale Irvin 총장님과 Dr. Michelle Lim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대 밖의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었다. 다시 복교하여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신 Dr. Dale Irvin 총장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어서 논문을 위해 특별한 배려로 수고해 주신 Director of The D. Min. ProgramDr. Keith Russell 교수님과 사랑과 격려와 인내로 계속 지도해 주신 Dr. Chang Kun Behk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복합적인 문화 속에 있는 아시아인으로서의 한미 여성들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선교하며 목회해 오면서 2 중 3 중의 갈등 속에 있어 온 본인 자신의 문제요, 가족들, 특히 우리 세 자녀들의 문제들로서 절실한 것이었으며, 또한 아시아인 인도네시아 선교지 교회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호적과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섬기고 있는 락빌장로교 교회 자·매님들이 자아를 재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헌신하는 신앙여정에 긍정적인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바쁘신 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히 점겸해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격려와 도전으로 적극적인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 Adviser 이신 Dr. Rev. Syngman Rhee 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직접, 간접으로 선교지 인도네시아 방카섬 Ora Et Labora 교회와 교회여성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적극 성원해 준 남편 김윤석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TABLE OF CONTENTS

CHAPTER III

CHAPTER IV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의 제기

한국교회의 경우와 같이 미국에 이민온 한미교회도 상하의 위계질서라는 계급주의와 가부장제도의 폐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함으로 교회 안에서 조차 성차별과 봉건적 신분관에 따른 계층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보잘 것 없는 존재로서 소외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락빌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여성들이 교회 정책에서와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소외를 당해 왔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능력과 재능 및 막대한 잠재력이 매장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교회에 대한 신학적 몰 이해와 성서적 신앙의 결여라고 볼 수 있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지는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로 남녀가 함께 부름받았다(고후 3:17;1:22).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하나 되는 것이다.(갈 3:28)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성들의 눌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가난 한 자와 눌린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지배와 여성들의 복종 관계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음의 표징 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피조물의 형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의한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다.[1] 여기에는 여성자신들의 문제도 있다는것을 집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에서 이문제를 더 자세히 점검해 보고자 한다.

---

1)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in Feminst Perspective-A Theolog y*.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74). .28

락빌 한인 교회는 과거 10 여 년 동안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며 성장하여 온 교회이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민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온전한 신앙공동체라기 보다는 한국인의 집단 단체로의 복합적인 성격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전히 신앙의 가치와 표준으로만 지배되지를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와 표준인 동시에 유효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오늘의 모든 한인 이민 교회의 구조적 특징은 교회가 순수한 신앙의 동기와 신념 때문에 모인, 단순한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한인 이민의 사회적 집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교회라고 하여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락빌 한인교회는 특히 가족단위로 뭉쳐서 교회의 직분을 쟁탈하려는 결함도 있다. 교회의 직분이 권위로 군림하는 것으로 교회를 지배해 보자는 잘못된 신앙의 소치인 것이다.

둘째는 이중문화속에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문화적 가치관에 근거한 배경의 다양성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민이라는 대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적 배경에서 만나는 가치와 옛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에서 경험된가치관과의 심한모순과 대립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공동체내의 노부모와 기성 세대와 자녀 간의 문제인 이민 1 세대와 2 세대간의 문제, 남녀간의 역할 등, 제도적 공동체 안에서 권위에 대한 문제 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별히 미국의 이질적인 다문화 사회속에서 이중문화와 성차별의 중첩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자아의식의 혼돈과 변화된 역할등의 혼잡성에서 투쟁하고 있는 교회 여성들의 문제 및 인간화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현모양처,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제적 고정관념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두 문화권 사이에의(In-bewteen) 혼동스런상황 속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인식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에게 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의 역할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지나친 현실 도피적인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지성적 합리주의적인 경험의 극단적 대립의 양상이다. 본 락빌 한인교회는 이러한 대립된 신앙의 갈등으로 교회의 고통과 분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공동체 안의 문제들과 함께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 관계에 근거한 대립과 갈등이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이 미국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문화적 인종적인 차별에서 오는 갈등이다. 락빌 한인 교회는 이러한 경험을 이민 생활의 일상 현장에서 깊

이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의 새롭게 해방공동체를 향하여 지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참으로 긴요한 물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지도자들의 관심과 부족이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은사 공동체를 이룬다면 어느 한 편을 지배 아래 두어서도 안되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분리시키는 제도나 장벽이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어느 한 사람도 소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한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의 근원을 살펴야 하며 개혁교회의 구호처럼,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을 규명하면서 교회 전통에 들어온비복음적인 모습 을 성서적인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에 따라 락빌교회를 진단하며 여성과 남성 신도들이 서로 주체적으로 동역할 수있는 새로운 교회로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서연구를 통한 끊임 없는 의식화 개발이 필연적이다. 이런맥락에서 여성신학 정립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의 새로운 상호성이라는 모험이 따르며 그것은 그 추구하는 과정이 계속 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2] 이런 맥락에서 여성들을 해방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새로운 모형을 형성하는 방법은 파트너쉽이라고 보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쉽의 비젼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반은 같은 이해의 관점을 가지게 됨을 서로 확인 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질문해 보고 깊이 연구 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동의 하였다.

2)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minster Press, 1979), 188.

B. 배 경 소 개 (INTRODUCTION TO THE SETTING)

1. 본 연구자의 배경:

연구자는 남편 김윤석선교사와 1972 년에 한국 장로회총회 파송과 여전도회의 후원으로 22 년 간 인도네시아의 빌리뚱(Belitung) 섬과 방카(Bangka) 섬에서 선교사로 교육선교에 종사해 왔다. 우리의 교육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박차를 가하며인도네시아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최우수 모범학교로 지정되고 성장발전을 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선교 4 년 째되던 해 인 1976 년에 본 연구 자는 대한예수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57 회 총회석상에서 "현동 선교사"로추대 되었다. 대한예수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역사뿐 아니라 대한예수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사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아직도 많은 다른 선교사들의 자녀 문제가 심각한 형편인데, 본 연구자의 3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 당시는 한국선교의 초기여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파송한 후원단체에게나 파송된 우리 자신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인 남편과 본인의 계속교육의 근대화 훈련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두 선교사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대한예수교 여전도 전국연합회의 후원과 미국장로회총회의 초청으로(PIM PCUSA 로서) 미국에서의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

안식년 동안 본인은 PSCE 에서 기독교 교육석사(MA)와 UTS, VA(현재 PSCE & UTS)에서 신학석사(M.DIV)를 하고, 미국 장로교총회의 위탁으로 제임스 노회 (Presbytery Of the James, PCUSA)에서 "3-Way Missiona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from Korea to Indonesia"로서 1991 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리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의 2 번 째로 안수 받은 여 목사가 되었다. 미국장로교 총회가 안식년을 연장하고 락빌한미장로교회에서 교육을 전담하며 미국에서 받은 교육을 실천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종횡 무진하는 3 나라 선교사"(3-Way Missionary)로서 한미교회에서의 교육목회는 본인에게 한미교회여성들에 대한 또 하나의 비젼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공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인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확인과 새 호적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한미 교회여성들의 문제는 뉴욕신학교에서 한미교회 여성들을 위해 본 연구를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크게

공헌 하였다. 직접 간접으 로 인도네시아 교육선교에도 공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중의 목적을 마음 속에 지니고 이 논문을 하게 되었다.

2. 교회적 배경

Rockville 의 Rockland 228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락빌한인 장로교회"는 처음에 "워싱톤 연합 장로교회" 의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최훈진 목사님이, 1984 년 6 월에 15 명의 교인들과 개척한 "게이더스벅 한인 장로교회" 였다. 그 후 1985 년에 워싱톤한인 장로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성도들과 함께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보다가 교회를 조직하고 미국 장로교회 수도노회에 가입하였으며, 교회 이름을 "락빌한인장로교회"로 개명했다. 같은 해인 1985 년에 유태인 교회였던 현재의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의자체 건물을 소유하였고, 지금까지 10 년간 계속 성장해 왔다.

특별히 1990 년에 한 분의 여장로 장립과 더불어, 본 연구자가 1991 년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 여 목사로 안수 받고, 교육목사로 팀 목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새로운 목회에 긍정적인 효시가 되고 있다. 현재 출석 교인은 250 명 정도이며, 목사 3 명(본 연구자 포함), 전도사 2 명, 장로 8 명, 집사 28 명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이다. 목회 스타일은 팀목회로서 당회장을 제외하고는, 부목사, 교육목사(본 연구자), 심방전도사, 영어목회 전도사, 사무원 (비서)과 사찰은 내용 상 모두 부 분직(part time)이다. 예배와 교회 건축문제, 효과적인 교육및 영어 목회의 자립과 지역 사회봉사를 위해, 지도자들의 관심이 제반 분야의 개발 등에 고조 되고 있다.

교회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40-50 대가 70%로 중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체 교인 중 여자가 60%이며, 남자가 40%로 여자가 과반수를 넘는다. 교육 배경은 대학 졸업자가 20% 이며, 고졸 학력자가 70%, 기타가 10%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경제적 수준을 보면대부분이 음식점이나 세탁소와 같은 소기업 고용주나 고용인들로서, 중산층이 80%, 상류층이 5%, 하류층이 15%로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이민 시기로 보면 10 년 이상이 30%,5 년 이상이 60%, 근래에 온 사람이 10% 이다. 거주지 상태는 다양하며 한인들이 밀집된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여러 가족집단들 (family clusters) 로 흐터져 있다. 교통상 교회와 동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 한인 교포사회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교회의 지리적 배경

락빌은 워싱톤 벨트웨이(495 로선)를 통해, 북쪽(270 로선)에 위치하고 있다. 1635 년, 처음 유렵인들이 정착할 때, 이미 6 인디안 부족들이 6 개국의 식민지로 뉴욕의 본부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주로 Tobacco 와 옥수수 농장지었는데, 지금은 많은 정부 건물과 상점들로 인구가 밀접한 시가를 이루고 있다. 교통과 입주 조건이 좋은 관계로 이민자들 자신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안정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Rockville 은 7,504 acres 이며, 전 인구 415,640 명인데 백인(유태인 포함)이 80%로 제일 많고, 동양인은 5%정도로 24,175 명이다. 그중에 한국인은 18%로 4,410 명이나 되며, 한국 학생들이 많다. 특히 유태인 공동체와 교회와 학교가 많다. 각종 상가나 각종 문화적인 요소도 유태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워싱톤은 살인 1 위를 과시하는 도시로서 한인들은 목숨의 위협으로 불안과 공포를 항상 느낀다고 한다. Maryland 에는 120 여 한국교회가 있으며, 락빌에는 5 한인 교회가 있고 그중 장로교회는 3 개나 되며, 교인 간의 경쟁이 심하다.

락빌 한인 교회는 지난 10 여년 간 험난한 이민의 삶 속에서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구원을 차고자 노력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뜨거운 신앙적인 희망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내적으로는 신앙공동체 안에 구원의 신앙 경험을 개인화 시키며 다양한 계층 간의 상충된 이해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란 특수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오는 인종 차별과 문화적 복합성에서 오는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여성들의 경우, 일주일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종업에 시달리고 가정 살림에 시달리며 삼중고의 삶을 살다가 교회 에서 참 쉼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주일에 교회에서까지 가사의 계속적인 영역의 일들로 주로 부엌에서 지내며 뒷 바라지를하느라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한국의 유교 적인 남녀 분리사상과 남존여비 사상의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에 여성들도 함께 자유 하는 참 공동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를 문제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C.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경험적 방법 중에서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를 채택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문헌과 조사 연구을 병행하여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기본 개념 및 문제 점을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락빌교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의식화 개발을 통하여 여성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제들로 범위를 한정한다.

제 I 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 연구 방법과 여성들의 참여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패턴 즉 파트너십의 비전을 추구해 보았다.

제 II 장에서는 여성들의 비인간화와 속박을 가져온 그 원인을 규명해 봄으로써 여성들의 해방의 가능성을 추구하려 했고, 그러기 위하여, 여성들의 배경이되어 온 한국 전통적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찰했다. 특별히 미국 사회 속에서 두 문화 속에 갇힌 이민 여성들의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사회 속에서의 이중 문화권에 있는 한미여성들의 역사와 적응 관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 갈등과 그에 미칠 제반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여성들의 지도력 대한 의식화를 앙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서해석학적 고찰을 통하여 여성 지도력을 성찰하므로 ,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봉사할 수있을 새로운 범례(Paradigm) 찾아 모든 교회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적이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종의 지도"력(Servant-Leader)을 그 범례로서의 여성들의 새로운 지도력이 될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문제 분석으로서 성서적, 신학 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분석을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도를 행했다.

제 IV 장에서는 그 실천 방안 으로 교회의 변화 목표와 시행 전략과 시행 전략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기고 했다.

제 V 장에서 목회 능력에 대한 과제로 목회자의 능력 개발과 교인들의 반응 및 평가를 알아 보았 다.

제 VI 장은 결론으로 지도자의 영향 및 새로운 연구의 대한 제안과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C. 여성의 참여의식과 파트너쉽의 비젼

한국교회는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이며 빈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극복하지 못하여 아직도 여성을 억압해 왔다. 지난 1 세기 동안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여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성장의 주역인 여성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하나다(갈 3:28)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차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참된 사랑의 지체는 작은 부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지체이며, 여성이나 빈부를 차별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매개[3] 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신학자 류터 (Rosemary Ruether)는 성차별주의로부터의해방의 기쁜소식이 설교되고, 성령이 가부장제도로부터 탈출하도록 여성들에게 힘주기 위하여 현존하고, 상호성의 새로운 삶에로 결단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양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젼과 투쟁을 퍼뜨리는 곳이교회라고 했다.[4]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었거나, 인간적 능력이나 가치에 있어서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곳에서는 여성의 인간화 뿐만 아니라, 남성의 온전한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상호호혜적 관계 (reciprocity)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성차별적 관계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러셀(Letty M.Russell)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참 인간성 (true humanity)을 모든 인간들에게 회복시킬 때에 온전한 샬롬(Shalom) 이 오고 [5] 이러한 샬롬의 상태에서 발견되는 남녀관계의 새로운 관계 패턴(Pattern) 이 동역관계(Partnership)[6]라고 했다.

샬롬은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참 인간성(true humanity)을 모든 인간들에게 회복시킨 그런상태를 의미한다[7]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성차별적 관계에 남아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남녀의 진정한 자유함(해방)은 이

3) Lyle E. Shaller, *The Change Agent* (New York:Abingdon Press,1989), 140.
4) R. R. Ruether, "Feminist Theology and Spirituality," *Christian Feminism*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4), .32.
5)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06-133.
6)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Grwo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The Westerminster Press,1981).
7)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06-107.

모든 구체적 인간관계,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성적 모든 관계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가 이루어 질 때 실현되는 것이다.[8] 파트너쉽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새로운 창조"[9]안에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의 동역자가 된 것이다.인간이 그의 동역자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사이다. 동시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새창조과업에 그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은 응답(책임)이 된다. 그러한 응답이 곧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파트너쉽으로 표현되는 것이다.[10] 이 동역이란 개념은 어떤 공동의 과제를 같이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서로 동역자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공동의 과제란 하나님의 선교사업 (*Missio Dei*; Mission of God)이다.[11]

파트너쉽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새로운 초점이다. 파트너쉽은 하나의 공통 초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동 안건 또는 공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동 초점은 그리스도이며 공동안 건은 섬김이다.[12] 이 파트너쉽이라는 말은 신약의 '코이노니아'*(kononia)* 라는 말로 흔히 누구와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역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고 받는 양 면적 관계이며, 참여와 분여(分與) 및 협력의 관계"[13]로서, 남자와 여자가다같이 주체로서 받아 들여져 진다는 점이다.[14]

어느 한 쪽만이 주체가 되고 다른 한 쪽은 대상이 되거나 종속적 관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파트너쉽에 대하여 죌레 (Dorothee Soelle)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끝나고 자신의 보다 나은 권리를 얻는 주체로 객체가 변하는 것"[15] 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래의 유교적 남녀관계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권위와 복종이라는 기본적 양극성과, 한국교회의 남권중심의 제도는 비판 받아야 하며 크게 도전 받아야 할 것이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의식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전통부 부관계에서 여필종부라는 윤리 원칙은 이런 각도에서 비판되고 타파되어야 할 것이다.

---

8) Ibid., 106-107.
9) Letty M. Russell, *Grwo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terminster Press.1981). 12-53.
10)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82.
11) Ibid., 76-77.
12)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86.
13) Ibid., Ibid., 56;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1. III. 804 -809.
14) Ibid., 16 : Gerhard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 and ed. , By Geoffrey W. Bromiley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3), Vol. II, 831
15)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ship*, 188.

기독교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이다. 제자됨의 파트너쉽은 종됨을 기본적인 모형으로 하는 것이지 지배와 예속의 제도적 구조를 모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요. 13:1-17).[16] 파트너쉽의 강함과 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실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기성으로부터 나오는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지도력의 재능은 기능적인 것이며 어떤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전문적이 기술(skill)로서 그러한 재능의 교체가 필요하다.[17]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는 봉사를 위한 파트너쉽의 이미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성은 하나니의 뜻과 사랑과 그리고 (남녀의 구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흘러 나왔다.[18]

이처럼 인간의 성적 구별이란 성숙한 인간됨의 교제와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창조의 축복이지, 지배와 억압을 위한 투쟁의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성(性)에 대한 이해를 존재론적 우열의 성질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봉사자 와 교제를 위하여 주어진 인격적 관계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지도력이다. 만일 우리가 성서적 관점에서 동역과 인간화의 문제를 본다면, 아담과 이브의 신화론적 신화는 그들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핵심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상호의 관계 속에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성별(sexuality)아닌, 종(servanthood)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대리자(The Representative)로서 그 초점을 맞출 때 또한 우리도 새 인간성의 대리자(representatives of new humanity)가 되는 그 관계는 종의 관계라는 것이 명백하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for)* 맨 먼저 자발적으로 그의 삶을 내어 준 일(first free act)을 수행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담과 이브의 자유와 서로 대항하고 있는 것은 낡은 인간성이다. 새 인간성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삶의 출발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표현은 남성과 여성이 동역의 새 형태를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참 인간성의 대리자들이 되도록 "지금" 자유하는 것을 의미한 다.[19] 우리의 이 자유는 하나님께의 '복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자유이고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 으로서 동료 인간을 위한 자유이다.[20]

---

16) Letty M. Russell, *The Futue of Partnership*, 81 : Hans Kung, *On Being a Christian*, translated by E. Quinn (Doubleday & Company, Inc., 1976), 282.
17) Ibid., 81 ; Elizabeth Carroll, "Women and Ministry," *Theological Studies*, Vol.36, No.4 (Dec.1975), 683.
18) Ibid., 109.
19) Letty M.Russell, *Human Liberation*, 152-153.
20) Ibid., 33; Karl Barth , *The Humanity of God (*London : Collins, 1961), 77-78.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형상(Image of God)을 “따라” 사람을 “남자” 와 “ 여자”로 창조하시고, 관계 안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구조적 구별과 기능적 구별에 근거를 둔다.[21] 오직 하나님 그 분만이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며 허락하시고 금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남녀 인간은 서로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자유한 인격” 으로 서게 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남녀가 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위에 이루어 나가는 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나서야 할 것이다.

21) R. R. Ruether, *Sexism and God-Talk* (Boston : Beacon Press, 1983), 98.

CHAPTER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BACKGROUD OF THESIS)

A.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동서양의 경우, 거의 다를 바 없이 여성의 지위는 높은 것이었다.[22] 먼 옛날의 사제직인 무당은 여성이었고 모계(母系)를 계승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불교가 성했던 신라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거의 평등하고 자유스러웠던 것을 발견 할 수 있다.[23] 고려초기에도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데 남손(男孫)이 없 을 경우는 여손(女孫)이어가게 하였다. 고려후기에 오면서는 잦아지는 외적(外敵)의 침입에 대한 공포와 우세한 외적이 동정녀(童貞女) 를 바치라는 영(令)을 내림으로 공녀(貢女) 제도가 생기자 여자는 집 안에 숨겨두어야 했으며 부득불 외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게 하여 공녀가 되지 않게 주의를 하는 한편, 일찍 결혼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24]

먼저 가부장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엘리자벳 몰트만(Elixabeth Moltmann-Wendel)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을 무력과 감성(Emotionalitat)에로 몰아 넣는 것에 관해서 분석해 주고 있다.[25], 그녀에 의하면 일상적 가부장제의 특징과 경험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26]

(1)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정의 된다. 아내는 남편의 직업과 그의 사회계층에 따라 그녀의 자리가 정해지고,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 즉 남편이 아내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공간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

22)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 27.
23) Ibid., 27.
그 예로써 선덕(善德), 진덕(眞德), 진성(眞聖) 등의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화랑(花郞)의 전신 (前身)인 원화(源花)의 두령(頭領)을 남모(南毛)와 준정(俊貞) 이라는 두 여성으로 하였다.
24) Ibid.. .28.
25) 이수영, "여성안수 반대의 논거에 대한 반론적 고찰," *교역과 여성안수*, 오성춘 외 3 명, 109.
26) Ibid., 43 - 44.

(2) 남편이 이성과 의지를 점유한다. 남성은 자연과 사회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여성의 성과 육체성 그리고 그녀의 사회성은 남성의 정신적.도덕적.육체적.심리적인 지배 그리고 나아가 사회제도 속에 종속시킨다.

(3) 여성은 자기 신뢰나 자기 감정을 어머니에게서 받는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녀 자신이 인습적인 구조를 통하여 비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아의 강함이 결여되어 있어 딸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열등한 역할 속에 밀어 넣게 된다.

(4) 여성은 남성적으로 만들어진 업적주의적 문화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문호는 여성의 업적(보편성)은 거기에 적합하게 평가하지 않고 여성의 삶의 관념들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부장제의 성차별주의는 한국의 가부장제하에서도 유사한 점을 보게 된다.

1. 유교와 여성의 비인간화

역사적으로 유교는, 특별히 이조시대(1392-1910) 때에 무려 500 년간 국교로서 한국문화와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등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유교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낮게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고려 말기 유교의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이조 왕조시대가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여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유교에 기초한 이념을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군신(君臣) 간의 철학으로 여기게 하였고 이러한 논리를 뒷 받침하여 여자에게는 "두 남편을 섬기지않는다(女不事二夫)"는 열녀관(烈女觀)을 강조하게 되었다.[27] 부인의 남편에 대한 충성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강조되어서 단지 손만 만져도 여성은 자신이 부정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있었다.

> " 1952 년, 한국이 일본정치 하에 있을 때, 도망하는 한 피난민 여인이 배에 오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뱃사 공 이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자기의 순결을 잃었다고 통곡하며,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28]

27) 주선애, 28.
28) Sun Man Rhim: *Women of Asia: Yesterday and Today. India, China, Korea,Japan.*(Printed in USA.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1983), .88.

(1) 과부에 대한 엄격한 규정

과부에 대한규정 또한 엄격하였다. 심지어는 과부의 문제는 일찍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 되기도 했다. 소위 "Technical widow"[29]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초기 약혼의 관습의 결과로서 생겨지는 것이다. 즉 애기 출생 전에 임신중인 양 어머니끼리 미리 뱃속의 두 애기들을 약혼시켰을 경우에, 뱃속의 남자애기가 출생전에 죽으면, 아직 뱃속에 있는 출생전의 여자 애기는 그대로 출생 전에 과부가 되는 것이라고 David 과 Vera 는 그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 했다.[30]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시가의 충실하고도 얌전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시가에 충실히 충복이 되는 것을 절조를 지킨 미덕으로 칭송하고 미화시켜서 사실상 재혼의 길을 막았다. 여성은 자연히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세不東席), 부창부수(夫唱婦隨),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현모양처 등을 강조하게 되었는 데, 이 같은 여성관은 주로 주자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유교적 남녀윤리의 기본이 되었다.

(2) 남녀유별과 여성의 억압

남녀유별(男女有別)은 하나의 기본적 신분사회적 질서였는데, 남녀칠세부동석을 목표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존여비와 함께 여성생활을 평생을 통하여 속박하는 큰 멍에였다. 그러므로 남녀칠세부동석의 남녀분리는 여성의 비인간화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었다. 즉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남녀의 구별은 엄격했다. 남자는 앞방에 거했고, 여성은 뒷 방 보이지 않는 방에 은거 했다. 밖에서나 공중에서도, 부인은 남편의 뒤에서 서너 발 뒤에서 걸어야 했다. 남자들 은 대 낮에 자유로 활보할 수있었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즉,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종이 울리면, 소위 "여자의 시간"에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여자가 만일 낮에 나가려면 얼굴을 가리우는 쓰게치마(혹은 장옷)를 입어야 했다.[31] 이러한 남녀구별은 20 세기 초까지 격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남녀분리로 하여, 여성 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결국 여성들은 사회활동들에서 독립 할 기회들로부터 제외되었다. 여성들은 또한정규 교

29) Ibid., 89 .
30) Ibid., 89-90 .
31) Ibid., 91.

육을 받는 것이 허락 되지 않았다. 또한 가정 밖의 세상에서 자기의 생업(career)에 필요할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다. 또한 "여 성의 재능의 결여 그 자체가 덕(德)이었다." 그리고 "암탉이 울면집안 망한다"는 격언이 여성들의 세상욕망을 점검하기 위해 흔히 쓰였다. 그 결과로 여성들 중에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부족하게 되었고 남자보다도 여성들 중에 문맹과 무식이 더 높았다.[32] 유교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초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고 보았고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복종하는 것을 의미 하였다.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유교 윤리는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지아비=하늘'이라는 등식을 여성을 여성들의 가슴 깊이 새겨 주었다. 또한 부부유 별(夫婦有別)이 강조되어 우주만물에 하늘과 땅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남(男)과 여(女)가 있어 하늘과 땅의 구분처럼 남자의 업(業)과 여자의 업(業)이 완전히 구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남녀 유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천지의 질서와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유교적 남녀윤리가 여성으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악법이다. 칠거지악은 이혼 조건에 해당하는 일곱가지 조항이다.[33]

(1)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여자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3) 음란한 여자
(4) 질투가 심한 여자
(5) 불치병을 가진여자
(6) 말이 많은 여자
(7) 도둑질을 한 여자 등이다.

그러나 반면에 여성은 이혼할 수 없었다. 결혼이란 여성에게 있어 바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이러한 몇 몇가지 불공평한 조항으 로 인해 숙고의 여지 없이 산산 조각이 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무자(無子)도여 여자만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살아서도 시집귀신 죽어서도 시집귀신'이 되어야 하는 출가외인(出家外人)으로서 소박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의 형벌이 아닐 수 없다. 이

32) Ibid., 91.
모든 여성들은 전체적 으로 문맹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 후에 소수의 여인들만 이조(1392-1910) 후기까지 몇권의 도덕에 관한 책들을 읽도록 허락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은 지식 내지 지성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었다.

33) Ibid., 89, quoting Byung Soo Lee,*Ch'odenno kongingho*(The marriage and Divorce Law of Korea) (Tokyo: Syopungkwan, 1966). 56 .

혼을 당할 때에도 결혼 후의 남편과 자기와의 공동생활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물론 결혼시 자기가 지참한 재산까지도 몰수 당하고 할 수 없는 일로 체념한다. 또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도 의당 남편의 집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하므로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도 팔자소관으로만 돌리고 있다.[34)]

(3) 여자는 남자의 소유

삼종지도(三從之道)란, 여성이 어릴 때는 딸로서 아버지를 따르고, 혼인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사후(死後)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3 가지 계율이다. Mace 은 한국여성들에 관하여 그의 책에, " 여자의 평생의 일은 "3 가지 복종"이다. 첫째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둘째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복종한다"고 기록했다.[35)]

즉 여성의 일생 모두가 남성들에게 의존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을 가정적 역할로 한정시켜 부계가족에 예속시키는 유교 윤리였다. 여성의 남편에게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요 의심할 바가 없는 법이었다. 이러한 모든 규정은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가부장적 관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남성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여자들의 자유를 비참하게 박탈하였다. 이런 유교의 봉건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은 한 마디로 문서 없는 종(slave)과 같은 것이었다. David 과 Vera Mace 는 여성의 기능은 4 글자 즉 "obey"(복종) 의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은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피조물인 것이다[36)]

한국여성들은 일평생 온전한 인간이 아니요, 종이나 개나 매한가지였고 남자의 노리개요, 남자의 소유에 불과했다. Dr. James S Gale 선교사는 한국여성의 이러한 비참한 모 습에 대하여 대하여, 여성은 평생 노예요, 개요 , 소이며, 남자들의 노리개라고 기록했다.[37)]

(4) 이름없는 여성

여성들은 평생 이름이 없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비하를 가져온 여성의 학대이었

34)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개문사, 1982, 7 판), 21-51.
35) Mac and Vera , *Marriage: East and West*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9), 67.
36) Ibid.
37)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Educational Department.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106.

다. 결혼 전에는 단순히 소녀 쩍 애칭으로 불리었다. 예를 들면, 섭섭하다고 해서 "서분

(4) 이름없는 여성

여성들은 평생 이름이 없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비하를 가져온 여성의 학대이었다. 결혼 전에는 단순히 소녀 쩍 애칭으로 불리었다. 예를 들면, 섭섭하다고 해서 "서분이", "서운이", "섭섭이", 화가 난다고 해서 "분통이", 후회스럽다고 해서 "유감이", 언짢다고 해서 "언년이", 곱다고 해서 "곱다니", 복스럽다고 해서 "복실", 큰 아이라 해서 "큰 년", 작은 아이라고 해서 "작은 년"이라 했다. 결혼 후에는 소녀 때의 애칭은 사라지고, 오로지 남편의 가족의 성을 따서 공중에 알려졌다. 즉 "김씨", "최"씨" 등으로 불리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에 어머니를 붙여서 "복실이 어머니" 등으로 불리었다.[38)]

이것은 한국인의 성격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재석에 의하면 가족 내에서 부녀의 지위는 극도로 낮다. 부인은 남편을 '가장', '집주인'이라 칭하고, 남편은 부인을 '여편네' , 심지어는 '부엌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부인보다 앞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인에 대하여 '그 계집이 남편을 잡아 먹었다'라고 칭했다.[39)] 여성들이 어려서 부터 평생토록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장했으니,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부각되었을까 상상이 된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요 인격인 것이다.

1909 년 국가의 등록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이름을 갖지 못했다. 미혼녀는 이성녀(李性女), 김성녀(金性女)로 기혼 부인에게는 이씨부인, 김씨부인, 과부에게는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로 불렀다.[40)] 1909 년에야 그해의 인구조사 등록에 따라서 비로소 처음으로 여성에게 이름이 주어 졌다.[41)] 선교 초기 미국여선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일은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었는 데, 너무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짓느라고 애를 썼다고 한다. 여성들의 이름이 허락된지 100 여년이 되었는 데도 아직도 여성들의 이름 으로 여성을 부르지 않고, 또한 여성들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성 차별의 의식을 흔히 경험한다.

여성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소위 '얌전한'성격을 형성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러나 이 '얌전하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의 개성, 감정, 욕망, 주장 등을 억압하여 항상 자기가 소속되어

38) Ibid., 90, quoting Sin Suk Kim, *Minsokhak Yongu ch'ongso* (Compendium of Studies on Folklore), Vol..II (Pyungyang: Academy of Science, 1959), 43.
39) 최재석, 27.
40) 주선애, 69.
41) Soon Man Rhim, 90.

있는 가족 집단의 구성원, 예를 들어 부모, 남편, 시뷰모, 시숙, 시동생, 시누이 등에 대해서 비굴 복종의 태도로 대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에서 여성은 자아를 부정하는 고난의 생활로서 이것을 '시집살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시집살이의 성격을 잘 나타낸 말에 "벙어리 3 년, 소경 3 년, 귀먹어리 3 년"이라는 말이 있다.[42]

오랜 세월을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회 속에서 가정(家庭)이란 이름하의 감옥에서 사랑보다는 제도에 의해 복종하며 살아온 한국여성들에게는 남다른 특수한 성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자아(自我)를 상실한 채 수즙 음과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간됨을 부인하고야 가능한 것이다. 시집식구들의 갖은 학대와 멸시 등 온갖 역경 속에서도 참아야만 하는 것이 운명이었기에 형성된 성격은 인고성향(忍苦性向)이었다. 노예같이 혹사당하는 한국여성은 흡사 "목석"(木石)과도 같았다. 즉 움직이는 목석(木石)이었다.

한편 이러한 슬픔과 고통 중에서 사랑과 기쁨과 웃음을 표현할 자유를 갖지 못 했기 때문에 표정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누적시키며 표정을 죽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누적된 감정이 표현될 때에는 그 만큼 격렬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한국여성사는 바로 얼마만큼 여성을 목석 화(木石 化)했느냐 하는 여성인격의 말살과정을 뜻한다. 집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릇 한죽 헤아릴 수 있는 지능마저도 허락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지어 보일 수 있는 기능마저도 허락받지 못 했으며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 지어 보이는 정도의 감정표시 조차 부덕한 것으로 비난 받았다. 움직이는 목석(木石)을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여성의 인고성향(忍苦性向)을 농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남성들의 횡포가 여성 본연의 실존적 자세마저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사랑이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본성이요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본성은 마치 풍선과도 같아서 강하게 누르면 그 눌린 만큼 다른 쪽으로 부풀어 나듯이 한국여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팽팽히 잠재해 있어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무릎꿇은 자세로 망부석처럼 기다림에익숙해진 여성들의 탈출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천국이다.

한국에 천주학이라는 신교가 들어오자 한국여성들은 오랫동안 막연하게 그려오던 탈출구에 눈을 떴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억눌려 온 묵은 모럴에 저항했고 또 그토록 가혹한 고문을 감당해 왔으며, 사지를 찢기 우면서도 웃으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42)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6), 130.

교리엔 무식했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것은 한국여성이 당한 사회적인 구속에 대한 반발이요. 또 그 사회적 구속으로 농축된 인고성향의 발로인 것이다."[43]

(6) 한국여성의 특성

근면성은 한국여성의 또 하나의 특성이다. 근면 검소를 여성교육에서 중요시 해 온 것도 사실 이지만 그보다도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에만 매여 인격적인 대우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이겨가기 위하여 오히려 노동 하는 시간이 짓눌린 감정의 해소(解消)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할 일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괴로운 감정에 더 짙게 머물게 하므로 미련 미련하도록 일함으로 그 불안을 잊을 수가 있었다. 번거롭고 불편한 흰 옷이 이런 점 에서 다행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매일 빨래 더미에서 허덕이어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이어 다듬잇돌을 방망이로 두둘겨야 하는 여성들은 고되고 힘겨울 망정 일더미 속에서 잠시의 고뇌로부터 잊었다.[44] 그래서 외국인들은 빨래소리와 다듬이 소리를 '한국여성의 소리'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 숨소리에는 '한(恨)'이 맺혀있다. 그 '한'은 부조리에 대한 한, 인간상실의 한, 성차별 대한 한, 인간상실의 한, 갈등의 한이다.

기독교 선교 이전의 한국여성의 삶은 새 날을 기다리는 캄캄한 밤의 연속이었으며 목마르게 자유의 날을 기다리는 억울한 죄수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 긴 밤의 세월은 한국여성으로 하여금 빛을 기다리는 심정에서, 복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강열한 신앙의 바탕과 수난을 이겨나갈 인내를 갖게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계획 중에서 한국여성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의 농축되었던 모든 잠재적 능력은 복음을 받고 나니 눌렸던 만큼 정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기독교 개명기와 각성한 교회여성들

여성개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개신교의 선교와 여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남녀차별적인 봉건적 여성관에 대한 비판과 또 그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자 여성개화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개신교의 선교와 여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남녀차별적인 봉건적 여성관에 대한 비판과 또 그로부터 벗어나 자유

43) 김규태. *한국인의 재발견* (서울: 文理社, 1977), 10.
44) Ibid., .38.

하고자 하는 역사적 움직임은 이미 18 세기 실학운동 및 19 세기 중엽 동학운동 등을 통해 완만히 추진되어 왔으나 적극적 여성개화의 장은 열리지 못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교는 이러한 여성개화의 의지를 뜨겁게 불붙게 한 계기가 되었다.

1885 년 4 월 5 일은 한국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날이요, 복음의 씨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뿌려지기 시작한 날이다. 이 날 인천에 상륙한 이들은 장로교의 언더우드(Underwood), 감리교의 아펜셀라(Appenzeller)부처, 세 사람이었다.[45] 복음이 전해되기 전 에는 여성들에게는 "흑암의 시대"라고 불러도 모순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에 복음이 전래되었다. 기독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인간존엄 사상과 눌리고 억압 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한국 여성들에게 넣어 주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첫째는 그네들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소유자임을 발견하여 신(神)의 앞에서는 남녀가 평등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둘째는 여성이 오늘 날까지 구금동양(拘禁同樣)의 옥내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일요(日曜)에는 반드시 교당(教堂)에 가서 남성과 한 가지로 청강(聽講)할 권리를 얻게 되었다. 세 째는 일반 여성이 성경을 읽기위위하여 조선 글을 숭상한 때문에 여성 사이에 문자가 크게 보급되었다. 이것은 양서(兩西)와 같이 기독교가 성행하는 지방에는 물론이요, 아직 기독교가 보급되지 못한 삼남지방(三南地方)에도 생활상태에 다소 변동을 주지 않은 제가 없으니 기독교의 감화가 어찌 크지 않다 하랴.[46]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 오자 누룩처럼 번겨 가고 겨자처럼 자라 갔다. 물론 생명의 운동이 하루 아침의 사건으로 쉽게만 전개 되었다느 말은 결코 아니다. 오래 묵은 유교적전통이 그리 쉽게 파괴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가치관과 양식(樣式)의 출현을 저항없이 받아 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고 보면, 한 사람의 신자를 얻기까지에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의 대결을 치루어야만 했던 것이다. 여성이 남성들과 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교회에 나와서 비록 휘장으로 가리우기는 했어도 한 방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남성의 가르침 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여건 속에서는 놀랄만한 사건으로 전통적인 생활질서를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로 보여 질 수밖에 없었다"[47] 라고 생각한다.

1900 년이 훨씬 지나가까지(곳에 따라서는 1948 년에 경상북도 화천에서는 휘장친 곳을

45) 민경배. 130.
46) 문일평. *호암사론선*(湖岩史論選), 이기편 편(서울: 탐구당,1975). 10 - 151.
47) 주선애. 48.

보았음) 남녀가 서로 볼 수 없게 휘장으로 간막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와 목사가 문답을 할 때에도 휘장을 통해서 해야만 했으며 심지어는 의사가 여성환자를 진료할 때에도 입을 벌리게 할 경우에까지 휘장 구멍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선교사에 의 최초의 세례를 받은 일이 일어 났다.

한국여성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기록은 1887 년 가을 평안북도의주읍에서 백홍 준 전도사의 아내 한씨와 이성화 전도사의 아내 김 씨가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었으며 같은해에 서울서 알렌부인과 헤릴부인이 인도해 오던 성경 반에서 김 씨부인과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역시 언더우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5 명의 한 국여성이 최초로 예수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이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전향된 것을입증하며 이같은 변혁은 교회사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사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짐을 말해 주는 것이다 [48]

사경회(杳經會)는 여성들을 각성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한국교회의 신속한 성장과 부흥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1888 년 스크렌튼부인과 헤론부인이 성경반을 조직하였다. 이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번져 1909 년에 북장로교 구역에는 모두 5 만의 사람들이 달하는 800 회의 사경회에 참석했다. 어떤 여인들은 장마당에 가듯 침구, 옷가지, 쌀들을 잔뜩 머리에 이고, 120 리를 걸어 7-10 일간의 사경회에 참석하고 겨울 농한기어떤 때를 이용한 계절 때문에 추위를 또 견뎌야 하는 이중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사경회는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49]

사경회를 통한 깨우침은 지금까지의 무지와 죄를 깨닫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받아드리며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이웃과 국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력(靈力)을 얻어 새로운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한 것이다. 초기교회여성사에 사경회이야 말로 모든 여성들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성경 공부를 떠난 교회생활이란 생명력이 없는 것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흐를 가능성을 언제나 동반하하고 있는 것이다. [50]

그러면서 개화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여학교를 후원하기 위한 조직체가 발족한 것인데, 그 명칭을 "순성회" 라고 불렀다. 1905 년을 전후하여 일의 대한침략이 노골화되자 망국의 위기에서 실력배양이 민족 제일의 활로라고 인식한 거

48) Ibid., 63-65.
49) Ibid., 49 .

국적인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여성교육론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면서 200 여개의 여학교와 30 여개의 여성교육 단체가 설립되었다.[51] 1907 년 여성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진명부인회와 같은 해에 평양에서는 여자 교육 연구회가 7 월 8 일 성내 명문 당에서 학생, 교회부인, 일반사회 인사 등 3, 4 천명이 모였는 데 연필을 들고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고 여성교육을 위해 즉석에서 헌금 한 돈이 6 백 36 원 52 전과 5 리가 되었다고 한다.[52]

원산에서는 정치오라는 여성이 부인회를 조직하여 여학교를 설립하였고, 평남 모처에서는 문애라, 김순경 등이 부인회를 조직하여 원산 여학교로 하였으며 해주, 함남 갑산 등지에서는 여성교육을 위한 부인회가 조직되었다.[53] 이처럼 기독교 여명기에 각성한 교회여성의 활동은 실로 경탄할 만 했다. 또 1898 년 2 월 20 일 널다리 꼴 여전도회가 조직되고 그 후 1915 년에는 58 개의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회원수는 400 여명에 달하고 재정은 미화 700 불이 이르게 되었다. 번져가는 앞에 교회는 곳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서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사 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남여 교역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1906 년 평양에서 여전도사 양성 학교를 감리교와 연합으로 개학했는 데 82 명의 학생이 입학했다.[54]

1919 년 3.1.독립운동의 발발은 여성 미족운동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개국 이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 온 이후 처음으로 여성들이 명확한 민족의 일원이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참여한 역사적 사건이다. 3.1. 운동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여성들의 사회적 존재를 뚜렷하게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남성의식도 결정적으로 변화했다. 3.1.운동의 후석으로 등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이라고 했으며, 제 5 조는"대한민국의인민으로서 공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고 말하고 있다.[55] 민법적인 차원에서도 1939 년일부다처제가 일부일처제로 개정되었고, 1948 년에는 비록 실생활과는 달랐지만 헌법상에 남녀동등권을 인정하는 민주헌법이 채택되었다.[56]

---

50) Ibid., 64-65.
51) 최민지,"민족의 고난과 기독교여성운동," *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61.
52) 박용옥. *이조여성사* (서울: 한국일보사, 1976), 98.
53) Ibid.. 99.
54) 주선애. 90.
55)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서울: 정음사, 1975), 141-145.
56) 김형덕, "한국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현대사회와 여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단체. 1986). 56.

따라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부여 받아 법 앞에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 여성선각자들의 노력의 결실로 일제하의 여성들의 직업이 침모, 무당 및 기생 등의 천한 천민계급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교사, 의사, 간호원, 은행원, 사무원, 직공 등으로 확대되어 많은 여성들 이 사회경제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는 못 했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은 틀림없다.

3.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창설과 선교

1926 년부터 태동되어온 전국적 모임은 다시 1927 년 9 월 월산관석교회에서 회집된 제 16 회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허락된 대로 발기회를 조직하고 1928 년 제 17 회총회에서 승인 되었다. 이로써 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법적으로 승인하는 기관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장로교 여성의 전국적 활동은 이렇게 하여 세계선교의 꿈을 가지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여성을 굳게 뭉치게 하였다.[57]

전국연합회가 발족한 후 지방으로 흩어진 연합회 임원들을 각 노회와 전식으로 공고한 유대를 맺었다. 그리고 지 교회마다 여전도회를 조직하게 하여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외지선교에 목적을 둔 전국연합회의 선교방향을 밝히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시베리아 중국에 일본, 산동성에,남만주에, 북만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다.[58] 드디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 년 8 월 23 일 제 33 회 연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뜻 깊은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주선애교수는 그의 *장로교 여성사*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단독으로 선교사를

>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70 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단독선교를 결의하고 이를 감당할 인물을 찾는 중 김윤석 목사가 가장 유력한 일꾼으로 인정되어 이를 선정하였다. 당시 그는 영암교회 부목사로서 충성스런 주의 종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그의 부인 또한 한국의 명문학교를 거치 신학을 연구한 수재였다." [59]

여기 위에 소개된 "그의 부인"은 이재희사모(본 연구자)이다.

57) 주선애. 163.
58) Ibid., 185-195.
59) Ibid., 320

이름없는 여성들이 1909 년에야 그 해의 인구조사 등록을 위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이름이 주어 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60] 그로부터 어언 1 세기를 지나는 이 시대에도 아직 이름 석자 이재희를 "그의 부인"이라 칭한 것은 유감스럽다. 그것도 이 기록 바로 앞에서 과거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이 남편성을 따서 '김씨', '최씨'라 했다고 기록하지 았던가? 이러한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계속적인 의식화의 중요성을 암시해 준다고 본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물론, 많은 교단들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국내외선교활동은 놀랄 만하다. 또한 교회여성들이 오랫 동안 투쟁해 온 여성안수 문제는 사실상 카톨릭교회와 동방교회의 성공회를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의 교회가 해결한 문제이고 국내의 여러 교단들도 [61] 벌써 해결한 문제이다. 기독교 감리교회는 1931 년에 기독교장로회는 1974 년에 여성목사제도를 체택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여성안수 문제가 허락되지 않아 교회여성들은 1907 년부터 어언 1 세기 정도(90 여년) 투쟁해 왔다. 여성안수 부결의 견해는 "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고린도전서 14:34) ,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며"(디모데전서 2:12), 등의 성경의 상이한 문자적 해석에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62]

그러나 한국장로교회의 법을 넘어서, 1983 년 경혜중선교사가 일본관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63] 1991 년 이재희(본 연구자)가 미국장로교 제임스노회(Presbytery of the James 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64]

한국에서는 1996 년 여성 안수 (여장로 및여 목사) 가 총회로부터 법제화되어, 그 후 가을 1996 년 10 월 8 일에 최초로 백진숙의 여성목사 안수식이 제 33 회 울산노회에서 되었고 그 후 가을 노회를 통해 14 명의 여성목사들이탄생하였다.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성안수는 결코 없다고 고집하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의 굴레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요 8:3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 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날이 마침내 오게 하신 것이다.

---

60) Soon man Rhee, 90.
61) 국내교회로서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교회는 기독교감리회, 기독교장로회, 순복음하나님의 상회,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교회,국제순복음교단한국총회등이 있고,구세군과 성공회는 목사란 용어는 쓰지 않지만 여자 교역자 제도를 두고 있다. "여성안수 왜 어렵나?" *현대종교*(1991. 1), 58.
62) 김인수, "대한예수교장로교회의 여성안수에 대한 고찰," *교역과 여성안수*, 오성춘외 3 인 편, 38-40.
63) 김태현, *사진으로 보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창립80 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 2008), .248 참조.
64) Ibid.., 283 참조.

B. 미국사회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1. "사진신부"(Picture-Bride) 로 시작한 한미여성사

미 대륙의 한인 이민의 시작은 취업이민으로 시작되었다. 1900 년대를 전후하여 한반도에 엄습한 일제의 침략은 이조 5 백년을 풍전등화처럼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다. 구한국 말기 역사는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전환기 이였다. 청일전쟁 이후(1894-1895)까지 에 일어난 큰 사건만 생각해 보아도 동학난(1894 년), 암살사건(1895 년), 고종의소련대사관피신(1896),독립협회주동으로 일어난 정치혁 신운동(1898) 등으로 당시의 지배계급 위정자들은 친일, 치미, 친중국, 친소파로 4 분 5 열되었고, 한반도의 경제상태는 강대국의 반식민지화되어 국가경제 총파산기에 도달했었다. 설상가상으로 1901-1902 년에는 한반도에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대흉년이들었다. 그러니 인심은 박해질대로 박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되었고 어떠한 곳이라도 찾아가서 일을 구헤야만 했다.[65]

바로 이러한 무렵에 하와이 농장주들은 한인노동자들이 절대 팰요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특히 존스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와이는 "태평양의 낙원"이며 그곳에 가면 돈도 벌수 있고서구문화도 배울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한국정부는 1902 년 8 월에 수민원을 설립하고 민영환씨를 총재로 임명해서 집단이민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1902 년 12 월 20 일에 120 명이 첫 이민선 '게릭호"를 타고 떠났는 데 그 중에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고 93 명만이 상륙하여 오아우(Oahu)섬의 서북끝에 있는 모쿠라 농장으로 끌려 갔다. 이렇게 시작된 정규집단 이민은 약 3 년간(1902-1905) 계속되어 65 차 의 선편으로 총 6,965 의 한국이민들이 노동자로 하와이 섬에온 것이다.[66]

1905 년 일본의 한국 침략은 이민길을 막았는데 이때까지 1 백 25 척에 모두 7 천 2 백 26 명이 하와이농장에도착하였다.[67] 7,226 명 중 6048 명이 남자,, 637 명이 여자, 그리고 531

---

65) 민병갑교수 외 9 인. *미국속의 한국인. 교포들의 이민생활 및 사회적응분석*(서울: 유림문화사. 1991), 18-19.
66) Ibid., 20-21.
67) 한국일보. 사탕수수 후에 (뉴욕: 1983 .1. 11.)

명이 아이들이었다.[68] 농장에 흩어진 이민자들은 교 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광복의단체 들을 조직 했으며 그리고 부지런히 일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인사회의 총각 노동이민들은 우선 결혼문제에 부디쳤다. 새 이민법 제정 하에 사진을 통해 신부를 조국에서 임의로 데려 올 수 있었다. 이른바 사진 결혼이다. 이 사진결혼은 1920 년 11 워부터 1924 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에 하와이에서 결혼한 여자(사진신부")가 9 백 51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결혼도 1924 년 5 월 미국 정부가 제정한 신이민법에 의하여 중단되었다.[69] 이인숙교수에 의하면, "사진신부들"은 수수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으며 그 후에는 농장에서나 가정에서 가정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다. 여자들은 대개 더 낮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 며,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살피며 중노동을 한 것을 다음 기록에서 볼 수 있다"[70]

여기서 그 당시의 재미한사회의 흐름과 더불어 재미한인여성사를 어렴풋이 찾아 볼 수 있다. 아직 문헌으로 기록된 재미한인여성사는 없다. 뿐더러 이에 대한 연구논문도 발견 할 수가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구조에서 초기 재미여성들의 교회에서의 활동은 봉사와 더불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치되어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본다. 제 2 차 대전 이후 특히 1965 년에 새 이민법의 발효된 이후 부터 在美한인 이민수는 매년 2 만명 선을 넘어 현재는 약 백만 이상으로 추산된다.[71] 1952 년부터 1965 년 까지 한국이 민자들의 주류 미국시민들에 의한 입양한 고아들과 한국에 체류한 미군과 결혼한 여성 들이다.

2. 한미여성 과 사회, 심리, 경제적 갈등

"중국인 3 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열고, 일본인 3 사람이 모이면 상사를 차리고 한국인 3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시작한다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 교포사회가 많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재미 한인교회가 교포사회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72] 한인사회가 그 구심원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

68) Sang Huyn Lee, ed., *Korean American Ministry,* 49.
69) Ibid., 49 ; 갬택용, *재미한인교회 75 년사* (서울:생명의 말씀사,1979), 21.
70) Inn Sook Lee, ed., *Korean-American Women, Toward Self-Rrealization* (Mansfield, Ohio: The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Scholars in North America, Inc., 1985), x.
71) 민병갑교수, 30.
72) Sang Huyn Lee, 48.

형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903 년부터 1905 년 사이에 처음으로 한인들이 집단 이민을 하여 정착하게 된 하와이의 호노룰루를 위시하여 그 후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마다 한인사회나 상조회 보다도 기독교회가 먼저 조직이 되어 단체생활의 중심처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에 의하면 재미한인 교회는 교포인구의 500 내지 700 명을 상대로 하여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73] 최근 2 년간 미주한인교회는 급성장을 하여 2 천 8 백 교회가 되었으며 6 일에 한인교회가 하나씩 증가 하는 추세이다.[74]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볼대 미국사람들은 교회를 흔히 친구나 이웃을 만나보는 하나의 장소로 기대하고 찾아오는 데 비하여 한인교포들은 재미한인교회를그들의 가족의 연장,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가까운 친구처럼 기대하고 찾아 온다.[75]

재미 한인교회는 1903 년 1 월 13 일 제 1 차 이민선 "게릭호"가 하와이 호놀루루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제 1 진을 뒤이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한인교회들은 고국을 멀리 떠나 있는 동포들에게 신앙과 교육, 집회와 친교를 통하여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음은 물론, 문화 및 각 방면에 있어서 공헌이 컸으며 한인사회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76]

그러나 미국에서의 우리의 형편은 변두리성(주변성)이다.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두 문화권 사이에서의 삶이라는 것이다. "경계선상"의 인생인 것이다. 우리의 변두리성이란 양문화권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선상"의 형편 뿐 아니라 거기다가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란 현실 때문에 겪어야 하는, 완전히 용납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사회에서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 내버림 받아 "성 밖"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 [77] 요약하자면 우리의 형편은 첫 째 양문 양문화권 사이에 놓여는 경계선상이란 변두리의 형편이며, 둘 째로 미국의 주류인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힘드는 "밖"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서의 변두리성이다.

한인교포의 경우 이민자로서 이중문화속에서의 갈등과 사회성의 결여로 많은 갈등이 있다. 미국은 백인들의 서구문화를 토대로 세워졌으므로 우리와는 인종,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때문에 이민 그 자체가 두 다른 생활양식을 제시하고

73) . Ibid., 52.
74) 중앙일보 ,"한인교회 6 일에 하나씩 생거" (뉴욕: 1989, 11. 10)
75) Sang Hyun Lee, 52.
76)) 김택용. 37.
77) Sang Huyn Lee, 65-67 .

취사선택의 결 단을 내려야 한다. 배영교수가 지적한 것처럼,[78] 상충되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의 차이 점을 비교해 보면, 미국문화 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여기고 개인의 주체성은 개인적 성취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권리에 부여된다. 그러므로 자기주장, 자의표시, 개인적 참여와 경쟁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 배우고저 하는 마음,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사회단체 등 집단에 대한 협동과 신의는 한국인에게 바람직한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가 위계적 사회관과 그에 따른 인간 상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에 기초하기초하고 있다고 들 말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 주체성은 개인 자신의 성취보다는 그 개인의 집단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정의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위의 설명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미국문화	한국문화
1. 생활양식	개인중심	상호관계중심
2. 대인관계	평등한 관계	상하관계
3. 가치관	인권중심	책임과 의무
4. 태도	개인 권리주장	권위존중과 순종
5. 주체관	개인능력과 성공	그룹내의 지위
6. 성장과정	적극적 참여와 공헌	관찰과 모방
7. 사고방식	분석적.구체적	전체적.인상적

한미 사회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바 재미교포들의 유형를 그들의 정도와 미국적응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전통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통합주의자들과 고집주의자들 등 4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79] 이 사회 속에서의 소수민 여성들은 중첩된 압박의 희생자들이다. 따라서 종족 차별과 성차별이 심한 이사회에서 한 미 여성들은 중첩된 압박과 중첩된 갈등 속에 있다 고 본다.[80]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미여성들은 그 이상 한국의 이상형이미 지인 "현모양처"로서 사회에 군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미여성들의 의식과 정신력이 외국인로서의 한국인 소수민 공동체로(Korean Ethnic

78) Young Pai & Deloras Pemberton. "Selected Findings on Kore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An Interim Report*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cty, 1985), 18-19 ; Young Pai , "A Case For Biculturalism," *Korean American Ministry,"* ed., by Sang Huyn Lee, 246-262.
79) Minza Kim Boo, " Conclusion: Toward New Self-Products for Korean-American Women's Ideal Self-Image." *Korean-American Women: toward self-realization*. edited by Inn Sook Lee, 87.
80) Ibid., 86-87.

Community)서 그리고 동시에 미국 대중사회로서의 이중적인 환경을 빚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과 한미여성들의 관계적인 현실에서 오는 이중적 현상은 한미여성들에게 소수민으로서 그리고 성별차별에서 이중적인 소수민의 상태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미여성들은 집에서는 전통적인 생활과 외국인의 공동체속에서 이중적인 사회적역할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근대적인 생활과 미국사회에서 과중한 부담 속에 있다. 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동양의 유교사상과 기독사상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으며 두 가지 압력 즉 전통적인 가치들과 문화적 유산들을 보전해야 하는 한편 전통적인 행위들을 변화해야 하고 새로운 사회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두 가지 압력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81] 이러한 현상은 한미여성들이 비전통적이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 합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자아형성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을 암시해 준다.

이중문화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 일면 우리가 다양한 문화적 상이점들을 조화시키고 새롭고 독특한 생활태도를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화적 상이점은 상반된 세계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는 반면, 이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 보면 이를 조화시킬 수 없는 상호모순의 가치관과 태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우리는 이를 상호보완적인 면으로보아 우리 삶이 이러한 추구에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여성들의 이민적응도에서 그들의 가능한 자아형성의 형(Typology) 을 개혁주의자, 협동주의자, 복합주의자와 보존주의자의 4 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82]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자 (Innovationists)	: 그 이상 전통적이 아니고, 비전통적 사상적으로나 행위적으로 비통적 유형
합동주의자(Incorporationists):	자신속에 전통적인 그리고 비전통적인 특성을 혼합하는 유형
복합주의자(Combinationists):	행동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태와 비전통적인 형태를 이중적으로 실행하는 유형
보존주의자(Preserationists)	: 언제나 사상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전통적인 유형

유교에서의 이상형의 현모양처 이미지는 오로지 “내 남편, 내 아이들과 내 가정만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으로 특징지울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이상형의 이미지는 “내 가정과 공동체”만 을 위해 살지 않고, 또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인류”를 위해 가정과 공동체”

81) Ibid., 86.
82) Ibid., 89.

만 을 위해 살지 않고, 또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인류"를 위해 "자신사랑 생활" 태도로 특징지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83)]

한미여성들은 오랫동안 압박당하는 문화 속에서 뿌리 박힌 전통적인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 첨가해서 근대 한미여성들은 두 문화 속에 갇힌심정으로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기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느끼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 당면 하는 서양화된 근대 양상을 따라야 할 것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느끼며, 동시에 또한 그들 속에 전혀 반대되는 심정을 느끼는 것이다. 동양 문화는 중용, 복종, 의무, 일치, 가정관계를 필요로 하는 반면 서양문화는 개인주의, 자기주장,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성취를 격려한다.

2 세와 3 세들은 이러한 부모들과 강한 감정적 관계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개인으로서 자기주장을 갖기를 원하는, 두 가지 이념들사이에 갇힌 느낌으로 갈등하고 있다.[84)] 많은 1 세 한미여성들은 가정에서 제외된 느낌이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자녀들과 만족한 대화가 불가능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도와 줄 수가 없다. 1 세 여성들은 문화적인 긍지의 상실과 정체성의 위기, 사회적 주변성 과 사회에 있는 차별대우와 무존재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재미한인여성들의 사회적 경향은 어떠한가? 재미한인교표들은 소기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 35% 정도의 교포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포 인구증가와 자영업 종사율을 감안할 때 87 년 조사기록에 보면 전국적으로 5 만개 정도의 교포소유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축되고 있다. 80 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인이 최근 17 개 이민민족중 가장 높은 자영업 종사율을 보여 주고 있다. 왜 소기업으로 집중하는가? 일반직업에서의 불리한 여건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언어장애, 문 문화의 차이, 인종차별 등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일반직업을 찾는데 불리하다. 교포들이 자영사업을 선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야심이다.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영세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교포들 대부분이 내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오늘의 쾌락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가 되어 있다.

이민사회에서는 특수한 사정으로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며 맛 벌이를 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미여성의 노동참여자 가운데 40% 정도가 남편과 같은 가게에서 자영업에 종사 하고 있다.[85)] 부부가 한 가게를 운영할 경우, 가족의 무보수 노동력에 의존하여 종

83) Ibid., 92-93.
84) Inn Sook Lee, ix-xii.
85) 민병갑, 153.

업원을 쓰지 않고 업주가 장시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86] 대개 남편이 법적으로 가게 주인이며 또 실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부인은 '무보수 노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 남편의 가게에서 '무료의 노동"을 제공
하는 이들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뛰고 있으나 눈에 띄이지 않고 있 으며 무보수로서 미국 직업여성들이 누리는 경제적, 심리적 독립과 만족감을 맛 볼 수가 없다.

또한 부부가 함께 장시간 자영업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많은 가정문제들이 있다. 남편과 한 종일 함께 일하게 됨으로 사소한 일까지 쉽게 거슬리거나 말다툼의 기회가 많아진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장시간 일을 하여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들을 하는 경우,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불만이 많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부부간의 갈등의 요인들이 될 수있다.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당면한 5 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설문조사 한 결과, 부부갈등을 그 중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87] 목회자들 거의가 교인들의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유체적, 정신적 피로가 부부 갈등의주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봉제공장, 야채가게, 델리, 세탁소, 그로서리, 생선가게, 식당, Nail 싸롱등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다. 여권이 보장되는미국에 와서 산다고 하지만 재미 한인여성들은 한국적 남존여비의 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 명의처리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집의법적인 재산 명의는 가장 명의 57%, 공동명의 25%, 여자의 명의 14%를 이루는 데, 여성명의 경우에는 대개 일찍 이민 온 덕분에 법적으로 확고 한 위치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이민생활에는 한계점이 있다. 아무리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었다고 하나 그 한계 점은 명확하다.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복합현상이 재미여성들에게는 더 가중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노동분업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한미여 성들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분망의 연속"이다. 남편과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나 퇴근 후 귀가하면 음식작만, 자녀교육 등, 일 더미에 묻히게 된다.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증진으로 해서 따르는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노동에 참여 하며 장 시간 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갈등을 초래하고 가족 전체로 볼 때는 부부갈등과 자녀교육의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포사회가 소기업에 집중되어 경제적으로 미국사회와 고립되어 있으므로 남녀

86) Ibid., 61-78 .
87) Ibid., 152.

모두 가부장제에 기초를 둔 한국의 전통적 부부관계를 수정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교포 남성들은 전통적 남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 자기의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그들이 한국의 전통적 부부관계를 미국식 부부관계로 바꾸기를 원치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반면에 자기들에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비해 더 빨리 전통적 한국식 부부관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서 아직 한국의 전통적 부부관, 여성관에서 기본적으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88] 여성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직장에서나 성별에 따른 일의 위계질서가 뚜렷이 존속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서의 여성권익신장에는 아예 무관심할 뿐 더러 여성들자체에서도 자신의 문제조차 거론하려 않으려고 한다. 교회의 대다수가 여신자들이요 여성들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주일 대예배 후면 여성들은 다과를 준비하거나 혹은 음식 을 장만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교회 내의 여러가지 일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것은 물론 중 요한 일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내에서의 여성들은 교회내의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당회나 혹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보다 가사의 연장에 불과한 일들로 바쁘다. 교회에서는 여성회 지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자기를 성찰하여 비약해 보겠다는 의욕이 없으며, 모든 창조의 신앙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여성의 심리이다.

이런 식의 바울서신을 문자대로 이해하려는 상당수의 여성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겪어 온 가부장제적 사회에서의 눌림과 편견과 아픔과 억압을 존엄성과 존경과 인간을 위한 배려가 소외된 자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의 분출구(agent)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 "힘의 기반" 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거침돌이었던 가부장적 억압을 참 인간화와 자유와 해방의 디딤돌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중문화의 갈등을 병용하여 새로운 자아의식을 개발하며 미국에 파송된 순례자 의식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더욱 필요한 것은 재미교포 및 한미여성들의 올 바른 태도는 한국인이며 미국시민 즉, 코리안아메리칸 이라는 독특한 제 3 의 아이덴티티를 긍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것이며, 확고한 정신적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재미교포가 "나그네" 혹은 "주변 인간" 이지만 이제 사회적 주체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 (벧전 2:9-12)이라는 정신적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88) 민병갑. 156

이러한 현실에서 이민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89] 자기성찰과 더불어 깊이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비젼을 심어 줄 여성지도자가 필요하다.

3. NKPC 산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조직

미국내 한인교회 역하에 비하면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조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 장로교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남, 북 으로 따로 나누어져 소속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에서는 여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었지만 연합체는 없었다. 남.북장로교가 통합되자 1986 년 가을 부터 통합 준비작업을 거쳐 1987 년 남.북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의 통합 창립총회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갖추게 되었다.

최근에 재미 교포교회 여성들이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를 조직하고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며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 난 사실은 의미가 깊다고 보겠다.

1) 연합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1979-1987)가, 총회에서 연합장로교 한인교회여선교회(United Presbyterian Women in the U.S.A.)로 명명하고, NKPC 산하 정식기구로 인준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2) 남장로교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조직(1981-1986) 1982 년 워싱톤 4HCenter 에서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개 개최되었다. 그 동안 한 번
도 이런 수련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던 한인 교회여성들에게 매우 경이적이며 감명 깊은 모임이었다. 1983 년 전국대표 63 명과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주제하에 뜻 깊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3) 통합 이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1986-1995)1987 년 프린스톤 시학교에서 역사적인 통합창립총회를 개회하였다..

1980 년를 돌이켜보면, 이 여선교회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항해의 깃발을 올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호는 앞으로도 선장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목적지를 항해하게 되리라 믿는다.90)

---

89) Sang Huyn Lee, 92-95.
90) Kim, Dai Kyun ed., *A History of Korean-American Church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Celebration 25th Anniversary of National Korean Presbyterain Council, 1972-1996*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ouncil, Presbyterian Church (U.S.A.), 1999), 161-180.

C. 의식화 개발을 위한 성찰과 문제

1. 성서의 가치 규준의 문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서를 중히 여기겠지만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경우 성서에 대한 열망과 그 귀중함은 탄복할 것이다. 성서를 함께 읽어 가며 하는 사경회가 한국처럼 성대성대하게 운집되어 진행한 곳이 흔히 없으며, 한국교회가 '성서의 교회'라는 것은 자랑인 동시에 특성이라 하겠다. 한국의 신교가 1 백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놀랍게 빠른 발전의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성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많이 읽으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서를 중심으로 하여 성서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실제에 있어서 성서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전제하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서의 올바른 이해가 촉구되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문제라면 그것은 성서의 의미도 모르는체 많이 읽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런식의 관념은 한국교회가 성서를 읽는 그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이쓴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경향성을 지적하게 된다. 다음의 문제로는 한국교회의 바른 성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서를 읽지만 바른 성서관을 가지지 못하고 읽 때문에 여러가지 이상한 현상을 빚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서에 들어 있는 66 권의 책은 그 저자도 가가 다르고 그 연대도 다르며 또 그 환경이 모두 다르다. 그러기에 성서를 평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그 모습 전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려고 할 때 각양 각생의 표현양식이 채용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서의 계시를 인간에게 표시 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4 천년 내지 2 천 년 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미개하고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우주관과 제도와 언어와 표현양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본다. 역사는 역사로, 시는 시 로, 비유는 비유로, 격언은 격언으로, 소설은 소설로, 희곡은 희곡으로, 신화는

신화로 각 각 분류하여 거기 해당하는 적절한 해석법에 따라서 해석함으로 그 계시의 참 뜻을 바로 깨 닫게 되는 것이다.[91]

이런 면에서 럿셀도 그러므로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 기위해서 사건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점에서해석하는 의식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 사건에 대한 발전과 계속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그러한 방법은 필연 적인 것이며, 복음의 메시지를 현 사회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92] 여기에 한국교회 여성들 자신들의 성서에 대한 이해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여자 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1:34), "여자 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하노니"(딤전 2:12)

이런 식의 바울서신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상당수의 여성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할 수있다. 이러한 명령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인지 아닌지 묻기도 전에 성서에 쓰여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여성 차별적, 남성우월적인 사고로 펀드는 중요한 성서 본문이 되어지곤 했다. 오랜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500 여년간 동안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 아래서 성차별 속에 살아 온 한(恨) 많은 한국여성들에게는 자기비하의 만성병으로서, 그 병은 만만신창의가 된 것이다. 외부적인 상처는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가슴의 상처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오래된 뼈에 사무친 마음의 골병을 퇴치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 "하나님은 남녀 동등하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 1:27-28)고 하셨다.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니 못한다면 그것은 비인간화 된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만성화 된 병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특수한 비약이 있어야 하고 환자의 끈질긴 인내와 용기와 비젼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여기에 능력있는 여성지도자의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의식화 개발은 여성 자기 스스로 비하병을 치료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다운 인간회복에의 길을 찾는 것이며 이를 쟁취하는 작업인 것이다.

성서를 번역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해석하는 과정을 흔히 해석학 (hermeneia) 이라고

---

91) 박창환, 성경의 형성사(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9), 13-14.

92) Letty M. Russell, *Human Livberation*, 95-96.

한다.[93]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성서의 본의를 역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규준으로 해석하느냐 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면에서 목회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해석학 (hermeneutical) 이라고 이해되어 왔다.[94] 여기에 목회자의 중요한 과업이 있는 것이다. Gerhard Ebeling 과 Ernest Fuchs 는 성서는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다― 그 자체가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95]

기독교는 "성서적 종교"(a Biblical Religion)이다. 서군도(Juan Luis Segundo)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성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며 또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부단히 연구해야 하며, 성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부단한 성찰과 함께 통전적인 재해석을 해야한다고 역설한다.[96]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성서의 본의를 역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하도록"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97] Funk 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 그 자체가 해석한다" 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자나 목회자의 사명은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회사역(task)은 필연적으로 해석학적이다.[98] 휘오렌자(E.S. Fiorenza) 도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서는 단순히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다. 목회자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자"(the mouthpiece)이다. 반면에 목회자자 설교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단지 자기 자신의말이나 혹은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위험성 속에 있는 것이다.[99]

휘오렌자는 성서의 사회, 문화적 분석을 통해 성서에 들어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차별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성서는 가부장제도의 상황에서 남자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해석에서 지배층인 남성을 성화(聖化)하는 이델로기가 들어 있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이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었다고 한다.[100] 이런 맥락에서 휘오렌자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불변하는 말씀으로 비유하

93)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197.
94) Robert Funk,*Language,Hermeneutic, and Word of Go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10.
95) Juan Luis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11.
96) Ibid., 7-8.
97) Elisabeth Schussler Fiorenza, *Bread Not Stone*, 23.
98) Robert W.Funk, 10.
99) E. S. Fiorenza,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84), 25-26.
100) Ibid., xiii-xiv.

기 위해 사용 했던 돌판(tablets od stone)이라는 은유를, 여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밀어 줄 힘이 될 "빵"(bread not stone)의 이미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1]

그러므로 여성들의 해방운동에서는 신학적 기초가 되는 성서에 가부장적이고 문화적인 태도가 나 타 나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다.[102] 여기에 성서의 역할 내지 권위 문제가 여성신학의 문제로 논의된다. 여성신학은 이와 같은 성서의 본문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여성해방적 해석학의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그러한 비판적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성서 속에 현재 들어 오지 못하였던 여성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한다. 여기에 가부장제적 고정관념과 편견들에서 성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여성신학의 정립의 문제가대두 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실 중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치적으로 차별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할 때 그러한 차별이나 착취들이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서를 이용해 온 사실이다. 남성사회 집단의 여성집단에 대한 성적 억압의 문제도 이와 꼭 같이 성서의 권위로 이를 정당화 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차별, 착취, 억압 에 대해 비난이나 항거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저지하는 데 사용된 거룩한 무기의 역할도 성서가 담당해 왔다.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기독교사에 나타난 현상은 그러한 차별, 착취, 얼압에 항거하는 움직이 있을 때 그러한 항거나 비판을 신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주장하는 근거로 역시 성서를 인용하고 있다.[103]

그러므로 성서신학분야에서 여성신학을 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대두 되는것이 성서해석의 문제이다. 여성신학에 제시해 주는 기반으로서, 또 여성신학의 비판적 원칙을 제시해 주는 기반으로서 성서의 권위의 문제가 대두된다. 전통신학에서도 그러하듯이 여성신학에서도 성서가 규범적 기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성서해석의 문제는 여성신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성신학이 모든 기독교의 전통적 자료를 훼메니스트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의 대상에서 성서가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훼미니스트 관점에서 성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에 부딛치는 문제는 그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성서 자체에둘 것인가 아니면 성서 밖에다 둘 것이가에 따라 여성신학자들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

---

101) Ibid.. xiii.

102) Mary Daly, *Beyond God the Father:Toward a Philosophy of Womens's Liberation* (Beacon Press, Inc.,1973), 28.

103) Ibid.. 88.

고 있다. 훼미니스트 중에는 탈성서적 훼미니스트(post bilical feminist)도 있다. 이들은 성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도전이나 거부에 그치지 않고 성서 전체를 거부한다. 그러나 여성신학에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훼미니스트(Feminist)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작업을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엘리자벳 휘오렌자(E. S. Fiorenza) 자신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성서에는 여성의 해방투쟁에 대해서 반재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그런 본문이 있다. 그러한 본문들은 남성 중심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나 교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종속적 역할과 이차적 지위를 그대로 합법화해 주는 구실을 한다. 우리 훼미니스트들 가운데에는 성서의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성설를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우리는 성서종교를 우리자신의 유산으로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유산이 될 그런 성서를 발견해 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산이 곧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의 유산을 다시 찾는 과제는 오직 훼미니스트적 평가의 비판적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104]

럿셀도 "성서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성서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해방의 행위를 증거하기 때문이다"[105]라고 역설하고 있다. 류터와 럿셀은 훼미니스트 비판원칙을 성서에 둔다. 다른 전통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신학에서도 성서가 규범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06] 이처럼 성서를 훼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행해야 할일이 있는데 휘오렌자는 그것을 여성신학적 성서해석이라고 한다.[107] 성서를 훼미니스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서가 어디까지나 여성신학의 기초가 된다는데 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성서가 철저하게 가부장 제적 관점에서 쓰여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용된 언어가 남성중심적 (androcentric) 언어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관점도 남성중심적인 점이며, 그 속의내용도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의도되고 구성된 것이어서,[108] 그것을 그대로 여

---

104) E. S. Fiorenza, *Bread Not* Stone. 12-13.
105) Letty M. Russell, "Authority and Challenge of Feminist Interpretation," *Feminist Interpretaion of the Bilbe*, edited by Letty M. Russ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140.
106) E. S. Fiorenza, 13, quoting Letty M. Russell, "Feminist Critique: Opportunity for Coopera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982):68.
107) E. S. Fiorenza, *In Memory of Her*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9), 15.
108) E.S.Fiorenza, "Interpreting Patriachal Tradition," *Liberating Word*, edited by Letty M. Russell, 39-40.

성신학의 이론을 구성하는데 받아들일 수없다는것이다. 그래서 여성신학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최초 작업으로서 이와 같은 성서에 대한 훼미니스트 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념과 편견들의 굴레에서 성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문자적인 해석에서 탈출하여 통괄적인 언어로 성서를 재조명하고 재해석함으로 가부장적 사고에서 성서를 해방해야 하며, 따라서 여성들을 해방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이다.

2. 교역의 위계적 성별 분업 문제

기독교회 교역자란 항존 직에의 위치에서 지교회의 공식교역에 참여하는 이들을 칭한다. 공식 교역자의 직무에는 항존직의 위치에서 지교회의 공식 교역 즉, 교문권, 성례권, 축복권 그리고 치리권이 있다. 그러므로 이 직권들을 행사할 수 있는 공인된 담임목사, 부목사, 그리고 교육목사가 교회 교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임시직의 위치에서 이 직권들을 행사할 수없는 여교역자는 교역자라는 이름은 붙여졌으나 사실상은 교회의 공식 교역로부터는 제외 되어있는 것이다.[109]

그런데 오늘날 지방 신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및 여자신학교를 졸업한 이들 중 아직도 여교역자들 중에는 위 에서 언급한 공식교역에 참여할 수 없다. 평생을 교회 교역에 바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임시직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 고 기독교대한 감리교의 목사직은 항존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도사는 임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시직이라는 여전도사들의 위치는 사실 신분상의 불안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조로부터 그들을 제외되는 문제들까지 동반한다. 이 문제들 중 첫째는 임시직으로서의 전도사는 개의 항존직인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회 회원으로부터 제외된다.[110]

미국에 이민 온 한미교회 에는 아직도 성직에 위계적 성별 분업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왜냐 하면 교회의 성직제도가 남성교역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교역자가 목사로 배출되지 못하고 임시직 으로 규 정되어 있고 또 교회성직제도는 평등한 직제구 조가 아 니라 위계적 구조이므로 목사와 전도사는 그 직무의 권한과

109) 오성충 외 3인 편, *교역과 여성안수*, 155.
110) Ibid., 146-147.

책임 그리고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교육을 받은 여교역자는 목사직에서 배제 되어 위계적으로 직제구조에서 항상 낮은 지위인 전도사직에만 종신토록 시무하게 되어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여 교역자가 목사로 배출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여목사에 대한 부정의 이유들이 무엇인가?

현재 여성교역자가 목사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 주의적 성직관과 남존여비사상과 남성우월주의에 빠진 보수적인 여성관에 주로 기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개 여성은 목사로 적당치 않다는 인식은 목사직에 대한 이인식 때문이다.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에서의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위계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직관 즉 목사를 남성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가부장적 권위로 대비시키는 성직관이 여교역자를 목사로 배출시키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요소로 본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적 성직 관이 강화 유지 될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는 그것이 권위주의적 한국사회구조에 의해서 지지 될 수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목사가 되기 곤란한 이유는 여성은 약해서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행위에서 제물을 도살하는 제사를 준비. 집행하는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힘으로는 부적합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여성이 제사장 직무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신학적으로 "거룩성"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의 임신, 출산이 부정한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제사장직분에서 제외된 것을 본다(레 2:18 참조). 제사예식에서는 정신적. 육체적인 온전 성과 깨끗함이 거룩 성의 차원에서요구 되었기 때문에 (레 21:1,겔 44:5 이하 참조), 제사신학에 서 여성의 생리. 출산이부정한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의 제사장 직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111)]

류터(Ruether)도 "성직자적인 전통은 또한 여성의 '부정' (uncleanness)을 종교적 견지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성의 육체성(bodilimess)은 성스러운 것들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112)] 현대에도 실재로 두 가지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즉 출산 기간 동안 교회를 비워야 하며 임신 중에는 심방이 부자유스러울 뿐더러 "여자가 배불러서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느냐?"이다." 여성이 성직을 맡는다는 사고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반감은 당신은 애기를 밴 여자가 제단에 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표현되어 있다.

---

111) 김중은."III. 여제사장의 부재문제," *교역과여성안수*, 오성춘외 3 인 편, 53-54.
112) R. R. Ructher. *Sexism and God-Talk* (Boston: Beacon Press , 1983). 195.

또 하나의 당면문제라면 여교역자 자신의 문제이다. 그것은 자신의 억눌린 상황을 체하며 받아드리는 저자세라고 지적할 수 있다. 즉 현실의 긴박한 사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함으로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내면화의 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영 교수도, "여성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선입관, 편견, 불신을 보다 일찍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 결집. 증명해 내지 못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3]

또한 여성에 대한 여성의 평가이다. 오늘날도 여성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교회적이고 사회인 활동을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교회에서 조차도 여성신도들 자신이 여성의 장로제도나 여성의 목사안수를 거부 혹은 인정 하지 않는 경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자신이 스스로를 사회회적인 활동의 적임자 보다는 가정적인구조의 역할 담당자로만 여기려 한다는 것이다. 여성지도력 개방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여성활동에 대한 이해, 그것을 위한 여성자신들의 훈련과 준비가 요청된다.

대부분의 여교역자들은 자신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해 저항의식이 부족하여 현실을 수긍하는 방관 자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여교역자의 의식변화라고 하겠다. 그것은 현실의 근시안적인 데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다. 여기에 여성들의 질향상, 제도화 향상, 민주화의 평등사상을 지향하는 그 길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이 평생 동안 직업을 바꾸는 평균 회수가 3~4 회 이며 이들은 계속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회생활을 바로 잡는 유일하게 믿음직한 길은 종신성직자 제도라고 확신하는 성직자병을 치유하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다.[114]

여성은 성직의 관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여성 성직자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즉 여성은 권위, 곧 "아버지의 권능"(father's right)을 대신 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요청된다. 럿셀이 언급한 것 처럼 "증거하는 공동체 내의 자유와 봉사를 위해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성직은 특권이나 계급적 신분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의 표현으로 될 수 있다. '어머니'로서 역할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발전할수 있 있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다."[115]

---

113) 이수영, 여성안수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론적 고찰," *교역과여성안수*, 오성춘외 3 인편, 105.
114)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151.
115) Ibid., 282-290.

3. 자기비하에서 자아의식에로 전환의 문제

여성들이 그들 개인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를 실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세계를 실현하는 일에 그들의 잠제적인 행동을 배우기 위해 자아의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식과 능력에 도달하려는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의식화라고 한다. 여성들의 인간화와 해방을 위하여 의식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의식화 과정에서 전통, 역사 그리고 언어는 해방의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의식화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사회 문화적 실재를 일깨워 주며 그들 자신을 그들의 역사적 미래를 창조하는 자와 의식적인 주체자로서 확증시켜 준다.

Clinbell 은, "개인의 성장은 그 사람이 그러한 성장을 통해 타인과 연합하여 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며 그러므로 성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회요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성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치료케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이다"[116] 라고 했다. "Freire 에게는 의식화(conscienzacao)는 "문화적 행동"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순을 감지하고 압박하는 요인들을 대항하여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계속적인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117] 여기에 의식화의 중요성과 아울러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이다.

흔히 의식화는 자유를 향하는 도상의 "여권설명서"(passport description)"[118]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다른 말로 의식화는 의식을 깨우치는 것과 똑 같은 현상으로서 설명 되며 실천(행동-반영)을 내포하는 끊임 없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성숙한 인식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정체성을 자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기독교 신학은 여성들이 자기 의식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신학자들의 비판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 내지 신학은 오히려 이 길을 막아왔다고 한다. 여성의 미덕으로 본 겸손, 자기희생, 인내 등이 여성의 침묵을 미화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부장제적 여성 억압의 "질서"(order)를 유지(status quo)해 오는데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여성들을 흔들어 이 침묵을 깨우는 일이 여성해방의 첫 걸음이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한 의식화 교육은 곧 여성들을 해방에로 들어 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들이 자신을 재정립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

116) Howard Clinbell, *현대 성장상담요법*, 이종헌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0), 23-24.
117)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14.
118) Ibid.

야 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온전한 인간성"을 실현 시킨다는 것은 여성신학의 목표일 뿐 아니라, 모든 해방신학의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들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되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것을 깨닷게 하는 일이 요청된다. 그래서 여성신학의 첫번째 과제는 여성들의 해방 혹은 인간화가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여성들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현대 해방신학에서 사용하는의식화(conscientization)라는 말이 여에 해당한다.[119]

가부장제적 제도하의 성차별에 의한 불평등은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 그들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와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 은사를 낭비시켜 왔다. 하나님의 하는 파트너쉽을 지금부터 실천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길은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분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용어를 바꾸어서 "평신도(laity)" 와 "성직자" (clergy)의 두 말을 합쳐서 "평신도 성직자" (Laergy)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120] 평신도성직자라는 말은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직제가 '하나님을 제한'[121]할 수 없는 것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는 공동생활을 위해 우리들의 재능을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있어서, 공동체 안의 모든 남녀 신도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동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의 은사들과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개발하고 양육하여 최대한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또한 의식개발을 위해서 모델로 성서 속의 숨은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여성들의 자아의식과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19) Letty M.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157.
120) Ibid., 157-158.
121) John E. Hunter, *Limiting God*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6), 43-62.

CHAPTER III.

문제분석(Analysis of the Problems)

한국교회나 본 교회도 역사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 살펴 볼 때, 신학의 생리는 보수성을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별함 없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성서적 해석학의 생리가 문자성을 뛰어 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인 주관적인 방법에 기인해 왔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변함이 없이 한국교회의 신학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여성에 대한 성서적 해석 또는 신학적 이해에도 동일 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직(聖職)에서 제외하고 비인간화 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해 왔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억압 속에 살아 왔으며, 자기 비하의 만성병에 시달려 온 것이다. 이렇게 신학부재의 말 속에서 과연 여성은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그 해석과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 여기에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성서의 부분적인 구절들이 언제 나(all times)를 위한 규범(rule)과 전체성의 진리로 절대화하는 과오를 지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의 열등성과 수동적 역할을 성화(聖化)시키고 교회 지도자론의 배경과 성차별의 청사진(Blue print)으로 여성들을 쇠뇌한 과오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 다. 여성의 그와 같은 관계가 궁극적인 "신학적 상징"(Theological gender symbols) 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교회도 성서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살펴볼 때 미흡한 문제가 많다. 이 문제는 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의 당면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요약해 보면 첫째,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둘째, 교회여성의 의식화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에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여성이 자기비하에 빠진 것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자아의식을 찾게 되면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경 전체에서 볼때, 사라, 드보라, 미리암, 에스더, 루디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수 많은 여인 들의 남성우

위적 활동을 볼 수 있다. 신약성서와 교회사에서 여성들은 종이나, 그리스도의 사도들 (증인들,witnesses)로서 표현되었다 (마 22:28, 눅 24:1-10, 요 4:28-29,요 11:27 등). 많은 학자학자들과 교회의 교부들 중에는 마리아 막달라 (Mary Mcdalene) 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렀다 사복음서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가장 뛰어난 여지도자였다.[122] 여성들은 부활의 기쁜소식을 전하려고 달려 갔던 첫번째 증인들이요, 첫번째 "설교자 (마 22:28,눅 24:1-10)였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신학을 토론한 '최초의 신학자'였다(요 4:28-29). 이와 같이 성서 속에는 여성지도자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 가령 여자는 원죄의 근본이며, 불결하고 열등하며 종속적이라는 등등의 예만을 강조해 온 것이다.[123]

"성령의 선물"은 남성과 여성들 모두가 받은 것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사도들과 종들의 동 료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일 할 것을 권고 했다 (고전 12:6;14:26-36). 바울에게는 교회 가 역사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 시대의 징조였다. 가부장제 옹호자 같은 바울은 여성 동등권의 주창자(갈 3:28)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서 바울의 특정한 그룹의 여성들에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말한 여성에 대한 소극적인 언명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전 11:34) "여자 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 하노니"(딤전 2:12) 등을 아무런 성찰 없이 문자대로 믿고 여성들을 묶어 둠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여야 될 막대한 여성들의 재능들과 잠재력들을 매장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런 식의 바울서신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상당수의 여성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의 역사적, 사회 배경 속에서 바울의 서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복음선교에 나타난 사실은 여자와 남자를 똑 같이 받아 들였고 그들과 함께 동역 했다는 사실을 찾아 보게 된다. "바울은 여성의 열등성을 믿지 않았으며 교회에서의 여성의 이차적(secondary) 역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반대로 바울 은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남녀 동등 성을 옹호하였다. 로마서 16:1-15 에서 26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 데 남자들과 함께 9 명의 여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남자들과 똑 똑같 이 동역자들로 인정해 주었 주었다.

---

122) E. S. Fiorenza, "Androcentric Traddition in the New Testament," *Liberationg the Word*, edited by Letty M. Russe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53.

123)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42; Rachel Conrad Wahlber, *Jesus According to A Woman* (New York:Paulist Press, 1975), 4.

그러면 왜 바울서신에 나타난 몇 몇 귀절들이오늘날 까지 여성 지위를 남성에게 종속시키도록 인용하고 있는가? 문제된 귀절들의 본 뜻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본래의 뜻이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서는 가부장적 이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고 해석되어서, 여성의 종속속적인 역할과 이차적 지위를 그대로 합법화해 주어 왔다. 어떻게 가부장적 고정 관념과 편견들에서 성서를 해방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이 대두된다.

말씀은 두고 두고 교회를 재형성하고 새로워 지도록 자유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성서해석학이란 중요한 과제가 있다. 교회가 말씀의 관맥을 찾는 노력을 잃는 한 교회의 힘과 신뢰성을 함께 잃으며, 교회의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회 여성들에게 "잠잠 하라" 하는 것이 미덕으로만 믿고 철칙으로만 삼아왔던 오래되고 고질화된 의식을 쉽게 변혁 시키기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믿음의 끊임 없는 끈기와 인내로서 가르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써 교회여성의 의식화는 점차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기독교회 100년을 돌아볼 때,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평신도로서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한국 교회사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창출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런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지도력에 대하여는 진전이없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여성의 역할을 단지 보조적이거나, 뒷바라지만 하는 음성적인 역할에 국한시키고, 그것으로 만족하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교회 공동체가 특히 유교의 권위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주의로부터 평등사상과 여성 해방에 기여함이 적지 않았으나 다른한 편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차별주의가 잔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관례화되어 여성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라도 부서장을 맡기지 않으며, 교회의 지도적 위치나 의사 결경 과정은 남성으로 한정시켜 왔다. 그리고 대개 여성들은 보조적 역할이나 봉사와 접대의 역할에만 국한시켜 왔다.

1991 년 76 회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여성안수의 건이 부결되고 3 년 동안 동일안의 헌의도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가결되면서 교회 안 밖에 다양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위 의 결정을 찬성하는 측은 총회가 성서적인 결정을 했다고 옹호하는 가하면,

반대하는 측은 가부장적으로 성서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자의경우가 다 성서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자기주장과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시점에서 성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이해와 오늘의 종말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성서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내에서의 여성활동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해석학적 평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124)]

성서적으로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막 16:16)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위에 세워졌다고 했다. 마르다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 11:27)했다. 사마리아여인 역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 4:19)고백 했다. 교회는 이런 고백들 위에 세워졌고 예수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훼미니스트(Feminist) 이었다(눅 10:38-42). [125)]

우리에게 보여 주는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되었으며(창 1:27),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 3:28)이며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나 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새 인간'(New Human Being)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열망하는 세계를 위한 봉사와 활동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며(고후 3:17,1:22) '종'과 '사도들'로 부름받았다.

>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 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엡 2:19-20).

구약속의 위대한 여성지도자들, 예수의 여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여성사도들에 대하여 성서해석학적으로 성찰함으써, 여성의 지도력의 가능성을 확신코저 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교회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주체적으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서적인 지도력의 범례(Paradigm)를 모색. 개발하고자 한다.

---

124)) E. S. Fiorenza, "Emerging Issues in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 *Christian Feminism. Vision of a New Humanity,* edited by Judith L. Weidma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33-54.
125) Leonard Swidler, "Jesus was a Feminist,"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Vol. 13/1, 1972.

A. 성서적 연구(BIBLICAL STUDY)

1. 구약성서에 나타난 여성지도자들

하나님의 구속역사에는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Helpers,Servants)로 부름 받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서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맞아 살게 하기까지, 민족 의 지도자로 활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후 왕정시대로 들어가 나라의 위세를 떨치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고 망해버리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간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다.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한 구실을 한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잊혀진 여성지도자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해 내어 그들이 지녔던 훌륭했던 점들을 밝힘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남성 들과 함께 나란히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온 위대한 여성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약성서 속에서 여성해방을 실천한 3 명의 여성을 선택하여 성찰해 보고자 한다. 즉 그들은 미리암, 라합, 드보라이다. 이 여성들은 모두 역사의식, 공동체 의식, 행동력을 지닌 여성해방자들이다. 이제 한 사람씩 연구해 보기로 한다.

1. 여 선지자 미리암(רמ מי, Miriam)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마라'(הרמ,Marah)에서 나온 명사로, '쓰디 쓴 것', 혹은 '슬픔'이라는 뜻이다. [126] 교부 제롬은 같은 히브리어에 '바다의 별'이라는 뜻 이 있음을 밝혔다. 70 인 역에서는 '사랑 받는 여자'로 나온다.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 란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다.

성서해석학자에 따라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미리암은 나일강에 버려진 어린 아기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물에서 건진 후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 유모를 소개한다.이렇게 해서 미리암은 생모와 아기를 연결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위기에 처한 미래의 민

---

126) *성경백과사전*, 단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227, 285.

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생모품에 안겨준 용감하고 지혜로운 소녀였다. (출애굽기 2:4-8)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요, 여성 예언자"로서(출애굽기 15:20) 모세와 아론과 함께 친형제자매로서 출애굽 사건의 주도적 인물이다(민수기 26:59, 미가 6:4). 출애굽 해방 사건의 지도자들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 미리암을 사람들은 "여선지자"라고 불렀다. 미리암은 그 시대의 지도자였음이 확실하다. 실제로 미가 6 장 4 절에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 세워 종 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진술함으로써 출애급의 민족해방역사에서
미리암을 3 대 지도자로 가리키고 있다.

또 출애굽기 15 장 21 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는 히브리 시 가운데서도 옛 것들 가운 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미리암은 모든 히브리 여인들과 함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흥겨눈 몸짓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서 다른 모든 여자들이 다 함께 소구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악 기에 맞추어 춤도 추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다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 찬양의 노래를 미리암이 지었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했으니 여성으로서 그 당시 선지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음을 본다. 출애굽이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기뻐하며 소고룰 들고 여자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한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 미리암은 가부장제를 타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춘 최초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수기 기자는 이러한 미리암을 마치 대 죄인처럼 취급한다.

이방 에디오피아 구스여인과 결혼한 사건이 벌어진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 사실은 비난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인용부호("")에 들어 있는 이름의 순서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모세를 비난하는 부정적 장면에서는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와서 마치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비난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 미리암의 이름은 항상 뒤에 나온다. 미리암의 나이가 제일 위임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이다. 더욱이 모세를 비난한 일은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했음에도 미리암만이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민 12:9). 물론 아론이 간청하고(민 12:11) 모세가 기도하여(민 12:13) 미리암은 7 일 후에 회복되었다.

이는 비록 미리암이 출애급 해방 사건의 지도자에 들기는 하지만 미리암이 여성이기 때문에 처벌당하고 있다. 더욱이 신명기 24 장 8-9 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린다고, 마치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의 본보기로 미리암을 들추고

있다. 하와는 인류의 죄를 가져 오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고, 또 미리암은 모세를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로서 하와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벌을 받았고, 미리암은 문둥병을 받았다. 이 두 사람 속에는 공범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여자들의 죄로 돌리고 있다. 이것이 가부장제적 기록이기 때문이라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휘오렌자는 "여성들에 관념들은 여성들의 실제적인 해방과 역사에서의 행동적인 참여가 보다 더 강해질 때마다 여성의 자리, 역할, 혹은 본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들이 증가한다"[127]고 말하고 있다. 미리암은 이런 좋은 예이다.

그러나 재조명해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여성신학자들은 미리암의 병이 하나님의 벌로 생긴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팔레스틴을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은 팔레스틴 일대에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해골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 병은 수년간 그 일대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한다.[128] 또한 성서 속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129]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미리암의 병이 하나님의 벌로 생긴적이 아니라, 미리암이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에는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큰 충격으로 그녀의 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숙자는 "미리암이 얻은 병은 그녀가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미리암은 전염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을 돌보며 자신도 병에 걸려 신음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다한 여성이다. 미리암의 사명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지도자 미리암은 모세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지도자을 모세와 동등한 자리에 둘 것을 거부하는 후대의 남성들의 산물임이 틀림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130]

미리암은 비록 여성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당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던 상황속에서도 선지자요 지도자의 일을 담당한 것은 상당한 일이 었다. 그의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지혜와 행동으로 출애굽 사건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큰 일을 감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127) Fiorenza, *In Memory of Her*, 117.
128) Mayers, Carol L., ed., "The Roots of Restriction," *The Bible and Liberation*(Gottwald: Orbis Books, 1983), 295.
129) Ibid., 296-298; 민수기 16 장, 21:6, 11:1-13, 14:11, 25 장, 31:21-23, 출애굽기 32 장 참조
130) 정숙자, "하나님이 여성에게 말씀하셨다," 강연 2 집,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신학과 인간화*, 1987, 44-45.

여기에서 주목할 만 사실은 여성들은 생명을 나르는 해방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구분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생명을 죽인 한 사람들은 바로와 군대와 바로 신하들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은 요게벳과 미리암을 비롯하여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이다. 또 바로의 공주와 그의 시녀들이다. 우연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여성들인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리암이 제시한 공동지도력과 평등한 인간공동체의 모델은 사사시대에 까지 여성들에 의해 이어져 갔다고 보는 것이다.

2) 혁명자 창녀 라합

미리암과 라합은 민족을 해방한 위대한 지도자들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비교 된다. 라합을 미리암과 비교해 볼 때, 미리암을 출애굽 출발의 공헌자라고 한다면, 라랍은 가나안 정착으로 출애굽을 마무리한 공헌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미리암이 출애굽 공동체의 내부 인물인 데 반해, 라합은 외부 인물로서 그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이다. 성서는 미리암을 예언자로 부르는 반면에 라합은 창녀라고 부르고 있다. 즉 미리암은 그 사회의 지도자인데 비해, 라합은 그 사회가 가장 천시하고 차별하는 밑바닥의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정숙자는 미리암을 공동체의 지도자상으로 본다면, 라합은 민중상의 모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미리암이 선택한 노예해방, 인간해방, 그리고 여성해방의 방법이 가부장제적 통치구조로 굳어진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면, 라합이 선택한 민중 해방, 인간해방, 그리고 여성해방의 방법은 여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군사 체제를 붕괴하는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131)]

여호수아을 잘 살펴 보면, 이스라엘 대가족 603,550 명이,[132)] 소위 창녀 라합을 믿고 그들의 전 운명을 라합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여호수아 2:20-21) 성서는 여호수아 일행이 라합을 구해준 것같이 기록하고 있고(여호수아 6:17, 22-23), 라합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화를 입었을 것 같이 기록하고 있다(여호수아 2:14).
또한 라합이 믿음이 있었고 야훼의 소문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된 것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천대받고 살아 온, 일반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여자 기생이 정탐정들을 구해주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

131) 정숙자,"성서에 나타난 여성해방과 공동체 모델," *공동체 신학의 모색*, 크리스챤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편(서울: 전망사, 1992), 147.
132) *Interpreter's Bible*, Volume 2, 142.

았다면, 상황은 뒤바뀌었을 것이다. 결국 라합과 정탐원들은 하나가 되어 여리고를 넘어 뜨렸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사사시대를 있게 한 것이라고 본다.

2. 여 사사 드보라(בדוה,Deborah) (삿 4-5 장)

미리암과 라합이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여성 해방공동체는 결국 드보라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다. 사사시대 특히 드보라 시대는 새 평등주의의 사회의 모델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여성의 해위로는 사사들 중 가장 훌륭했던 사사, 즉 새로운 평등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드보라 였다고 한다.

사사기 4-5 장은 드보라가 바락 장군의 통솔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도시의 왕들이 결성한 동맹을 정복한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다. 드보라는 가부장제적 분권 사회에의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 네번째 여 사사(女士師)[133] 로서 가장 위대한 사사(기드온과 함께)인 동시에 여예언자('issa nebi'a)로서)(삿 4:4) 랍비돗의 아내였다. 이런 역할에 근거하여 드보라는 그 당시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없었던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예언자로서 드보라의 히브리어 뜻은 꿀벌이다.[134]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의 이야기와, 벌 수 있는 권위를 휘두를 수 있었고, 전쟁의 종결에 관한 신의 말씀을 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여사사로서 남성이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 것이다. 드보라와 꿀과 관련이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상호대조를 갖는다고 본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사사기 초반(4-5 장)에 나오고, 삼손의 이야기는 후반(13-16 장)에 나온다. 또 드보 라는 여성 사사로서 지혜롭고 역량있게 활동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고, 삼손은 남성사사로서 별로 영예롭지 못하며 실패한 이야기로서 이 대조가 암시하는 바는 사뭇 크다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 셔서 20 여년간 동안 심하게 억압받게 하셨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 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려 하셨다. 이때 사사(혹 은 판관)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 사사시대는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왕 중심의 국가체제를 거부하는 평등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지파마다 자치제로 생활

---

133) 김윤옥편,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연구* (서울:한국신학연구소,초판 1988, 재판 1991). 92.
134) *성경백과사전*, 단권, 187.

하였다. 사사들이란 이런 공동체를 위협하는 내외적 사건이 생길 때 마다 활동하던 지도자로서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드보라는 재판업무도 맡았고(4:4-5) 외세의 침입을 막아낸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빔이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었다. 철기는 그들의 독점이었다. 이스라엘은 사울시대 이후까지도 철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야빈이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앞세우고 이십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드보라는 이 외적을 물리치는 전쟁을 맡게 되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장군으로 삼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용사 만 명을 뽑도록 부탁한다(삿 4:6). 이 과정에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다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동지애를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락의 망설림을 보여 준다. 이런 바락의 미지근한 태도와 드보라의 단호한 태도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드보라는 적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삿 4:8,9).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과 우호관계를 맺을 켄 사람 헤벨의 집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여 그리로 피 했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고 만다(4:18).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듯 철저히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드보라는 175 년전 가나안 정복이래 처음으로 이스 라엘이 일치한 행동을 하도록 했다.[135]

더구나 사사기 5 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두 여성 드보라와 여엘의 행적을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한 표제(5:1)는 명백하게 수정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케글러(J.Kegler)는 동사가 3 인칭 단수 여성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36] 그러므로 드보라만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그 날에 드보라는 노래했다"로 되어있다. 한 여성이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를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다(5:6-8). 그러나 남성 교정자가 개입하여 문장상 조약하지만, 남자인 바락도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다.[137] 그 결과 드보라는 여성의 독점적인 역할은 상대화함으로써, 여성이 갖는 의미는 남성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표제는 이 노래가 본래는 한 여성의 노래로이해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바락의 조건제시에 드보라

135) Ibid., 187.
136) 김윤옥편, 79.
137) Ibid., 80.

는 자기가 꼭 함께 가겠지만, 이번 일에서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4:9) 분명하게 대답한 것은 이것을 잘 뒷 받침한다고 본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 났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삿 5:6-7).

드보라의 노래는 드보라의 업적을 기리는 노래(삿 5:2-31)로서 현존하는 히브리 문학중 가장 오래된 표본 중의 하나다. 이것은 길이에 상관 없이 이 시대(B.C.12 세기)에서 전해 진 당대의 유일한 자료다. 성경 사전에는, 드보라의 노래를 "그 자체가 승전가인 이 노래는 원수들과 맞서 폭풍과 뇌우로 싸우기 위해 오는 스라엘의 전쟁신, 야훼를 향한 고대 이스라엘의 자세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138] 고 묘사한다.

드보라는 한 어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남성들이 자신 없어하던 것을(4:9) 성취한 지도력을 몸에 지니고, 선동하며 격려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 용감한 여성, 아이들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어머니였다. 위의 노래를 보아도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으며, 그 이전의 어느 사사보다 출중한 사사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훌 륭한 역할을 용감히 잘 감당했던 드보라는 여성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드보라에 대한 중요한 역할은, 드보라의 싸움이 억압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만 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J. Kegler 의 설명처럼 이 노래는 당시 여성들의 자의식을 고양하려는 의도를 갖는 문서인 것 같다. 한 여성의 행위를 환호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격양되고 조소적인 비판을 통해 고양하려는 것이다.[139]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 너는 노래할지어다"(삿 5:12)는 말로 자신의 역할을 현저히 축소시켜 표현한다. "여성들 중의 누구보다도 야엘을 축복하라.."(삿 5:24)는 구절은 아마도 다른 여성들이 야엘만큼 통치권력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자위하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담대하게 자발적인 봉사를 행한 야엘을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자"라고 묘사했다. 자기 자신에게도 충분히 영웅정신이 있 있음을 증명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행위를 영웅적 행위로서 노래하고 있다. 드보라는

---

138) *성경백과사전.* 187.
139) 김윤옥편, 95.

관심의 초점을 자신과 자신의 행위로 부터 다른 여성의 행위로 옮기게 함으로써,"모범은 내가 아니라, 야엘이 더 능동적으로 싸웠다"고 말한다. "야엘의 때에.."(삿 5:6)라고 드보라는 이때를 이름 붙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정당한 긍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인 내가 일어 설 때까지"(삿 5:7)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야엘의 노래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해방자이며 지도자였던 위대한 세 여성들을 살펴보았다. 정숙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결론짓고 있다. "미리암, 라합, 드보라로 이어지는 여성해방의 모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새 해방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파트너쉽(Partnership)의 모델이었다. 이 세 명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역사의식, 동지애, 자유를 향한 열망, 협동시ㅁ, 정의감, 권력자에 대한 항거, 목숨을 바리려는 결단, 철저한 인간 평등 의식 등 모두 인간을 사랑하는 반면에 인간을 누르는 힘, 가부장제적 힘에 대한 항거이다."[140]

미리암, 라합, 드보라의 인간평등 공동체, 평등한 지도력의 협동 동동체가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 이후에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밑 바닥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여성과 함께하는 예수의 갈릴리 공동체를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가부장제 문화에 깊이 잠들었던 한국여성들이 지금은 깨어서 가부장제에서 해방되어 새 공동채의 역사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본다.

140) 정숙자, 150.

2. 신역성서에 나타난 여성지도자들

1). 카리스마 교역에서의 여성제자들

예수 시대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로 보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자로서 인정하셨다. 여성들은 예수의 하나님 운동의 주변에서 맴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운동에 물적인 지원을 하고, 살림을 맡았으며, 무엇보다도 예수 동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은 때, 그의 수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사역의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예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참된 제자직이 어떠해야 한다는 예 수의 가르침과 일맥 상통한다. 우리는 예수가 열둘 중에 여성제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대체 신약성서에서 본래 '제자들'(μαΘηται)이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공과복음서의 '제 자들''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대채로 열둘을 생각했을 것이다.(막 2:15,16,18,23,3:7-9). 이 '열둘'이 지칭된 구절들(막 4:10, 9:35, 10:32,41)은 마가의 이차적인 편집 작품이고, 이는 보다 후대 필자의 편집구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141]

즉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고정된 '열두 제자'라는 개념은 예수 당시, 혹은 초기 전승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12 지파와 관련하여 교회의 토대를 형성한 열두 제자라는 표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마가이전, 보다 초기 전승 단계에서는 원래 '제자들'이 열둘이나 어떤 학정된 제자 그룹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룹, 즉 예수를 둘러 싼 사람 들을 의심했다(막 3:34). 결국 본래 초기 전승단계에서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주변 에 그를 따랐던 무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교의적으로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열두제자' 집단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이다.[142]

이렇게 본다면, 보다 후기의 표상인 열두 제자 집단에 여자가 없다는 것이 예수가 여

141) 박경미,"예수의 여성 제자들,"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134.
142) Ibid., 135.

성 제자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실제 역사적 예수 주변에는 가 족의 틀까지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과 이름모를 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 여자들은 예수의 제자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는 참된 제자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예수는 제자들이"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하고 묻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한다.

>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클 것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마 18:1-5).

예수는 가장 힘없고 업신 여김을 받던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존중하고(막 10:1-12,마 18:1-5), 가나한 불구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라고 했다(눅 14:12-14). 또 예수는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다(막 10:45,눅 22:47).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눅 14:27)고 하신다. 또 예수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막 10:17-22)고 말씀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는 '나눔과 섬김'의 윤 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나라와 직결시키신다.

참된 제자의 윤리는 '나눔과 섬김'이다. 현실적인 삶에서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제자직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했다. 사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김을 강요당해 온 존재였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다. 이제 여성들에게 타율적으로 강요해 오던 나눔과 섬김의 윤리가 예수의 사역에서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행위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여성들은 이러한 윤리를 가장 잘 실천할 수 밖에 없었다.

예수가 숨을 거울 때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여자들에 대해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따라 다니며(εκολουΘεω), 시중들던(διακονεω) 여자들"이라는 서술을 한다(막 15:41). 여기서 이 여자들에 대해 사용된 εκολουΘεω 라는 단어는, 제자가 되라는 예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시중들다'라고 번역된 διακονεω 는 '섬기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143] 이 여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일을 한

143) Ibid., 136.

것만이 아니라, 즉 예수 일행의 밥시중을 들어 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의 근본 태인 예수를 '따름과 섬김'의 윤리를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적으로 지원했고, 예수 님과 그 일행을 끝까지 섬겼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다른 제자들의 태도와 분명히 대조된다. 이른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됨의 본질, 즉 수난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고 (막 8:31-33), 또 열두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 (막 9:33-37). 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도 했다. 그리고 참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할 자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는 너나 없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쳤다. 수제자 베 드로도 예수를 배반했다.

이렇게 내노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텅 빈 자리에, 무덤문을 가로 막은 바위 돌이 엄청난 무게로 가로 막고 있는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여성들이 남아 있었다. 이 여성들이야말로, 이 가난한 갈릴리 여성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요구했던 참된 제자직을 실천한 제자들이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명맥이 끊어질 그 위함한 순간에 나눔 과 섬김의 참된 제자직을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여성제자들을 통해 활동하셨다. 다음 란에 그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성찰하고자 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 처럼 전체적 교회 교역에 속하는 이들과 감독 및 장로들과 지사처럼 지교회에 속한 이들이 있다. 이들의 위치와 역할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 교역 속에서 사도로서 혹은 선지자 및 교사로서 초대교회를 견고케 한 여성들을 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하면서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성서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수가 택한 유다 외에 열한 제자들을 사도라 부른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사도는 이들의 범위를 넘는다. 그러므로 첫째, 열 한 사도의 위치와 역할과 둘 째, 넓은 의미의 사도의 위치와 역할로 나누어서 다루면서 동시에 이 둘의 위치에서 여성의 지도자로서의 위치 및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예수에 의하여 택함을 입은 12 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교역을 수행토록 예수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눅 9:6). 이들은 또한 사도들로서 초대교회의 창시자들이다. 예수는 부활 이후 40 일 동안 이들에게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을 알 수있다.[144)]

이때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의 교역을하도록 예수로부터 위탁받는다(마 28:20).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도 즉 예수가 택한 유다 외의 열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및 가르침과 치유의 교역 및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초대교회의 창시자들의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열두 제자들 중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예수의 갈리리 교역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의 교역 즉 십자상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열주 제자들과 함께하여 예수의 전도여행에 함께 하며 제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눅 8:1-2, 눅 9:51-19:27). 또한 이 여성들은 예수 부활 후 40 일 동안에도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다.

>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 백성들 앞에 그의 증인이라" (행 13-31).

여기서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 속에는 열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전 교역에서 그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의 교역 속에 나타난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등 다른 여러 여자가 (눅 8:1-3)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교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달 및 그리스도의 증언의 역할을 수행토록 위탁 받은 이들은 열한 사도들뿐 만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예수의 전 교역에서 부활 이후 40 일 간 함께 하였던 예수의 교역 속에 나타난 여성들에게도 위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갈리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예수의 교역과 기독교 최초의 교역 즉 제자들의 초대교회 교역 모두가 연속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145)]

이와 같은 연속성은 사도행전 1:12-14 절에도 나타난다. 이 곳을 보면 예수의 승천 후 예수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위탁 받은 열한 사도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두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성들은 초대교회 발생 때도 예수의 교역 때 처럼 사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도들과 더불어 여자들이 함께 기도에 전려 힘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

144) E. Margaret Howe, *Wemen and Church Leadership*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71

145) Richard Hanson, *Christian Priesthood* (London: Lutterworth Press, 1979), 10.

의 기도생활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때에 여자들은 토라 연구에서만 제외 된것 이 아니라 기도생활에서도 남성과 크게 차이가 난다.[146)]

예를 들면, 아침기도에 여성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예처럼 쉐마를 낭독할 의무가 없고, 또한 식사기도할 의무도 없었다. 탈무드에서 보면 "부인이나 혹은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남자는 저주를 받으라"[147)]고 말한다. 더 나아가 유대 남성들은 매일같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무식한 남자로 태어자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들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구별 없이 여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면서 초대 교회 탄생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도 예수의 교역에서 사도 들과 함께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의 증인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수의 교역 속에 나타난 여자들은 초대교회 발생 때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오순절 성령강림의 경험을 이들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본다.[148)] 초대교회 탄생 때 주의 여성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오순절 경험 때 여성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베드로의 요엘서 인용은(행 2:7) 그 당시의 유 대교 여성 이해와는 현격하게 다른 것이다.

그 당시의 유대교 공동체 회당은 기도와 율법 연구를 위하여 만나는 장소이다. 회당에는 예배와 기도하는 "책의 집"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모세 오경을 토론하거나 강의하는 "연구의 집"으로 나누어져 있다.[149)] 유대여성들은 회당의 예배와 기도하는 곳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곳에서도 남녀는 높은 벽이나 울타리로 구별된다. 적어도 주후 2 세기까지 여성은 기도하는 곳의 뒷쪽이나 옆쪽 위에 있는 방청석에 앉은 것으로 본다.[150)] 이 당시 유대 여성은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를 단체로 드리는 회중을 구성하는 정족수에서도 제외된다. 더 나아가 회당에서 여성은 남성들과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읽거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그 시작때부터 사도들이 예수의 교역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던 주의 여제자들과 기도할 뿐 아니라, 오순절 때 그들의 공공연한 예언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요엘서 인용(행 2:17), 그리고 성전에 모이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한 구원받는 수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은

146) Ben Witherington *Women in the Ministry of Jesus* (Cambridge: Cambidge Univsersity Press, 1987), 8; Leonard Swilder, *Biblical Affirmation of Wom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9), 154.
147) Ibid., 155.
148) 임창복, "초대교회교역자 의 위치 및 역할," *교역과 여성안수*, 오성춘 외 3 인 편, 159.
149) Ibid.
150) Ibid.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뛰어 넘는 것 이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부름을 입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성서적이라 하겠다. 많은 예수의 여제자들 중에서 특기할만 한 메시아를 네 여성 제자들이 있다. 즉 마르다, 사마리아여인, 한 이름없는 여인과 사도중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이다. 다음란에 그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메시아를 고백한 마르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바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셨다. 시몬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 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이다"고 대답했다(마 16:13-20) 이 대답에 대해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음부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쇄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근거가 된 것이다.

요한복음 11 장 17-44 정에 보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예수께서 살려 주신 기사가 나온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이것을 네가 믿느냐?"하고 물으셨다. 그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 하외다. 주는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고 대답했다. 여기서 마르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하고 마르다의 고백은 간 곳 없이 사라진듯 하다. 그것을 우리는 가부장 문화속의 기독교에서 여성의 행적이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마르다의 행전이 있었다는 학설도 주장한다. 사도 행전과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활동을 기록한 마르다 행전이 있었는데, 성경을 경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의 활동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151]

2. 최초로 신학을 논하고 메시아를 증언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 그가 메사아임을 발견하고 그를 메시아로 증언했다(요 4:4: 1-19).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151) 안상님, "메시아를 고백한 여성들,"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한국여신학자협의회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120.

지방으로 지나 다니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 그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남자가 대낮에 집 밖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낼 수는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안흥는 샘물을 주겠다 하셨고,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여인은 예수께 "과연 성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남편을 거쳤고 지금 함께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니, 우리는 쉽게 그를 창녀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의미를 다서가지 관심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섯가지 욕망, 즉 재산,명예,권력,성(性),학문등을 다 거쳐봐도 그 여인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 다음의 여인의 질문으로 더욱 분명 해진다. 그 여인은 하나님 예배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질문이 다. 그 여인에게는 세상사람들의 관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해답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 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인간을 찾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한 그리스도라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는 말까지 했을 때, 예수께서는 "너의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고 밝히신다. 이 때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말씀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신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은 뿐,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 지 물어 보지도 않았다. 더구나 유대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여인은 동내로 뛰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여인의 증언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그이 말을 인정한 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신임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에게로 몰려 온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참으로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 여인의 증언 행동은 기독교에서 첫번째 전도 활동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보러 왔을 때 추

수 할 곡식이 많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예수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뿌 린 복음의 열매를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을 하면서, 이 여인도 씨뿌리는 사람에 포함시 킨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3. 메시아를 확인한 이름없는 여인

성서에는 메시아를 말로 고백하지는 않았어도 자기행동으로 확인한 이야기가 있다. 보통 향유 부은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시몬(또는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마 26:6-13,막 14:3-9,요 12:1-8) 이 이야기는 복음서 3 곳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값 비싼 향유로 예수의 장례를 예비했으며, 예수님은 그 행동을 갸륵한 일, 장한 일로 칭찬하셨고, 그 여인의 이름이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막 14:9)고 말씀하신 일이다.

이에 대하여, 가롯 유다는, 그 향유를 팔면 300 데나리온이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인의 행동을 쓸데없는 데에 재원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비 난했다. 1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보다도 남자들의 눈에 거슬렸을 이 여인의 행동을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생각해 보 면, 여자는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어서 그 머 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공중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강제 이혼의 조건이 될 정도로 금지된 일이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여성에게 용납되지 않은 일을 거침없이 저질렀다. 그러니 그 당시의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던 남자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께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할 수난을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던 예수 님의 심정이었으니, 인류전체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이 큰 일을 놓고 고민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더구나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는 다음의 제자들의 태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예수께서 수난 당하실 일에 대하여 세번째로 예고하신다(누가복음 18 장 31-34).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회롱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는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기들은 선생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달라고 청원을 했다. 그리고 이런대화 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너희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느냐고 화를 냈다.

그들은 3 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생활을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직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권력자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할 망상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서 심문받을 때 세 번씩이나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던 제자들과는 달리, 한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와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의 갈길을 예비해 드리는 행동을 보였다.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바로 인식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할 일을 격려해 준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기에 그의 한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한 행동으로 보인다. 우리는 위에서 메시아를 고백한 마르다, 예수님과 처음으로 신학을 논하며 메시아를 증언한 사마리아 여인, 메시아를 확인하고 기름을 부은 이름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 보았다. 메시아를 알고 "알려 주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마 16:17)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마르다는 베드로와 똑같은 말로 예수의 메시아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 다만 그 때 문화가 여성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의 성 차별주의가 여성의 선구적인 역할을 드러나지 못하게 억제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마르다의 행적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선구적 인 행적은 다른 여성들을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메시아를 증언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 당시 문화의 장벽을 깨고 예수께서 여인속에 잠재한 능력을 개발해 준 것을 볼 수 있다. 인생의 존재가치로 고민하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삶의 전환점을 찾고 새 세계를 열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모습은 잠자고 있는 여성을 깨워 일으키는 새벽종이 될 것이다.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고민을 함께하며,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격려함으로써 그 당시 남자들의 성차별적 시각을 깨뜨리고 그 남자들의 행적보다 두드러지게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의 한 일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원래 죄많은 여인이 죄를 용서받은 기사로만 배워왔던 것은 여성의 시각이 성서해석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깨닫게 해 준다.

4. 사도 중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신명기 19 장 15 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라 했다.여기서 두 세 세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자만 을 뜻한다.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인정해야 효력이 있다(민 30:2-17).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신다. 여성의 증언을 인정하는 회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예수를 죽게 한 일에 어떤 방법으든지 연루된 사람은 다 남자들이다.

4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는 여성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는 것과 천사 또는 천사들이 부활을 증언하라고 위임한다. 어느 경우에나 부활하신 예수가 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서의 진리이다.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막 16:9-10).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르던 실망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다.[152] 예수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마 28:8-10) 마태는 더 자세히 설명한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부활을 말하라"고 위임했고, 여인들은 예수에 의해서 남자들, 남자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유대인 율법에는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증언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성들은 예수의 의해 '사도들'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는 마리아를 치유했고 마리아는 갈릴리 전역은 물론 예루살렘 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섬겼다(ministering, 보살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죽음의 자리

152) 장상, " 이대 기독교학과 대학원 복음서 강의," 1982, *여성신학이야기*, 안상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44.

에 함께 있었고, 그의 장례를 지켜 보았고, 그의 죽음을 애곡하며 무덤에 돌아왔다. 예수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의 부활을 알리라고 사도들에 사도((Apostle to the apostles)로 위탁했다. 이것이 사도들의 첫째로 보인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사도"라는 말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동일한 암시를 해준다. 이것을 근거로 바울은 뵈뵈, 아폴로,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에 봉사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종이라고 말한다.(롬 1] 1, 16:1-2:고전 3:5) 사실 그는 그리슨와 함께 하나님의 해방행위에 참여하는 자의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까지 불렀다(고전 9:19, 고후 4:5)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다섯 경우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전 15: 5-8). 바울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성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아무데서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성들의 증언을 허용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4 복음서를 믿을 것이가? 바울의 글을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상님은 "구전(口傳)들이 복음서 기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전에,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 썼던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서에 12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8 장 2 절에 예수를 도와드린 여자들 기사를 제외하고는 모드 예수의 마지막 때인 수난, 장례, 부활과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 그녀는 고향이 게네사렛 호수가의 상업도시 막달라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 불렀다. 그도시는 부유하고 안락한 곳이었으나 예수를 만나 치료를 받은 마리아는 그 도시를 떠나 예수를 따랐다. 자기의 재산까지 드리면서 예수일행에게 교역을 한 것이다.(눅 8:3)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초대교회에서 12 제자중 가롯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도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전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 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행 1:21-22)

이 기준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사도로 뽑히기에 알맞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에 의하여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이다. 예수의 삶과 교훈을 그리고 부활을 전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이다. 그때 제지들이 맛디아를 선출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선출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독교전통 속의 문학, 예술, 회화들 속에는 참회와 속죄에 싸여 있는 미모의 여인으로 남아있다.[153] 숏트로프(Luise Schottroff)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을 극복한 상징이며, 또한 예수를 따른 이여인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남자들의 동역자(Partner)였다. 교회전승에 따라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전에 죄인이었던 여인' 또는 예수에게서 많은 죄를 용서받은 창녀와 잘못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들은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여인" 었나를 암시해 준다.

신약성서와 교회사에서 여성들은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표현되었다. 즉, 로마서 16 장 7 절에 유니아(Junias)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고찰 된 바 여성이라는 것이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던 첫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다(눅 24:1-10). 교회의 어떤 교부들은 이러한 여성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사도들(apostles)이라고 말한다(요 4:28-29).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는 "사도들에게 사도"(the apostle to the apostles)라고 까지 불렀다.[154]

위에서 사도들 즉 예수가 택한 12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이 12 사도들 중의 하나는 아니지만,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의 교역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사도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의 위치 및 역할을 수행한 것을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는 바울의 관점에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사도는 12 제자들로 국한하지 않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적 사명이 이들 외의 남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살핌으로써, 여성의 사도로서의 위치 및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53) Elizabeth Mpltman-Wendel, *예수 주변의 여인들*, 김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54)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41-142, quoting Ferdinand Klostermann, *Das Christliche Apostolat* (Innsbruck, 1962), 108 ff.

2). 초대교회 제도적 교역 속의 여성사도들

예수 부활 이후 열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위탁 받는다. 그러나 이 위탁을 받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미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마리아에 간다(행 8:14-17).[155]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적 사명을 열한 사도가 아닌 바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된다.[156] 물론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창시자들로서 역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사도적 사명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 열두 사도의 범위로 넘어간다. 이 모든 사도득의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 사도 "라 칭하겠다.

이런 면에서 먼저 "넓은 의미에서 사도" 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사도란 문자적으로 명령을 받고 보냄을 입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신약에 나타난 넓은 의미의 사도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157]

첫째, 사도는 예수가 지명하여 부른 열 두 제자들로 국한 된다(마 10:2). 둘째, 바울과 같이(고전 1:1, 고후 1:1 골 1:1) 부활한 예수를 보고 특별한 교역을 위탁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칭한다. 셋째, 사도는 특별한 교회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수행토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칭한다(고후 8:23, 빌 2:25). 넷째, 사도는 바나바와 같이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행 14:4). 이와 같은 넓은 의미로 바울은 자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사도라고 부른다(고전 9:5-6, 롬 16:7). 다음란에 바울의 탁월한 여성동역자들에 대하여 간단히 그 위치와 그들의 눈부신 역할들을 살펴보겠다.

1) 탁월한 사도 유니아

유니아 (Junia)(롬 16:7)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고찰된 바 여성이라는 것이다.[158]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교역 속에 여성이 바울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사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이 같은 사도의 직책이 디다케 11:3-6 절에 나타나며,

155) E. Margaret Howe, 71.
156) 바울이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여행이 3 차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다: 첫번 여행(사도행전 13 장, 14 장). 둘째 여행(사도행전 15:36 부터 18:22). 세번째 여행(사도행전 18:23 부터 21:16) 참고.
157) Ben Wigyerington III, *Women in the Earliest Church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88) , 115.
158) Ibid.

이 직책은 주후 2 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159] 유니아의 사도적 역할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본다. [160] 유니아와 그녀의 남편 안드러니고는 그들의 비유대교적 이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럼, 유대 기독교의 부부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교회에서 선교한 것과는 달리,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행 14:4,14) 복음사업에 종사한 순회하는 선교사 부부들이다. 순회하는 선교사들과 가정교회 담임하는 선교사들은 특수한 기동성과 후원으로 인해 초대교회 선교에서 주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여성들은 이 두 영역에서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사도들 가운데서도 유명히 인정받은 '탁월한'(επισημον)사도라고 격찬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언급된 대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란 넓은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선포토록 보냄을 입은 이들을 칭한다는 암시가 있다.(고전 9:1-2, 15:8-11, 갈 1:11-16). 이들을 "일차적 증인"이라고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교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을 눈으로 친히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친히 들은 12 제자로 국한된 사도적 계승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즉 사도적 사명은한스 쿵(Hans Kung)이 말 한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사명인 것이다.

> "사도의 계승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증인이라는데 있다. 사도들처럼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났 다는 의미의 사도적 계승자들은 없다. 마지막 사도의 죽음과 동시에 이런 의미의 사도적 계승은 사라지게 된다. 부활의 첫번째증인이며 첫뻔째 메신저라라는 의미의 사도적 계승은 반복될 수도 없고 계속될 수도 없다. 사실 사도적 계승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도적 업무와 사명이다. 사도적 사명 즉,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한된다." [161]

디다케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의 직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직제상 더 위에 있음을 명백히 지적한다.[162] 초대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따로 언급하려고 한다.

159) E. Margaret Howe, 71.
160) Ibid., 115.
161) Hans Kung. *The Church* (LondonLBurns Oates,1967), 355.
162) John Knox. "The Ministry in the Primitive Church,"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 ed.. by Niebuhr and D. D. Williams (New York:Harper & Row,1966), 1-26.
교회직제에 대한 첫번째 책자인 디다케의 이 같은 입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안수 한 후 키프로스에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13:1-3 에도 나타난다.

2) 여선지자 아가보 및 안나

선지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세워진다(엡 2:20).[163] 초대교회의 남녀 선지자들은 (고전 11:5, 행 21:9) 바울계열의 공동체와 로마의 공동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및 소아시아의 공동체이었던 것으로 본다. 이들은 각 공동체의 의하여 피택 및 위임된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능력을 입고 지명된 자들로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 내지 예리한 통찰력과 예지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다.[164]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 있는선지들 그룹의 하나인데, 그는 성령으로 천하가 크게 흉년들 것을 말한다. 이 예언으로 안디옥교회는 흉년들 것을 미리 알게 된다 (행 21:10-11). 이때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네 딸들이 여선지자들이다(행 21:8-9) 이외에도 선지자들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회중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강림, 생애, 죽음, 부활 및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165]

더 나아가 선지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진행과 성찬 집례를 초기부터 수행하며 디다케는 이들을 교회 대사제라 부른다.[166]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같이 중요한 위치에서 미래의 예언 및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한 선지자들 중에는 이미 언급한 바 여선지
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울은 또한 여선지자의 예언기도를 공적 예배에서 인정한다. 고린도전서 1 장 5 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에서 사용된 예언(propheteuin)은 초대교회 카리스마적 선지자들의 예언으로서 초대교회와 바울 계열의 교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 온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는 말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여자가 공적으로 예언하는 것과기도하는 것을 인정하되 꼭 머리에 쓸 것을 권고하는 것은 1 세기의 그리스의 고급 창녀들과 이들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7) 그 당시 그리

163) Hans Kung. 396.
164) E. Margaret Howe, 70.
아가보 외에도 여선지자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다 (눅 2:36-38).
165) John Knox. 70.
166) Ibid.
167) 임창복. 166.

스의 고급창녀들은 그리스남성들을 전문적으로 환대하는 고급 창부 및 고급 정부들로서 남편들의 제어 없이 대중 앞에서 머리에 덮개를 쓰지 않고 주저 없이 말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예배하는 이들이므로 바울은 이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초대교회에의 공적 예배에서 예언 및 기도하는 여선지자들이 머리에 덮개를 쓰고 기능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3) 여교사 브리스가

다음은 초대교회의 교사들에 관하여 성찰해 보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2 장 28 절에 보면 교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들 도한 교회 공동체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피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능력있는 이들이다. 교사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언급되는데, 선지자는 가끔 교사이기도 하고, 교사가 가끔 선지자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를 바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행 13:1-3). 안디옥에서 바울은 선지자이며 동시에 교사이기도 하다.[168] 선지자들 처럼 교사들은 사도들의 원초적 증언에 근거하여 설교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말을 한다. 의심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에서 여성선지자가 있던 것처럼 여성교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초대교회의 여자교사인 브리스가는 에배소서 바울의 초기 교역과 그의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능력있는 교사로 나타난다(행 18:18, 딤후 4:19). 사도행전 18:26 절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 이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푼다"라는 단어 (Ektitheimai)는 단순한 설명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선포와 해석을 암시 하므로 브리스길라는 남녀의 회중을 대상으로 가르친 교사이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행 11:4, 28:23).

브리스가는 능력있는 기독교 교리 교사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기능도 한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의 용기있는 지도력(Leadership)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 느니라." (롬 16:3-4)

168) John Knox, 14 - 15.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한 부부선교사였다(로마서 16 장 3-4 절). 로마식 이름을 가진 유대 여인 브리스가와 그의 남편 아굴라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제국에 전파하는데에 바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부 선교사이다. 또한 이들은 바나바와 아볼로처럼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다. 신약성서 안에서 브리스가부부의 선교활동은 여섯번 언급되는데 그 중 네번(행 18:18,26, 롬 16, 딤후 4:19)이나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앞세워질 만큼 브리스길라의 선교능력은 탁월하다.

그 뿐 아니라 브리스길라는 가정교회의 창시자(롬 16:5,고전 16:19)이다. 초기 기독교 선교운동에서 최초의 교회가 형성될 때에 여러 가정교회(롬 16:3-16)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초기 모임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중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는 로마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롬 16:5) 고린도전서 16 장 19 절 에서 다시 언급될 만큼 가장 활동적인 가정교회였다. 바울이 공동체의 육성에 관해 웅변적으로 설교하며, 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옮겨 다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브리스가 부부는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들의 집에서' 교회 를 세웠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 만찬의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러한 선교활동비를 자신들의 노동으로 (행 18:3) 충당했다.

한편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전서 16 장 19 절과 디모데후서 4 장 19 절에 언급된 점, 바울이 브리스길라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며, 이들의 가정교회를 언급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사람을 디아스포라 교회의 지도적인 초기 기독교 선교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는 별도로 이미 그들의 선교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는 자기집을 교회로 개방하기 위해 세번이나 자기 소유물을 팔고 자리잡은 사업장을 떠났다. 그들의 집은 고린도에서(고전 16:19), 에베소(행 18:18)에서, 로마에서(롬 16:5) 선교근거지로 사용하였다.[169]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또한 부부공동목회의 모범을 보였다. 이 부부의 이름은 앞뒤는 바뀔지언정 한 번도 따로 따로기록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둘이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고, 여행도 한 쌍으로했고(행 18:18) 그리고 같이 사는 집도 교회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주의 일에 적극 동참했다.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한 부부로서 브리스가 쪽이 좀더 중요한 책임을 맡 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완전

169) 남명희, "바울의 여성동역자들,"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여신학자협의회편, 188.

한 동역자 관계였다. 이들의 파트너쉽은 당시 가부장문화권 내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된 역할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주 안에서의 상호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브리스가는 아내로서만 한정되지 않고 남편과 대등하게 선교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필히 부부 목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부부목회에서 사역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바울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성은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비성서적이며, 교회는 부부목회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할 줄 안다.

최근에 브리스가는 하르낙 같은 남성신학자에게도 높이 평가되어 히브리의 저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받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바울과의 친밀한 교제, 가정교회를 세웠다는점, 서신의 저자명이 생략된 점 등이다. 만일 저자가 여자였으면 저자명을 생략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로서 브리스가가 추측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다.[170]

초대교회에서 브리스가의 교사로서의 위치와 역할, 빌립의 딸들이나 공적 예배에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여선지자들의 위치 및 역할은 그 당시 유대 여성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그 당시 유대 여성들은 언제나 어머니. 부인. 딸. 처녀. 하녀. 과부. 매춘부와 같은 범주 내에서 언급되었지, 공적인 공동체에서 그 위치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언급이 가능하지 않았다.[171] 유대여성들은 남자에게 종속되었고 집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 당시 여성문화에 영향을 끼친 벤시라(Ben Sirah)는 여성과 함께 죄가 시작되었고 여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된다고 말하면서, "좀이 옷으로부터 나오듯이 여성의 악의는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남성의 악의는 여성의 친절보다 더 바람직하다. 여성은 부끄러움과 질책의 근원"[172]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명한 남자는 여자와 사회적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이와 같은 당시의 여성문화에 비추어 볼 때 브리스가를 바울의 동역자로 그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여성들이 그 교역에 참여하여 순회 설교 및 지교회에서 목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교회여성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70) Ibid., 191.
171) Robert A. Coughernourm, *For Me to Live* (Ohil: Dillon/Liederbach, INC, 1972), 50.
172) Ibid., 58.

4) 여장로 및 감독

매우 초기에 빌립보서 1:1 절에 감독들과 집사들에 관한 언급으로 다른 교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빌립보교회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를 말할 때, 이 칭호들은 카리스마적인 교역보다는 제도적 교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칭호들은 형식적으로 후기에 피택된 안수받은 직책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빌립보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관리와 행정, 계획의 은사와 감독의 은사를 가진 자들로서 교회로부터 인정된 자들이다.[173] 그리고 회중들의 사무과 같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집사들이다.

때때로 감독이란 말이 장로와 함께 사용된다. 처음에는 지교회로부터 관리와 행정의 은사를 갖은 자로 인정된 감독과, 회중의 사무에 은사를 갖은 자로 인정된 집사들이 1 세기말경에 가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가르치는 기능과 예식적 기능을 양도해 간다. 집사들은 장로와 감독의 행정 및 예식적 업무를 도와 준다. 이와 같이하여 사도들과 더불어 초대교회를 견고케할 뿐만아니라 확정케 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기능 즉 설교, 성찬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이 장로. 감독. 집사에게로 넘어간다.[174] 사도적 전승에 근거하여 감독과 장로는 예배와 성찬 집례 및 가르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생한다. 그러면 여장로나 감독이 있었는가?

여성장로에 대한 언급이 디도서 2:3-4 절에 나타난다. "늙은여자 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에 있는 "늙은여자" (presbutis)는 여성장로를 말한다. 프레스뷰티스는 프레스뷰테스(presbutes)의 여성형이다. 이 두개의 단어는 프레스뷰스(presbus)의 proseform 으로 늙은 사람 내지 중요한 장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유대교에서 장로가 되려면 60 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디도서 2:3 절의 늙은 여자는 가르치는 자들(didakolos) 혹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이들로(딛 2:4)로 불리우는 것으로 보아 쉽게 그녀는 여성장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디모제전서 3:1-8 에서 감독들이 가르치는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데 늙은 여자 즉 장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장로로 본다.[175]

여성감독에 관한 언급이 또한 요한 2 서에 나온다. 요한 2 서 1 절에서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Kuria) 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큐리아(Kuria)는 큐리오스 (Kurios) 즉 "주"(lord, master)라는 말의 여성형인데, 이말이 1 절과 5 절에 두번 나온다.

173) John Knox, 10.
174) Ibid., 22.
175) 임창복, 172.

물론 "주"는 신약에서 원래 예수를 의미한다. 큐리오스는의 여성형인 큐리아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 아니한 자로서(갈 4:1-2), 후견인, 집의 주인, 가족의 머리를 의미하며 또한 종을 소유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엡 6:5, 9). 그러므로 요한 2 에서의 택함을 입은 부녀((Kuria)는 교회에서 피택되었을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감독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로 보아서 요한 2 서의 택함을 입은 부녀는 이 교회 및 회중들에 대하여 권위와 위치를 갖고 감독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176]

5) 교역자(Minister) 뵈뵈

디도서와 요한 2 서 외에도 로마서 16:1-2 절의 겐그레아교회에서 지도력 및 주도권을 행사하는 여성이 있는 것을 본다. 그 이름은 "뵈뵈"이다. 로마서 16 장 1 절과 2 절에서 "디아코노스"(diakonos) 와 프레스타티스(prostatis)라는 칭호를 쓴다. 이 두 단어 자체는 감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의 지도력 내지 주도권을 암시한다고 한다. "디아코노"(diakonos)는 여성형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여성과 남성모두에게 사용되며, 이 말은 또한 양쪽 성 즉, 남녀를 섬기는 사람을 지칭한다.[177] 그러므로 뵈뵈를 후기시대에 여집사와 같이 아픈자를 방문하고 여성세례 시의 감독이나 장로의 조력자로서 여성에게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 여집사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178]

바울은 디아코노스(minister)를 성도들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동역자(synergos)와 함께 사용함으로(고전 3: 5,9, 고후 6:1,4), 바울에게 있어서 교역자들(ministers) 은 순회설교자일뿐 만 아니라, 지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179] 사실 뵈뵈를 칭하는 디아코노스(diakonos)라는 단어는(고전 3:5, 고후 3:6,엡 3:7, 골 1:23, 25, 딤전 4:6 참고) 복음을 교역하는 즉 교역자(minister)라고 번역되어 있다. 바울이 겐그레아교회의 디아코노스라고 칭호한 것을 보면, 뵈뵈는 바울의 일꾼(동역자)일 뿐 아니라 남녀 모든 회중에게 순회 설교 및 가르치는 기능을 갖인 교역자라고 번역하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 할 수 있다.[180] 또한 빌립보서 1 장 1 절에서의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διακονοζ)과 또한 바울은 뵈뵈에게 준 그 호칭을 그 자신과 아폴로에게도 사용하였다(고전 3:5,9). 그러므로 뵈뵈가

---

176) Ibid., 173.
177) Ibid.
178) R. R. Ruether and Eleamor Malanglim, *Women of Spirit: Female Leadership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New York: Simmon and Schuster, 1979), 35.
179) Ibid., 36.
180) 임창복, 174.

받은 '디아코노스' 호칭은 교회의 직분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 공동체에서는 직분을 받는데서 남녀가 평등했음을 알수 있다.

로마서 16:2 절에서 뵈뵈에게 붙여진 칭호인 프로스타티스(prostatis(προστατιζ)도 디아코노스를 가리키는 단어로서(딤전 3:4, 5:17) 감독 및 집사 혹은 장로들의 기능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바울이 뵈뵈에게 이 칭호를 사용할 때에는 분명히 뵈뵈는 겐그레아교회의 지도자 혹은 감독자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겐그리아 교회의 뵈뵈는 많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목사의 존칭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선교활동을 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바취(Bartchy)는 뵈뵈에게 붙혀진 이 칭호는 고대 희랍어로 어떤 다른 여성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예상할 수있는 것보다 뵈뵈는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181]

남명희에 의하면, "바울서신은 여성들을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언급하지만, 이 세 여성들(브리스길라, 유니아, 뵈뵈)은 바울에게 '종속 되거나' 혹은 바울의 '조력자'들이 아니었다. 이 세 여성들은 바울 이전에 또 바울과는 독립적으로 선교와 지도권에 관여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언급들은 이들의 성 역할이나 성적 상태 (기혼, 미혼, 처녀, 과부)를 반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지 브리스길라', '목사 뵈뵈', '사도 유니아' 등으로 특별하게 존칭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서 평등했고 때로는 우월하기조차 했다"고 언급한다. 이런 표상은 오늘 한국교회여성들의 민주화에 도전이 된다.

이제까지 초대교회의 제도적 교역 내의 장로 및 감독으로서의 위치 및 역할의 가능성들을 디도서 2:3-4, 요한 2서와 로마서 16:1-2를 통하여 살펴 보았을 때에, 예수의 교역과 바울의 교역에서도 여성들이 사도, 선지자들, 교사들과 교역자 등 지도자(Leadeer) 위치에서그 역할들을 감당했고, 지교회의 지도자(Leader)로 장로 및 감독자로서 설교와 가르치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여성들이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교역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도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81) Ibid., 175-176.

3. 성서적 지도자 이미지 개발

. 이제 여성들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질과 기능으로 우리의 지도자적 사명을 이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구약의 여성창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본으로 이상적인 여성의 지도자 이미지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1) "도웁는 지도자"(Helper- Leader)(창 2:18)

>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창세기 2 장 18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창 2:18)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다. 이 여성의 창조기사는 우리 여성들에게 위대한 사명가진 지도자의 자질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돕는 배필"(עזר,e'zer,helper)은 신학자들간에 해석에 많은 논쟁이 되어 온, 해석이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다. 이 구절은 흔히 여성의 열등성과 종속적 관계를 주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내조자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여성들을 지도력에서 소외시키고, 여성안수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구약 여성신학자 트리블(.Phyllis Trible)는 "성별의 사건 , 특히 여자의 창조 사건(창 2:18)은 동산, 나무, 그리고 동물들을 모두 만드시고 난 다음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사건들의 순서에 근거하여 여성의 종속적 관계를 주장한다.[182]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번에(동시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창세기 1 장 27 절의 기사와 그것을 대조시킨다. 그 리하여 그들은 P 문서 기자들이 성의 동등권을 인정한 반면에 야훼 기자들은 여성을 이차적이고 종속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고 추론한다" 고 말한다.[183] 그러나 여성신학자들은 재조명해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

182) E. Jacob,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s ,1958), 172f ; S. H. Hooke. "Genesis." *Peak's Commentary on the Bible* (London: Thomas Nelson, 1962), 179.
183) Phyllis Trible, "Eve and Adam , " *Andover Newton Quarterly*, March, 1973, 252 .

(1) 완성자 (Completor)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하여 다시 재조명해 보면, "도움는 자"는 완성하는 동역자로서 중요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많은 학자들은, 여자가 남자의 협력자(עזר,'ezer)로 창조 되었다는 것은 순서(chronical order)적으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정점"(頂点, climax)이며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도구", 혹은 "협력자"(helper) 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기능" (a function of creative complementariness)"을 성취했다 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사무엘 테린((Samuel Terrein)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여성은 남성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협력자로서 창조되었다. 종속된 위치에서 봉사의 개 개념을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협력자"('ezer)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절망 중에서 구원을 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여성은 육체 적 심리적 즐거움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은 창조의 완성의 기능 (a function of creative complementariness) 을 성취했다." [184]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하나님의 여성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 장 27 절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서 그 자체가 성서의 해석가가 되게 하는 여성신학자의 해석학적 방법의 일면을 보게 된다.

> "그러나 신학자들과 문학 비평가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야훼 기자들의 진술은 여자의 창조에서 침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곧, 여성은 하나의 뒷 궁리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 이라는사실이다. 창세기 1 장이 이 러한 해석을 지지해 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맨 나중에 창조되었고 진실로 그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의 극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과 끝이 평행되고 있는 구조에서는 마지막이 또한 처음이 될 수 있다." [185]

(2) 동역자 (Partner)

"돕는 자"(a helper, 'ezer)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말이 21 번이나 나타나는 데, 전쟁시에 동맥국으로서 협력하는 나라와 같이,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도우려 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 2 번이나 하와에 "도웁는 배필"이라고 사용된 것이다(창 2:18,20). 몇 구절들(사 30:5 ; 겔 12:14; 단 11:34 은 인간의 도움-human help 을 나타낸다) 을

184) Samuel Terrien, "Toward a Biblical Tehology of Womanhood," *Religion in Life*. Autumn 1973, 324 .
185) Phyllis Trible, 252.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들은 "신의 도움(Divine Help)를 나타낸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웁는자"로 나타 냈다(시 121, 124:8, 시 70:5, 시 33:30, 시 115:9-11, 시 146:5, 신 33:29 등).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도움(Help)이 어디서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라고 찬송 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과 성령도 "도웁는 자" (롬 8;27, 히 2:8)로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 성서에 약자를 돕기위해 있는 지도자들이나 강자를 "종" (servant,'ebed) 혹은 협력자"(helper,'ezer)라고 했다(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등). 이사야는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Suffering Servant)이라 표현했다(이 42:1-4). 신약에서도 주님 은 종의 도를 손수 보여 주셨으며(마 10:45, 빌 2:5-7),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했다(롬 1:1). 특별히 많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시 10:14,30:10, 118:7, 121: 1-2 등), 예수 그리스도(롬 8:26)와 성령님(히 2:18, 13:6)을 우리를 도웁는 "협력자" (Helper, 'ezer)라고 했다. 그러므로 "Helper" ('ezer)의 역할을 경시한다면 삼위일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役事)를 경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일 것이다.

도웁는 자 혹은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특징은 창세기 2 장에서 좀더 명백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창조설화의 절정(climax of Creation)인 이브가 아담의 보조자(helper, 'ezer)로서 창조되었다는 기사는, 도웁는자로서 그리고 종(Servant)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 인간상호간의 협력과 순종에서 반영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다. 박수영교수는 "타락이전 아담과 하와는 상호 동반자의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Image of God)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 1:26-27).....완전한 인간 개념은 남자에게만 있지않고 남자와 여자에게 있다.[186]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 같이 복을 주셨으며 똑같이 그들에게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창 1:27-28).

여기에 "돕는 배필"('ezerK'negdo) 이라는 문자적으로 "상호돕는자"의 뜻으로 단순히 내조자, 또는 보조자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도우심 같은 대등한 인격관계에서의 돕는 모든 실체들을 뜻한다"고 했다 [187] 아담과 이브는 동역자(Partners) 관계로 창조된 것이다. 이 간단한 성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성 중심의 문화속에서 침해와 주권을 행사하는 지배와 권력을 가진 남성의 특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서적인 의미로서 여성의 지도적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즉 여성은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완성하

186) Von Rad, "Genesis," *Old Teatament Theology*, Vol.1 (Harper and Row , Publishers, Inc., 1962), 63.
187) 박수암, "성서속에 나타난 남녀 파트너쉽(Partnership)의 모형,"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교회여성문제 연구소편, *교회여성문제 연구자료* <제 1 집>, 1991(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1991), .64-65.

는 "도움는-지도자"(Helper-Leader)[188]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성서적 여성의 역할은 긍정적인 힘(a positive power) 으로 시편의 구절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시 34: 3) 궁극적인 목적에 초첨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섬기는 지도자"(Servant-Leadership)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막 10:45).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현장에서 뒤따른 여인을 지칭하면서 마가는 두 가지 동사를사용하여 그 여성들을 규정하고 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 온 여자가 많더라."(막 15:40-41) 하나는 갈리리에서부터 예수의 뒤를 '쫓아 온'(follow)자들이며, 또 하나는 '섬겼던' (serve,cae for) 자들이라는 점이다. 전자는 모든 삶을 내건 제자직에 대한 표현이며, 후자는 예수의 삶의 표상성인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왔다'(막 10:45)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이 섬김의 의미는 예수의 삶과 비교할 때에야 비로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섬기는 자"는 열등성이나 복종을 지적하지 않는다. 성서적인 지도자상이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다.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지도력을 발휘할 때, 정치적 영향에 의하든지, 군사적인 힘, 협박, 권력행사, 금전적 수단, 카리스마, 육체적인 매력 등을 동원하여 지도력을 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 안정된 삶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씨는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은 거꾸로 선 나라(the upside-down kingdom)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몸소 살아 보이셨다. 그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지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다.

여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낮은 자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비젼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종 낮은 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188) Susan Hunt & Peggy Hutcheson. *Leadership For Women in the Church*(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10-34.

피억압자와 주변집단 속의 여성이다. 예를 들면, 우물가에서의 대화사건은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시리아계의 페니키아 여인은 예수에게 이방인의 권위도 허용할 것을 강요하는 예언적 구도자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위기성 앞에서 때때로 남성을 제치고 여성을 사용하신 예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의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다.

성서적으로 예수가 보여 준 십자가의 섬김의 길은 인간에게 궁극적 변화와 동시에 역사변혁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섬김의 모습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 패배와 좌절과 수치로 여겼던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메시야 예수의 오른편/왼편이라는 권력의 자리만을 탐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는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집권자들의 쟁취적 권력형태와 동일한 것이라 지적한다(막 10:35). 예수님은 자신 사역을 통하여 보여 준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더쉽의 성서적인 모델은 두 가지의 서로 관련된 개념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 좋은 지도함으로써 섬기고(Serve by leading), (2) 지도자는 섬김으로써 지도한다(Lead by serving)는 것이다.[189] 본훼퍼(Dietrcih Bonhoeffer)는 "지도자의 모든 권위는 형제를 섬기는 데 있다고 둘을 연결시키셨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듣는 섬김, 돕는 섬김, 남의 짐을 지는 섬김, 그리고 선교하는 섬김이 이루어지는 데 있을 뿐이다"[190]라고 역설한다. 렛셀(Lety M. Russell)는 여성의 이러한 봉사의 자유와 의무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스천 여성들은 새로운 경험에 의무감을 가진다. 이 의무감은 "자유의 영"을 가져오는 칫열 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망하는 세계를 위한 봉사와 선교활동을 하도록 위임 받은 것이다 (고후 3:17, 1:22).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 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굴종하는 소명(召命)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 도구가 되기 위한 소명이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일치하기 위한 소명이며 우월감 같는 소명이 아닌 것이다.[191]

예수는 첫째로 역사변혁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지도력 즉, "섬김의 지도력"(Servant-Leadership)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간의 허상적인 모든 자기자랑을 부끄럽게 하고, 남을 타도하는 모든 공격성을 제어하며, 모든 억압을 해방시키는 새 지도력이다. 곧 자기 생명을 내 놓음으로써 이웃을 살리는 생명을 향한 섬김의 정신이다. 사회적인 높은자리에 안주하는 명령과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고난 받는 섬김의 길인 것이다.

---

189) Ron Nicholas with 4 authors, ed.,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Inter Varsity.Press. 1985), 51-59.
190) Dietrcih Bonhoeffer, *Life Together*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54), 108.
191)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31-32.

둘째로는 종으로서의 지도력(Servanthood Leadership)이다. 바울은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doulos, slave)(빌 2:7) 그리스도의 모범을 설명하면서 회중들에게 겸손과 봉사에 대하여 권고하였다. 이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헌신하여 봉사와 사랑의 용납을 하는 것이다(눅 7:30 -50, 8:1-3, 10:38-42).[192]

"종"(Servant)의 지도력은 예언자, 성직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종(servant)으로서의 성직 수행을 위한 능력부여(Empowering) 라는 , 이러한 무지개식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럿셀은 "밑바닥의 한 귀퉁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꼭대기에 올라서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재능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나누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의 권위는 재능이 공동체 속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가운데 어느 쪽에 나타나든지 그 다양성을 두려워 하기 보다는 그 다양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그 재능을 인정한다"고 설명한다.[193]

이 공동체 안에 권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 주려"(막 10:45)온 인자(人子)의 삶의 방식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권위의 기능으로서 이루어지는 종으로서의 지도력은 (1) "종으로서의 예언" (servant prophecy), (2)"종으로서의 제사직"(servant priesthood), (3) "종으로서의 왕" (servant kingship)이다. 여기서 종으로서의 왕"은 정상에서 군림하는 권위로서의 통치자로서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부르기로 하고 싶다.

이것은 교회의 성직 수행을 연대성, 고난의 동참, 그리고 해방의 능력부여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직 수행에 대해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력이란 타인들에 대한 지배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들에게 권력을 주는 의미로 변혁시켜야 한다. 지배로서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비굴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서서 공동체 안에서 예언자, 성직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종(servant)으로서 서로 서로에게 능력부여(Empowering)와 서로 서로를 위한 해방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성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는 지도자로서의 자질(quality)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적 자질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란에 네 가지 지도자적 자질들(Qualities)해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

192) Ibid., 141.

193) Letty M. Russell, " Women and Ministry: Problem or Possibility ?" ed., Judith L. Weidman, *Christian Feminist : Vision of a New Human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75-92.

4) 지도자적 자질(Qualities of Leadership)

첫째로는 비전(Envisionign Task)이다. 지도자는 언제나 가능성들(possibilities)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향하여야 할 목적(goals)이나 꿈(dreams)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며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아름답고 귀한 비전을 펴쳐 보이며 분명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알차게 제시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는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돌진하여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란 문제점에 집착하여 의기소침한 자가 아니며 높고 넓은 시야로 오히려 문제점의 배후에 펼쳐져 있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하고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

둘째로는 동기(Motivation)부여이라고 하겠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나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아무리 그 이상이 높고 비전이 크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 나팔을 부는 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셋째로는 위기관리(Risk-Taking)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 회원들의 고집이나 욕망을 따르게 되는 위기가 있다(민 14:44-45). (2)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수단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위기의 순간도 있다. (3)때로는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하는 사람도 늘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위기의 순간도 있다. (4) 회원들로 부터 또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타협이 불가한 것처럼 보이는 위기의 순간도 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1)그 방법유익한 것인지의 여부(고전 6:12) (2)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케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고전 8:12) (3)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지의 여부(갈 1:10)가 문제해결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자질은 지도자 재생산의 역할을 포함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회원들 속에 잠재된 지도자적 자질을 발견하고 끄집어 내고 훈련시키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사명이 있다.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정성드려 훈련하며 인내로 양육할 때 비로소 나오는 보배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194]

194)정구영, "바람직한 지도자의 역할," 대한예수교장로화 여전도외 전국연합회. *1992 년 세미나 자료집*(9 집), 1992(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 출판사업회,1992). 61-65.

B. 신학적 연구 (Theoligical Study)

"신학" 이란 일반적으로 "신에 관한 지식에 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신의 존재, 특성, 창조, 섭리, 계시, 구속의 역사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지칭 할 수 있다. 여성신학자류터(Ruether) 의 말 처럼, 성서가 신이 문화적 백지(Tabula Rasa) 위에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이상,195) 그것은 언제나 문화적 상징들과 전통들을 통하여 전해진다. 신학은 역사 속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상황적 성찰이며 context 는 매우 역동적인 현실로서 끊임 없이 변화하고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신학은 끊임없는 반성을 통하여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성서* 신학"(*Biblical* religion)이다. 하나님의 통치(oikonomia)와 계획은 인간의 미래에 관한 종말론적 관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구약에서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킨 "해방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Ex.1:1-2:25, 14:30). 그리스도는 포로를 해방시켰다(사 61:1-2.눅 14:18-19).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서 미래와 희망이 있게 되었다. Karl Rahner 도 "성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구원의 섭리로서 증거한다" 고 했다.196)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을 열망하며 고통하는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방을 의미한다. 성서이야기가 하나님의 인간과의 역사이라면 하나님은 인권간주의자(Humanist)이며이런 면에서 훼미니스트 (Feminist)이라고 할 수 있다.

> "God has been clearly revealed in Jesus Christ as One who cares for and desires to be with human beings.197) And If God is *a humanist*, then surely, using comtemporary language, God is *a feminist*: One who who "shows no partiality"(acts10:34) but calls and accepts people regardless of their sex."198)

하나님은 억압당한 자, 소외된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의 옹호자(아무스 8:4-6)

---

195) R. R. Ruether, *Sexism and God-Talk*, 14.
196) Letty M.Russell, *Human Liberation*, 96, quoting Karl Rahner, "Divine Trinity," *Sacramentum Mundt*, Vol. VI, 302.
197) Karl Barth, *The Humanity of God* (John Knox, Press, 1970), 37-51.
198) Letty M. Russell, ed., *The Liberating Word*, 18-19

자였다. 억압 당하는 신적인 옹호는 또한 공관복음의 전통 속에 있는 예수의 설교와 그의 사역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사 61:1-2, 눅 4:18-19). 그러므로 Ruether 의 말처럼, "해방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봉사의 인간성과 상호 주체성 확립(mutual empowerment)을 인간 속에 채현하려 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199] 이런 면에서 예수는 훼미니스트(Feminist)이다.[200]

류터(Ruether)에 의하면, "여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낮은자를 옹호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비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피억압 자들, 주변집단 속의 여성들, 사마리아 여인들, 창녀들과 같은 소외집단의 여성들이 행하는 역할은 우상타파적이며 메시아적인 비전의 가장 진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의 찬가에서 선포되어 있다(눅 1:48-55). 마리아가 메시아가 될 아이를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은총은 부당한 사회질서의 혁명적 변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또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가 "상호창조자"(Co-Creatorship)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여성으로서, 역사(歷史) 속에서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의 혁명에서 찬양받게 될, 억압 당하는 자들을 대표 해야 한다."[201]

주역(周易, *I Ching-The Book of Change)* 에 설명된, 동양종교와 유교문화의 주체가 되어 온 음양(陰陽) 사상은 여성적인 음 (yin)과 남성적인 양(yang)은 등위 (等位)한 힘(Energy)으로써, 조화(Harmony)와 질서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창조의 힘으로 표현 되어 있다. 노영찬 교수는 "기독교의 이원론과는 달리, 유교의 본래의 세계관에는 이원론을 발견 할수 없다" 고 지적 했다.[202] 기독교 윤리와 유교윤리의 비교 연구가 올 바르게 될때, 비로서 각각 전통의 기본원리들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부장제적 문화와 유교문화 사상을, 어떻게 기독교 문화와 전통안에서 그 차이점들과 공통점들을 이해하며, 여성들을 노예로 비하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유교의 부정적인 잔재를 어떻게 여성의 해방을 위한 생산적

---

199) R.R.Ruether, *Sexism and God-Talk*, 146.
200) Swidler,Leonard, "Jesus wa a Feminist."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Vol.13/1,1972.
201) R.R.Ruether, 154.
202)Young-chan Ro, *The Korean Neo-Confucinaism of Yi Yulgok* (Stae Universtiy of Ne w York Press, 1989), xv; 271. Young-chan Ro, *Jounal of Chinese Philosophy* 15(1988) 269-289(Dialogue Publishing Company, Honolulu, hawaii, 1988), .271.

(energy)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가" 가 질문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임명 받았든지 임명 받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laos)으로서 세계를 위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도록 위임 받았다(베드로전서 2:7-9, 고후 3:17, 1:22-31).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Russell 은 "미래의 목회(봉사)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층의 주류에서 소외된 그룹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참여 할 수있게 하고 상황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인간'으로서 여성들도 "그들의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naming) 그 상황을 조작(articulating)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 한다.[203] 이러한 고침과 창조를 위해 변혁의 고통 (changing suffering)과 모험(risk)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204] 고통은 성숙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모범을 보여준다. 언어의 변화는 사람들이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세계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205]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한다. 이런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인간의 남.녀 어느 한 쪽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위험이 있게 된다.[206] 이것은 우리에게 통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암시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에 관하여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 은유적 (metaphor)언어를 사용할 때, 그 은유를 실재 그 자체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에의 선(Zen)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는 데에 사용하는 아주 도움이 되는 *교리*(logos)가 있다.

그 손 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잇는데
그 손가락을 달과 혼돈하는 자는
화가 있을 진저 !

하나님 언어는 하나님의 실재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세심한 연구와 해석을 통해서 그 실재를 노출시키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207]

---

203)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n*, 121.
204) Ibid., 145.
205) Ibid., .25.
206) Ibid., 22, 47.
207) Ibid., 13-97.

한국교회는 새로운 신학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性차별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바람직한 남녀의 진정한 관계를 제시하기 위해, 현실을 비판하는 의식을 높여 주고 그 출발점이 될 비전, 교회 전통을 재 해석하는데 있어 준거가 될 수 있는 비전, 현실의 의식과 제도를 변혁할 의지를 제시해 주고, 그 변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비전, 이러한 비전을 보여줄 신학적 분석이 형성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공동체의 당면 문제는 고발과 비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 보다도 신학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점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러하다. 여기에 신학이 전혀 배제되어 있으며 여성의 문제라면 도외시하는 시점에서 이를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귀중한 과제이다.

다음 란에는, 여성신학이 이 연구의 기본이 됨으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여성신학에 대하여 간단한 성찰을 하기로 한다.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을 위해서 여성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고, 더 나아가 해방된 여성들의 막대한 영성들의 에너지와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가?하는 여성의 영성해방 문제들을 여성신학과 결부시켜 구명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은 막대한 영성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무엇 때문인지 기독교 전통과 성서적 전통을 비판하며 재건을 통하여 영성해방신학 정립의 가능성 여부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I. 여성의 신학과 여성의 영성

1). 하나의 해방신학으로서의 여성해방신학

여성신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데에는 두 가지 운동이 있었다.[208] 즉, 여성학의 바람과 해방신학의 바람에 의해서 여성신학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 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신학은 19 세기의 여권신장운동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의도와 정열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것은 지난 60 년대에 처음있었다. 여성에 대한 이해를 하나의 학(學)으로 정리하게 되고 여권운동의 이론체계(Feminism)를 형성하는 작업이 전개 되었다. 1960 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했던 제 3 세계의 해방신학이 여성신학의 물결을 일으키게 한 또 하나의 외적 힘이다. 루뱀 알비스 (Rubem Alves), 보니노(J.M.Bonino), 꾸띠에레스(Gutierrez) 등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자들의 의한 새로운 신학의 바람, 그리고 특히 브라질의 파올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의식화 교육론과 실천의 큰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의 바람을 들 수 있다. 해방신학은 눌림당하는 자들과 누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사회구조 안에서 눌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의 경험안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기독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해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따라서 눌림받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해방사업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목표는 곧 인간해방이고 그러한 인간해방은 단순히 정신적 차원이나 내세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구체적 구조나 제도의 변화를 요청하는 신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1960 년대 말, 1970 년대 초, 제 3 세계의 해방, 흑인의 해방과 더불어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움직임이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에 부응하여 여류신학자들이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성서, 신학, 교회제도, 의식(儀式) 등 각 분야의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 있는 성차별주의와 여성 억압적인 요인에 대한 자각적 의식에서 출발한 여성들의 신학운동이 형성되었다.[209]

208)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1.
209) Ibid., 11-13.

여성신학(女性神學)이라는 말에는 여성(女性)이라는 말의 함의와 신학(神學)이라는 말의 함의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여성" 남성적인 특성의 신학에 대칭되는 여성적, 혹은 아름다운(feminine) 특성을 갖는 신학이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다.210) 여기에 쓰이고 있는 "여성"이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또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곧 "훼미니스트"(Feminist)라는 의미를 포함한 "여성"이다. 즉 여성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투신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신학이다.

그러면 여성신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여성의 의식화 촉진이다. 여성들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되게 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요청된다. 그래서 여성신학의 첫번째 과제는 여성들의 해방 혹은 인간화가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여성들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일이다. 현대 해방신학에서 사용하는 의식화(conscientization)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211]

둘째, 비판작업이다.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작업이다. 성서, 신학, 교회제도, 상징, 예배의식, 교육, 언어 등 기독교 전통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훼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통 가운데는 여성을 억압하고 비인간화하고 차별하는 일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왔고 , 또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류터의 비판작업에서 핵심적 차원은 신학의이데올로기성을 지적하기 위해 맑스의 사회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대--기독교사상 속에 들어있는 영.육 이원론과 기독교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문화 비판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육체를 열등하게 보고 정신을 우월한 것으로 보는 영.육 이원론이 곧 남성을 높이고 여성을 낮게 놓는 위계적 남녀관계를 정당화하는 기초가 된다고 기독교 전통을 비판한다. 기독교 전통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비판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 신학의 언어에 대한 것이다.

그의 비판에 따르면 전통적 기독교신학에서 사용해 온 언어는 남성위주이며 남성중심적인 언어인 바 그것은 그 신학이 형성되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 성차별이 심하던 시대상황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신학에서

---

210)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19.
211) E. S. Fiorenza, "Interpreting Patriachal Tradition," *The Liberating Word*, 40, 61.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가부장제사회의 반영이며, 그러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신학적 언어는 가부장제사회의 남녀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전통적 신학언어는 그대로 여성혐도와 여성억압을 위한 도구 노릇밖에 못한다. 여신학의 과제는 이러한 신학적 언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서학자 휘오렌자도 성서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해 성서에 들어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차별적인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성서는 가부장제도의 상황에서 쓰여졌기때문에 그 속에는 지배층인 남성을 성화(聖化)하는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이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었다고 한다.[212] 여성신학은 이와 같은 성서의 본문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여성해방적 해석학의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그러한 비판적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성서 속에 현재 들어오지 못하였던 여성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심미적 접근을 하는 과격한 성서신학자 크라이스트(Carol Christ)는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작업을 주로 신학적 상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도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신의 이미지는 여성들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비판한다. 여성의 힘(power)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의 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훼미니스트의 영성을 일으키는 모체(matrix)의 이미지를 지닌 여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전통에 대한 비판작업이 여성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그리고 실랄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신학, 성서신학, 윤리신학, 형이상학 등 여러 분야에서 훼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전통신학에 들어 있는 여성억압적 성차별적 요인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류터의 비판적 성찰

모든 해방신학이 그러하듯이 류터의 여성해방신학의 출벌점은 비판적 성찰이다. 기독교서 성찰한다.[213] 흑인해방신학이 흑인들의 해방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제 3 세계의 정치

212) E. S. Fiorenza, "Toward a Feminst Model of Historical Reconstruction," *In Memory of Her,* 40, 61.
213) R. R. Ruether, *Sexism and God Talk,* 45.

신학이 그들 세계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부터의 해방에 목적을 두고 있듯이 여성신학은 그와 같은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요인이 어떤 것인지 를 분별하는 일 , 그러한 요인을 비판적으로 고발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비판작업이 여성신학의 전부는 아니다. 여성신학이 행하는 비판작업은 잘못되어있는 인간관계, 특히 왜곡된 남녀관계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남녀과계의 비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새로운 여성상(像)을 제시하며 구현하는 과정에서 먼저 딛고 넘어가야 하는 전제가 되는 기초작업으로서의 비판이다. 여성신학(a feminist theology)에는 왜 비판적 차원이 포함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여성신학의 동기, 성격, 방법론, 이에 관련된 인식론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다른 모든 해방신학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여성신학만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의 인식론은 여성해방의 인식론 (feminst epestemology)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이룬다.

해방신학의 동기는 여성신학의 이와 같은 비판 작업은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해햐 한다.는 강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해방신학의 동기가 단순히 억압의 사실을 밝히고 그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억압의 현실에서부터의 여성의 해방이 여성신학의 동기이다.

여성신학의 목적은 여성신학은 하나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으로서 현대의 다른 모든 해방신학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여성신학만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의 인식론은 여성해방의 인식론(a feminist epistemology)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훼미니스트 인식론의 중요한 성격은 진리판단의 기준을 여성의 경험에 둔다. 여성의 경험이 진리판단의 기준이고 세계인식의 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험은 신학의 기본적내용 자료가 된다.[214)]

그러므로 신학을 한다는 것(doing theology)은 어떤 사실을 신학화(theologizing)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신학을 한다는 것은 여성해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과격한 행동의 첫 단계가 곧 류터의 신학행위에서 두드러지게 활발한 비판작업이다. 해방에 대한 신념을 일으켜 주고 이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힘이

214) Judith Plaskow, *Sex,Sin and Grace: Women's Experience and the Theologies of Reinhold Niebuhr and Paul Tillich* (Washington, D. 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27-50.

되는 그런 신학행위를 류터는 하고 있다. 그의 직접적인 표현대로 "누르는 남성들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눌림받고 있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학의 역할을 여성신학이 하여야 한다.[215]

2) 훼미니스트의 비판의 규범과 원칙

(1) 가부장제적 고전 기독교신학

류터의 비판내지 비평작업의 대상은 고대서양의 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기독교사상,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여러 사상에 이르는 광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가 현재 속해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전신학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다. 류터의 신학의 비판적 차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실안에 있는 모든 여성억압적 요인을 분별해내고 고발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측면이다. 류터의 핵심적인 비판작업의 대상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이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케 한 그 최초의 계시경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전통을 떠나서는 기독교적 여성신학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류터의 여성신학은 하나의 특정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 위에서 거기에서 부터 비판의 원칙 혹은 규범을 발경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전통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신학은 허위와 진실을 가려냄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 봄으로써 반성과 개혁의 길을 발견하자는 것이다.

(1) 종교적 상징체계와 여성 억압

다른 모든 해방신학에서와 마찬가지조 류터의 여성해방신학에서 쓰이고 있는 비판의 틀은 맑스의 소위 "이데올로기 비판"의 틀이다. 류터의 정통기독교 비판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사회구조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사회에서 지배층에 속하는 삶들의 그들의 경제적.정치적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사회제도, 곧 하부구조를 보지하기 위해 이를 합리와하며 정당화시켜 주는 상부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세 신학에서 형성된 성모 마리아론(Mariology)에 대한비판

215) R. R. Ruether,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73), 1.

에서도 이와 같은 틀을 볼 수 있다. 성보 마리아론도 중세 남성지배적 교회가 만든 하나의 상징적 의미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성차별주의적 이데올로기 형식의 세 단계가 있었다고 한다.[216)]

19 세기 이래 연구되어 온 문화인류학자들의 소위 원시 여족장제도(the primitive matricarchy)에 의하면, 기원전 1200 년경 까지만 해도 여성이 남성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이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사회변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여성이 그 본래의 자리에서부터 점차 전락(轉落)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전락의 단계가 세 단계를 거쳐 마침내는 여성신비화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 단계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남상세력에 대칭되는 대상이 되고 남성의 세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어머니"가 남성세력의대상으로 변화된 차원을 넘어서 여기서는 어머니에 대한 남성(아들들)의 과 대망상증에까지 이르게 된 단계이다.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보게 되고 그 결과 여성들을 학살하게 된 단계이다. 중세교회가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지도적 여성들을 학살한 것은 이러한 관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에 이르면 여성을 신비화해서 억압의 극치로 이끌어 놓게 된다. "어머니'를 부정과 저주의 상태에서부터 고상한 자리로 승화시키는 단계이다. 억압받는 타자를 이상화하고 신비화함으로써 "심오한 힘"의 차원으로 만드는 단라고 한다. 이것이 곧 성모 마리아론이 형성된 간계로 본다. "여성다움"(the feminity)이라고 하는것이 남성문화 속에서 남성에 의해 정의되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여성 본래의 상태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영.육 이원론과 성차별

고전신학에 들어 있는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인 가운데서 가장 깊게 , 가장 넓게 자리자리하고 있는 요인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원론적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최초로 만들어 진 기독교 이원론은 영.육이원론이었다. 그것은인간을

216) Ibid., 19-41:
여성전락의 뿌리를 세 단계로 설명한다.
(1) 어머니가 정복되는 단계--여성을 남성세력의 대상.도구로 여기게 된 단계
(2) 어머니가 부정시되는 단계--상대화의 차원을 넘어서 과대망상증에 걸린 단계(중세 학살사건)
(3) 어머니를 승화시키는 단계--억압된 타자를 이상화하고 신비화하여 "심오한 힘"의 차원으로 상징화 하는 단계 (Mariology).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하여 육체는 낮은 것, 혐오의 대상이고, 정신은 높고 귀한 것으로 정신주의적 경향을 띈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반물질적 이원론은 주.객의 이원론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과 인식의 객체로서의 모든 대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틀에서 보면 주체인 인간은 정신이고 살아 있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의 모든 대상들은 객관회된 "물질", "생명이 없는" "죽은 것"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육체를 소외시키고 물질(지구)를 착취하게 마든 바로 그 정신 즉 멘탈리티가 그대로 사회적 관계에 투영된 것이 서양에서 난 사회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류터의 서양의식에 대한 훼미니스트적 비판에서 가장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차별주의적 남.녀 이원론에 미친 이 영.육. 주객 이원론의 사회적 투영론이다.여성에 대한 사회적억압을 합리화시키는데 버젓이 사용되어 온 거짓 관념체제가 바로 이 것이라고 본다. 남성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성상 영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여성은 "신의 형상"이 그 속에 결핍되어 있어서 본질상 육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육욕적(carnal-minded)으로 되어 있다.그러한 여성의 육체를 다시리는 것은 여성의 본성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맡아서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여성의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남성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서 여자를 지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남성은 인간관계에서 지각하고 조정하는 쪽이고 여성은 지각의 대상이고 조정당하는 대상익;때문에 둘 사이의 성관계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고전적 기독교는 모든 지적 덕목을 남성에게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열등성이나 예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녀관계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독교의 날못된 여성관과 남성관에서 결국 상호인격적 관계에 기초하는 성관(性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잃고 만 것이다. 더욱 잘못된 것은 이러한 성적관계의 모델을 모든 사회적 억압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류터는 "이 변태적이고 탈선적인 정신문화를 지닌자로서, 그리고 세계 내에 그와같은 것을 최초로 자극시킨 장본인(its prime mover)으로서 기독교는 역사에 대한 큰 죄책의 짐을 지고 있다[217] 고 비판과 동시에 자책을 한다.

남성중심주의(androcentricism)로 말미암아 왜곡된 기독교 고전신학이 남녀관계를 그처럼 양극화하게 된 데는 성서의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 와 종말론적 사상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고전 기독교가 서양의 고전 문명을 그대로 계승해오던 것이 플라톤사상의 이원론적 인간관을 흡수하게 되면서 자체 내에 신학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영.

217) R. R. Ruether, *Liberation Theology*, 22.

육이원론을 남.녀 이원론과 동일시 함으로써 남녀관계에서 남성우위적 입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신학적 여성관이 다름아닌 서양정신 속에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론 (misagynism)의 핵심적 기반이 아닌가 한다.[218] 터툴리안의 신학은 이 여성혐오론의 한 극을 과시하는 신학으로서, 거기에는 인간의 원타락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여성의 죄성에 돌리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여성의 죄 때문인 고로 여성은 "그 벌로써" 예속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역사적 예속성을 정당화한다.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여권신장운동 가운데에도 이 이원론적 사고양상을 기반으로 했던경우가 많다. 4,5 세기에 일어 났던 여성금욕주의 운동이 그 하나로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정신적 여권신장의 한 양상이었다. 중세신학에 꽃피웠던 성모 마리아론은 곧 이 "정신적 여성"이라는 이미지와 금욕운동을 결합시킨 것이었다. 중세의 교부들이 말하는 세가지 유형의 기본적 영성상[219] 중에서 처녀의 상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 것도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욕적이고 육체를 부정하는 사상에 기초를 둔 "정신적 여성"이라는 이미지와 이와같은 종말론적 남녀평등의 이미지는 모두 고전신학이 여성억압적인 이원론적 사고의 틀 안에서 만들어 졌다. 기독교 신학에게 들어있는 이원론적 사고의 틀이 남성중심의 위계체계를 보전하기 위한 남성들의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유지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3) 여성신학의 자료로서 전통

전통적 기독교의 신학지식중에서 특별히 여성억압의 관련된 지식의 사회사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류터는 두 가지 과제를 핵심에 놓고 있다. 그 하나는 여성억압의 요인을 규명해내는 비판적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을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여성해방의, 비전을 찾아내는 그 비판의 창조적 과제이다.[220] 여성신학의 비판적 과제는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성신학이 기독교 전통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비판의 대상인 기독교 역사적전통에서 부터 그 비판의 근거를 발견하며, 새로운 신학을 형성하기 위한 재료를 발견한다.

218) Ibid., 100 .
219) Ibid., 107-108:
세 가지 기본적 여성상:(1) 창녀--타락의 본질, 죄 많은 육욕을 대표하는 여성. 머리에 반항하는 여성의 대표 (2) 아내-- 육체로 정의된 여자이나 머리에 복종하는 여성. 온순을 이상으로 함. (3) 처녀--육체를 넘어선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된 이상적 여성상.
220) Ibid., 19-41.

여성신학의 비판의 원칙은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의 촉진"(the promotion of the full humnity of women)[221] 이라고 하는데 둔다.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의 촉진"이라는 비판과 규범을 발견하는 기반은 고전신학의 전통과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이다.류터는 그의 여성신학의 비판적 차원의 원형(原型)을 성서에서 발견한다.신.구약 성서에 들어 있는 "예언자적 - 해방전통"(the prophetic-liberating tradition)[222]에서 발견 한다. 여성해방론(feminism)이 이아 같은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을 받다 들이는 것은 성서 속에 들어 잇는 가부장제도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성서신앙의 규범적 원칙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 그 자체가 성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여지를 주며 그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원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신학에서 받아들이는 성서신학은 성차별주의적 편견으로 인해서 왜곡된 국외적인 전통에 기반한 것이 아닌, 성서적 신앙과 그 전통을 계속 비판함녀서 갱신해 나가는 그 중심적인 전통에 근거를 둔다. 류터가 이상으로 하는 여성해방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남녀 위계질서를 뒤집어 놓은 다른 하나의 위계질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상이 아니다. 남성과 영성이 다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인간화에 공헌할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여성해방인 것이다. 이것이 그의 비판의 규범이며 원칙이다.

3). 여성신학의 목표

러셀의 중심주제가 되는 파트너쉽은 여성신학의 목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써 그것은 사회변화를 유발하고 유도해 나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으로서, 성차별적 사회질서의 변혁이 지향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개념이다. 사회변화란 그것이 과격한변혁의 형태이든 점진적 개조의 형태이든 기존하는하는 사회질서에다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에는 과적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에 대한 비판이 있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신학은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하나의 유토피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227]

221) R.R.Ruether, *Sexism and God-Talk*, 18.
226) Ibid., 23.
227) 손승희, 59.

여성신학의 각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신학의 다양한 이론 구조에 따라서 그 목표를 서술하는 용어가 다르다. 럿셀의 조직신학 체계에서 보면, 여성의 인간화(humanization), 또는 여성의 해방(Liberation)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간타락의 상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곧 모든 형태의 비인간화에서부터 인간을 인간화시키시는 것이며, 또 인간을 억압하는모든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여성의 인간화, 여성의해방이다. 남녀간의 화해와 파트너쉽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이 여성의 인간화 내지 해방이 여성신학의목표라고 한다. 럿셀의 신학에서 중심주제로서 파트너쉽은 여성신학의목표가 된다.바람직한 남녀관계를 묘사하는개념으로서, 성차별적 사회질서의 변혁이 지향할 비전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럿셀에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 즉 인간화의 메시지이다. 파괴되고 압제받고 미래가 없는 사회 상황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진술한다.228) 이 해방의 메시지는 모든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쁜 소식인 것이다(갈 3:28,고전 15:45).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인간"이 되게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화 (humanization)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며 기독교의 전통으로 [229]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화는 인간 역사의 핵심적인 문제요,자유를 위한 외침은 우주적인 것이다. 크리스천 여성들은 예수에게서 유일한 참 인격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예수 안의 "참 인간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의 초점은 서로를 향한 "봉사"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새 창조 과업에 동참하는 것은 인간의 응답이며 이것은 남녀의 파트너쉽으로만 가능 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한다(doing theology)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화(theolizing) 작업을 한다거나 신학적 사변 (思辨)에 빠지는 것과는 달리 인간화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화(theologizing) 작업을 한다거나 신학적 사변에 빠진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화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해방은 "하나님의 미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는

228)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64-65.
229) Ibid., 63.

행진이다." 크 리스천들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혁명을 위해 함께 결합 되어야 한다.

한국의 여성신학이 한국적 특수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전거를 한국여성사와 한국종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통찰이 있어야 겠지만 고려말 이전에 있던 여성문화라든가, 한국고유의 종교이며 여성들의 삶과 직결되었고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삶의 힘을 제공해 온 민중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신학의 새 전통을 축하하는 과제는 최근 여성신학에서 깊이 다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다.230) 여성의 규등한 인격됨이라는 여성의 규범에 비추어서 신학의 전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 여성신학의 과제이다. 여기서 우선 여성들의 여성 활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성자신들의 훈련과 준비가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을 통한 신학적인 노력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본다.

여성신학에 관한 간단한 성찰이었지만, 류터나 럿셀등 여성신학자들은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적 이원론의 남녀관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전통적 기독교 신학을 포함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남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제시해 줄 여성해방의 새로운 통찰력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이상(理想)으로 하는 여성해방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다. 지금까지의 남녀 위계질서를 뒤집어 놓은 다른 하나의 위계질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 이상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인간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의 여성해방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비판의 규범이며 원칙이다.

230) E. S. Fiorenza, *In Meomory of Her*, 68-92.

2. 기독교 전통과 여성의 영성

1). 여성의 경험 과 영성(Sprituality)

한국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여성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왔다. 현재도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 보다 훨씬 많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격과 구조에서 여성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교회의 영성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교회 영성신학에 관한 논의와 영성훈련에 관한 실천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 자신의 경험에서 볼 때 여성의 영성에는 남성의 영성과는 다른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 이러한 여성의 영성이 지닌 성격을 전통적 영성의 이해에서부터 무시하여 왔다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남성중심의 영성이해에다 여성의 영성이해를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여성의 영적행복(spiritual well-being)을 왜곡시키거나 말살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았나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spirituality)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라는 특수한 컨텍스트(場)와의 관계에서, 여성들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컨텍스트인 한국교회의 교육과 실천에는 여성들의 영성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성들의 성숙한 영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첫째로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기독교 전통에는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남성중심적인 요인이 들어있다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기독교 전통을 비판하며 재건하는 것이 여성신학의 과제라는 입장에서 영성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또 하나의 입장은 여성의 실제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영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찰하고 비판하고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기존하는 기독교 전통에 기초한 어떤 신학적 가정이나 성서적 가정에서가 아니다.

셋째 "영성'이라는 개념을 신학적 개념에 한정시키지 않는 입장이다. 즉 영성훈련, 영성형성과 같은 인간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논의를 포함한다. 여성의 영성발달은 여성의 성숙과정과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실현, 여성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는

힘이 되며 비전이 되는 영성발달위해 방법론적 문제도 언급하고저 한다. 먼저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물음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

(1) 기독교적 영성

영성(sprituality)을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응답이기도 한다.231) 기독교적 영성은 타종교의 영성의 특수성은 기독교적 신비에 대한 개인적 수락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있다. 즉 삼위일체론, 기독론적 신비, 교회론적 차원에 관계된 기독교적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영성은 개인에 따라 , 집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날의 신학적 경향에 의하면 여성을 기독교인의 기도의 경험과 같은내면 생활에 국한사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기독교 생활의 외적 표현방식도 포함시킨다. 삶의 스타일, 태도, 관념, 가치, 소신, 감정, 이미지, 이야기, 몸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신과의 경험에 대한 그 사람의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것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자는 영성을 인간의 자기초월의 능력(ability, capacity)으로 이해한다. 심리학자는 이 말을 퍼스낼리티(personality)에 어떤 개인의 힘(power). 에너지. 동기력(motive force)의 한 양상을 부여하는 인성적 본질(personal essence)의 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 종교인의 경우에는 인간의 자기초월의 실현이 인간 자신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것 곧 궁극적인 것 혹은 거룩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성이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해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232) 기독교의영성도 종교적 영성의 한 형태로서 자기초월적 지식.사랑.결단이라는 인간적 능력(capacity) 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인간능력이 성령(the Spirit)의 능력(은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간경험과 그 인간경험을 표현하는 상징이 인간의 생활,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역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한, 기독교 영성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적 영성발

231) William M. Thompson, *The Jesus Debate: A Survey and Synthesis* (New York:Rowman & Allanheld,1983), 10.
232) Carol Ochs, *Women and spirituality* (NJ: Roman & Allanheld, 1983), 10.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발달이나 기도의 발달이나 덕행의 발달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전체적 인간발달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의 영적 물음은 여성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여성에게 일어나는 삶의 깊은 경험이 그들의 영성을 활성케 하고 성숙케하는 장이 된다. 물론 허무. 고통. 절망. 무의미. 기쁨 등에 대한 경험이 그대로 영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 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 감으로써 신비스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더 큰 삶의 힘을 얻게 되고, 보다 더 밝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몇가지 유의할 점은 첫째, 종교적 경험 내지 영성형성이 목표가 아니라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흔히 많은 여신도들 중에는 영적 만족을 어떤 황홀감(ecstasy)과 같은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만족감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자기 결단을 통해서 자기변화(The trasformation in self)를 체험하는그런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는 자기중심적인 독선이나 편견에 빠지기 쉽고 신비주이적 영성이해에 떨어지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적 영성이 실재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면, 그 실재와의 관계의 양상과 그리고 실재의 이미지가 여성들의 영성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상징이나 설화나 신화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像-Image)와 그 기독사상이나 설화나 신화가 암시해 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양상,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여성의 관계양상이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영성은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유의할 점은, 영성이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영성은 형성되어 가는것, 성장해 가는 것, 발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교육자나 권위있는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은 각 개인 자신에게있는 것이기 때문에 233) 스스로 형성해 나가도록 양육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여성의 영성 발달이 지향하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훼미

233) Anne E. Carr, *Transforming Grace :Christian tradition & Women 's Experinces*(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8), .203.

니스트적 입장에서 여성의 영성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의식적으로 의도 하는 점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부터 보다 더 자기결정적인 역할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영성을 형성 하는 것이다. 보다 성숙한 영성이란 그것이 남성의 경우이든 여성의 경우이든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성이다.

2) 기독교 전통과 여성의 경험

(1) 기독교속의 성차별주의

최근 여성학자나 여성신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에는 여성의 영성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아주 과격한 여성들은 기독교 전통을 떠나는 길 외에는 여성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영성발달의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과격한 태도를 모든 여성신학자들이 다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통속에 들어 있는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같은 수긍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인습적으로 물려 받아 내려오고 있는 남성의 영성과 여성의 영성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스타일에 있는 것 같다. 가령 여자는 양육하는 일이나 남을 돌보는 역할을 맡도록 사회화되어 왔기 때문에 관계성이나 관련성이라는 가치가 높여져 왔고, 남자는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사회화 되어 왔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가 객관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해 왔다는 것이다.[234)]

샤프(Anne Wilson Scharf)가 실증조사한 서구 백인 남녀의 사고체계상의 차이를 보면 남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있다. 남성적 체계(mael wystem)는 분석적이고 정의, 설명, "이것이냐 저것이냐 에서 한 쪽"을 택하는 범주, 목표 지향성에 관심을 둔 그런 체계인 데 반해서, 여성적체계(female system)는 종합적이며 이해에 관심이 있고, "양쪽 다"라는 범주(both/and catagory)에 기울어지고 과정중심적인 체계라고 한다.[235)] 또한 최근에 실시한 여성들의 인식방식에 대한 조사연구 [236)]와 여성들의 도덕 판단방식에 대한 조

234) Ibid., 204.
235) Anne Wilson Scharf, *Women's Reality* (Minneapolis:Winston Press, 1981), 99-145.
236) Mary Field Blenkey, B. M. Clinchy, N. R. Goldenberg, and G. M Tarule, *Ways of Knowing ; The Deveopment of Self, Voice, and Mnd* (New York: Basic Books, 1986), 43-51.

사연구 [237]에 따르면 두 성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남성들이 자율성과 객관성 내지 개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성은 본성상 합리적이고 비정서적이고 여성은 본성상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이며 시적이라고 한다. [238]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영적 삶에 대한 남성의 경험과 여성의 경험 사이에 전형적인 차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두 성 간의 차이로 남녀의 우열을 말하 수는 없다. 문제는 남녀의 특성을 이분법으로 구분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남성의 영성과 여성의 영성을 성차별주의적으로 이분해 놓고 그러한 종교적이분법이 사회의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써 작용한다는 데 있다. 실재로 기독교 전통신학자들은 사회의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 주는 역할을 해 온 지배ㅡ복종의 위계구조를 담은 종교적 신화론이나 남녀관계에 관한 신화론을 지지해 왔다.[239] 물론 여성신학을 비롯한 여러 다른 해방신학에서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성의 자율성을 자각하면서 형성된 여성신학에서 볼 때, 기독교회의 전통적 신학과 전통적 신앙훈련은 그 대부분이 여성의 경험을 무시한 남성중심적 인 경험의 기초하에 만들어 진 것이었고, 남성의 지배 목적으로 만드러진 것이었다. 전통적 영성론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는 훼미니스트의 영성(Feminist spirituality)[240] 은 이와 같은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 있는 여성의 영적 발달, 여성의 영적 행복을 저해하거나 말살하는 요인들을 비판적으로 성찰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기독교회가 여성을 소외시키는데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적 영성론이 내세우는 여성의 영성은 복종의 영성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으로 결단함으로써 갖게 되는 영성으로서, 여성들이 세상 안에서 해 나가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본동기가 되며, 그 모든 일에서 맡게 될 역할관계를 규명하는 규범이 된다. 위계적 남녀관계를 절대화하고 신성화하는 유다-기독교적 신화와 더불어 남성인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영성은 남성들에 대한 복종이라는 남녀관계의 규범으로 표현된다. 그래서교회의 선교적 사명 가운데서도 여성의 자율적 결단이나 자율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서는 제외되고 오직 남성의 자율적 선교사명에 대한 "보조적 봉사"(auxiliary

---

237) Carol Gilligan, *In Diffferent Voice:Psychological Theory and Wome's Development*(Cambridge and London:Havard University Press,1982), 64-105.

238) Carol P. Christ, *Diving Deeps and Surfacing* (Boston: Beacon Press, 1980). XXX: Carol Christ , "Spiritual Quest and Women's Experience," *Woman Spiritrising* , edited by C.P. Christ and Judith Palskow(New York: Haroer & Row, 1979), 228-245.

239) Anne Wilson Scharf, *Women's Reality*, 204-205.

240) feminst spirituality: 여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실재로 있다.손승희. 141.

services)[241)]에 한정된다.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성의 교회의 내적.외적 정책결정과 같은 힘의 행사영역에서 제외시키는 현상이다. 교회의 권력구조 내에서 오직 복종적이고 의존적 역할에 한정하고 교회생활의 공적 영역에서는 제외된 사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다.[242)] 이와 같은 복종의 영성을 가장 "아름다움"의 영성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사회화해 오게 된 데는 기독교회가 그 형성초기부터 함축하고 있던 성차별주의의 이데올로기 내지 남성지배주의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243)]

(1) 물.영 이원론과 여성의 영성

기독교가 여성의 소외를 조장하는 데 적극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 정통기독교 사상에 들어 있는 영성(spirituality) 과 성성(性性/sexuality) 간의 괴리사상이다. 일반 성서학자나 훼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신약성서의 형성과정에는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종류의 사상이 있다. 그 가운데 이 영성과 성성의 분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희랍의 "물.영(matter-spirit) 이원론이다. 이 물.영 이원론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육.영"(body spirit)이원론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믿음에 이르는 길 곧 영성에 이르는 길은 육체로부터의 도피라고 보게 되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성이 진정으로 성결한 영성에 이르기 위해선 그 성결하지 못한 여성의 육체를 멀리해야만 했다. 이것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이며 여성 억압적인 성성이해이며 영성이해인가?

중세 기독교회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성모 마리아론은 교회가 시도했던 여성소외를 위한 작업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성공적인 것이었다.[244)] 왜냐하면 성모마리아는 중세교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 성모 마리아의 여성적이미지에서 성성(性性/sexuality)을 배제하고 그것을 미화하고 정화함으로써 여성을 철저하게 소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여성들의 기도 생활이나 명상생활의 대상으로 삼게 함으로써 여성의 영적 생활은 여성의 성숙한 인간형성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여성들의 영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241) Sandra M. Schneiders,"The effects of Women's Experience on Their Spirituality," ed. Oann Wolski Conn, *Women's Spirituality: Resources for Christian Development* (New York: Paulist Press, 1986), 33.
242) Ibid., .35.
243) R .R .Ruether, *New Women New Earth: Sexsist Ideologia and Human Liberation*(New York: Seabury Press, 1975).
244) Ibid., 70-87.

3. 한국교회와 여성의 영성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영성은 한국교회의 남성들의 영성과 어떻게 다르며 또 다른 지역(가령 서구사회나 공산권과 같은 지역)의 여성들의 영성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실증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 사실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성훈련이나 영성형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조사는 더더욱 안돼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그 중 몇 가지만 살펴 보기로 한다.

1) 여성의 영성문제

(1) 영적 경험에 머무는 영성

한국교회여성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앙유형 중의 하나는 신비주의적 신앙체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흥회, 사경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종교적 모임의 대다수가 여신도들인데 ,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이 입증되고 구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체험은 어떤 초자연적 상태를 직접 감각적으로 느끼고 정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홀경과 같은 경험을 한다거나 어떤 힘에 의해 감전되거나 사로 잡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상태를 포함한다. 어떤 격렬한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맛보는 기쁨의 경험, 해방의기분, 편안함의 기분, 막혔던 것이 확 뚫린 것 같은 시원한 기분을 갖게 되는 상태를 포함한다."[245)]

한국여성들이 왜 이처럼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을 지향하는 유형으로 되었는가? 선교초기 여성들의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물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초기 교회여성들이 입교하게 된 동기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종교적 동기를 든다면 그들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맛보게 되는 "해방된기쁨"

245) 손승희, 144.

에 있었다고 한다.[246] 당시 여신도들의 급증하고 부흥회적 신앙으로 불붙어 가는 현상을 본국에 보고 하면서, 선교사들은 한국 여신도들의 신앙이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을 지향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게된 원인을 그들의 여성적 특성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든다.

한국의 여성들은 "지식소양에서는 남성들보다 열등하지만 신앙의 단순성, 종교적 체험, 신앙의 깊이에서는 훨씬 우월하다"[247]고 묘사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서처럼, 한국여성들의 본성은 비합리적이고 정열적인 정서성(emotionality)이나 정에 넘치는 참여감, 육체적 감각성에 있다고 본다.[248]즉 그들의 여성적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인라는 토양 속에서 자라온 한국 여성의 심성 속에는 본래부터 무교적 성향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받아들인 기독교신앙은 이 무교적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249]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한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속에, 특히 여성들 속에 흐르고 있는 무속적 에너지의 표출로 설명하고 있다.[250]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에 방언의 능력을 받는 다는 경험은 결국 무교에서 볼 수 있는 주력(呪力)을 받는다는 것과 한(恨)이 풀리는 경험과 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들의 가슴에 남달리 깊게 맺혀진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성령운동의 중요한 핵심적기능으로 본다.[251]

그 원인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유형으로 유도되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처해 있던 그리고 현재도 처해 있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252] 이 땅에 기독교(특히 개신교회)가 선교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 말 국운이 기울어져 민족적 정치적으로 시련기에 있던 때 였다. 1903-1904 년 부터 함경도 지역에서 시작한 성령운도은 1910 년 전국적으로 계획된 백만인 구령운동의 형태로 이어져 갔다. 1905, 1910 년 두 차례의 충격적 조약 체결의 결과 국가의 비운이 극에 달했고, 전 국민의 통곡소리가 들리니, 교회라고 그 통곡소리가 일어나지 않을리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지도자들(주로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정책은 한국교

---

246) 이우정, *한국기독교 여성백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6). 73.
247) The Korea Repository, Vol. 4, 1987, 192.
248) Carol P. Christ. XXX.
Carol Christ, Andrienne Rich 등은 이러한 여성적 가치들을 적극적이고 삶을 긍정하는 가치들로 보고, 이런 가치들을 개발하고 표현하는 것이 여성해방에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49)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250) 서광선, 정진홍, 한완상, 김관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서울: 대화출판사, 1982).
251) Ibid., 77.
252) 손승희, "대한제국시대 기독교의 성령운동," *대한제국연구 II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비전을 가지고 비통한 영혼들이 이미 소망없는 나라일을 잊고 주님과 고고한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정치적에서는 떠나 한국민의 도덕적 및 영적 고양에다 전적인 힘을 쏟을 것" 을 선교의 행동 법칙으로 삼았었다.[253)]

여기서 교회는 한 맺힌 사람들의 한을 푸는 곳이 되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위안의 장소가 되었다. 그 결과 이 때에 전개된 성령운동 내지 신비주의적 영성운동은 한국교회의 탈지성적. 비사회윤리적 전통의 유형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교회지도자들의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이러한 신앙유형이 강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성들의 이러한 신비주의적 영성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쥘레(Dorothee Solle)는 기독교의 신비주의 전통은 오늘날과 같이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254)] 그 이유는 신비주의적 전통은 교회의 권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종교적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부장제도적 권위나 힘이나 지배와 관련된 그런 본질을 지닌 신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교회 여성들의 신비적이고 무속화된 영성은 특별히 소외당하고 눌림받고 기성 교회체제의 권위주의적 구조에서 멀어져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통합하는 경험을 갖데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기쁨의 경험을 갖게 된다. 특별히 이러한 영성에서는 신을 어떤 힘(power)으로 경험하는데 그 힘은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힘이며 필요에 따라 힘을 넣어주는 그런 힘의 근원이다. 더욱이 성령의 은사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확신은 여성신학에 보탬이 되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신비적인 영적 체험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영적 체험의 너머에 있는 실재, 곧 하나님과의 의미있는 관계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 단순한 영적 체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 간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에 변화(transforamtion) 를 일으키는 일이며, 그러한 변화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의미 체계에 비추어 신에 대한 자기변화 없는 경험만으로는 바람작한 여성

253) W. N. Blair, *Gold in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1957), 63.
254) Dorothee Solle, "Mysticisn, Liberation and The Names of God," 179, *Christinaity & Crisis.* 41; (June 22, 1981), 179-185.

해방의 영성을 낳을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영성은 내적인 고통에 사로잡혀있는 여성들에게 위안을 주고 치유의 기능을 행하며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렇게 해방되고 치유된 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남성들에 의해서 맺혀진 여성들의 한을 시원히 풀어주는 힘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그 풀린 가슴을 갖게 된 여성들이 남.녀의 동등한 관계와 남.녀 양성의 온전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창조적 비젼과 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은 전통에 대한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통의 재건에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의 영성

한국교회의 여성들의 영성의 다른 특징은 그것이 남성적 이미지와 신에 대한 경험과 남성적 이미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영상에서 형성되어 왔다는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 점은 한국교회 남성들의 영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다만 동일한 남성적 이미지가 여성의 영성형성에 미치는 경우와 남성의 영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 즉, 신에 대한 상징을 공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영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에 대한 한 상징적 표현으로서의 남성적 이미지가 그것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여성의 영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래왔다. 그러한 결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여성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의 능력에 미친 영향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남성이미자가 남성들에게는 자율적 영성을 형성케 해주고 여성들에게는 그 자율성을 누루고 의존적인 영을 형성케 해주었다. 남성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성들의 영성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교역분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현저한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직제도나 교역제도에서 여성들에게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몇 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금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신학교육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분야는 주로 남성교역자들에게 대한 보조 역할 분야나 봉사적 영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성서적 은유를 남성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성서적 권위 내지 교회의 권위로 절대화함으로써 교회의 교역직분에서 여성들은 소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외는 한국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뿐만아니라 한국교회 영성의 측면에서도 이해된다. 한국교회의 여교역자들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손승희의 조사에 의하면, 권위적이고 자율적인 이미지는 거의 없고, 항상 희생과 봉사

와 복종의 자세로 남성 교역자의 보조자 역할자로서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255] 또한 교회의 소녀들이나 신학교의 여학생들에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꿈이나 사명감이나 야망은 극히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모두 한국교회가 형성하고 있는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최근 한 정신요법학 교수가 임상연구한 결과에 의하면,[256] 자아상(Self-Image)과 신상(god-representatons)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프로이드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는 신에 대한 신념은 병리학적 증상이 아니며, 보통 환경에서 자란 아이 가운데에는 (물론 서구사회) 아주 미발달 상태이기는 하지만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신상(神像)은 발달론적으로 변화해 가는 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순간은 자기의 인생과 직업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 후반의 자아상 형성기라고 한다. 특별히 중요한 발견은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 그 사람의 자아의식—특히 희망과 관계성에 관련된--에 잘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257]

리주토(A.M.Rizzuto)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성숙한 영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 만일 한국교회의 영성이 여성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교회의 선교적 과제수행에서 여성들의 가치와 능력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영성발달의 심각한 문제로 남게 된다. 가부장제도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성숙을 지향하고 영적 발달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은 남성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자율과 자기 결정을 위한 투쟁, 곧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할 이 자율과 자기 결정을 위한 투쟁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여성의 영성형성과 관계의 장

한국교회의 여성들의 영성을 생각할 때 또 하나의 특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긍정하는 측면이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그 본성이나 그 지내 온 경험에 있어서 여성의 영성에는 분명히 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은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 여기서 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자 한다.

---

255) 손승희, "한국교회의 여교역자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논총 제 36 집*(서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0).
256) Ana-Maria Rizzuto, M.D., *The Birth of The Living G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257) Ibid., 180-220.

기독교의 영적 생활의 전통에서 볼 때, 영성의 형성은 세속을 떠난 다른 세계 (other world) 를 장(context)으로 하였다. 과거의 신비주의자들은 종교공동체나 광야에서 금욕생활과 기도, 명상의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위해 홀로 투쟁하는 모습으로 영적 투쟁을 나타냈다. 그러나 새로운 영적 투쟁의 모습은 이 세계 안에서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장으로하는 그런 모습이다. 여성의 성숙을 향한 과정은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258]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 노릇"(Mothering) 의 가정경험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아이를 낳고 자기에게 의존하는 아이를 보살피는 경험을 한다. 즉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하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엄마 노릇"(Mothering)이라고 한다. 이 "엄마노릇"은 식구들과 관계 에서 모든 고난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이 "엄마노릇"이 곧 여성의 영성 형성, 영적 투쟁의 장이 된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사회경험이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컨텍스트에서 남성들과 같이 일 해온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은 분명히 아프고 억울한 경험이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관계의 의미를 더 절실히 깨닫게 한 경험이기도 하다. 바로 이 경험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쉽게 비지배적이고 더 비경쟁적인 관계라는 의미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한다.[259]

여성심리학자들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의 심리현상과 남성들의 심리현상의 차이의 기반이 남녀 간의 경험 차이에 있다고 한다. 길리간(Carol Gilligan)에 의하면, 여성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의 발달단계의 양상(순서)이 남성들의 경우와 다르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윤리적 가치를 선택할 때에는 자기와 관련된 다른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데 있다. 남성들은 그 윤리적 판단의 발달단계가 높을 수록 상황적 요인이나 자기 주위의사람들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보편적 원칙에 준한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그 발달단계가 높을 수록 자기와 관련된 남에 대한 고려, 보살핌이 판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60] 이처럼 가치선택의 방식에는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작용하고 그러한 책임의식은 보살핌과 양육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삶의 컨택스트에

258) Carol Ochs, *Women and spirituality* (NJ: Roman & Allanheld. 1983), 3.
259) Sandra M. Schneiders,"The effects of Women;s Experience on Their Spirituality," edited by Oann Wolski Conn, *Women's Spirituality:Resources for Christian Development*(New York: Paulist Press, 1986), 33.
260) Carol Gilligan, 64 -105.

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특성을 남성의 특성보다 더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하는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남을 돌본다든가 보살핀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의 특성을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리며 도움 받는 그런 남녀관계에서 여성도 남성도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 자기실현의 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손승희는 이와 같은 관계의 장에서 형성되는 여성들의 영성은 인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고 감싸주는 힘이 된다.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들의 이러한 영성의 양상은여성해방을 이끌어가는 저력으로 받아들이 수 밖에 없다. 여성해방을 추진하는 전위적 힘으로서 보다는 그 운동을 받쳐주고 밀어 주는 저력으로 큰 영향을 담당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영성은 훼미니스트의 영성(Feminist Spirituality)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261]

2). 여성해방의 영성을 위한 여성신학의 과제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에는 강력한 힘이 함축되어 있다. 거대한 폭팔력을 지닌 힘의 덩어리 같은 그런 영성을, 이 나라의 교회 여성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자 신도들 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영성이 그처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여성들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지 여성들자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에 관한 정치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성들의 영성의 훼미니스트의식의 결핍을 본다. 여기에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에 관한 정치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성들의 영성의 훼미니스트 의식의 결핍을 보게된다. 결핍이라기 보다 부재(不在)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지도 모른다.

여성신학의 과제는 이러한 여성들의 영성을 여성해방의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여성들 자신의 자율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본성에 들어 있는 관계성을 북돋아 주는 길을 열어 놓는 일이다. 그들의 영적 체험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처럼 오랫 동안 깊게 맺혔던 한을 풀어주는 한 풀이 기능에 멈추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 여성의 진정한 자기실현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참된 의미에서의 해방의 영성이요 성숙한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손승희에 의하면, 여성해방의 영성, 여성의 성숙한 영성을 형

261)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153.

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성신학은 전통적인(혹은 현재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훼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 보고 새로운 자료를 공급해 주는 일을 해햐 한다. 기도와 명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들, 예배나 종교의식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이 모두를 살피고 이에 적절한 것을 제공해 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징, 이야기, 기도문, 실재의 이미지, 성서의 글, 영적생활의 이상적 모델 등 여성해방의 영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전통에서부터 또는 전통 밖에서도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262)]

이러한 여성신학적 작업은 한국교회의 전통에 대한 비판과 고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전통 그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기독교 전통, 한국교회 전통 속에 들어 있는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요소를 비판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여성의 자기 실현과 여성의 진정한 행복에 거치돌이 되는 있는 그런 요인들을 그 속에서 찾아서 고발하는 것이다.

여성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성서, 신학, 교회제도 등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해서 전통에대한 비판적 작업은 전통의 재구성(reconstruction) 작업으로 이어진다. 바람직한 입장은 그 전통 속에서 훼미니스트 의식에 기반이 되는 측면이나 또는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평등한 긍정을 보내는 그런 전통을 발견하여 새로운 구성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먼저 성서에 대한 과제를 성찰해 보고자 한다.

(1) 성서비판과 재건의 과제

기독교 전통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작업에서 그 첫째가는 대상이 성서이다. 성서는 기독교의 영성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성서에 관련된 여성신학적 과제는 성서에 들어 있는 영성의 역사 가운데서 여성의 모델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전통적 입장 에서 보면 성서에 드러나는 영적 인간의 모델이 거의 전부가 남성모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재성찰해 보면, 여성의 자율성을 지닌 모델이 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사라,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등, 여성들의 영적 삶의 이미지를 모델로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성서 속에는 가부장제도에서 온 영향과 남성 중심적 관점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잘못 해석된 부분이 들어 있으나,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보면 예수의 여제자 자들에 대한 흔적이 많다. 또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여 사도들의 흔적도 많다. 그러한 것

262) Ibid., 153, 157.

속에서 훼미니스트 영성을 위한 재료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

(2) 신학비판과 재건의 과제

두번째로 비판의 대상은 신학이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양상이다. 여성신학자들은 전통적 신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남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여성해방의 영성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성으로 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그 러한 하나님의 여성의 이미지를 고대 중동지방의 여신상에서 끌어 오기도 하고 원시교회 운 동 당시의 유다교 전통에서도 끌어오고 근세 신비주의의 기독교 운동에서도 끌어 온다. 그래서 '모신"(母神/Mother Godness), "원시모 하나님" (Ur-Mother), "우주 란" Cosmic Egg), "자궁"(Cosmic Womb), "쏘피아 하나님"(Sophia God) 등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신론을 전개한다.[263] 또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여성으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기독론을 훼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264]

여성해방의 영성은 은총의 경험, 성령의 경험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인제, 이러한 관계의 경험이 곧 남녀간의 관계나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를 은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신-인(神-人)의 관계경험은 각기 자기의 울타리가 침범당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각기 자기의 영역이 지켜지면서 서로 함께 행동하고 접하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 그것은 니버(Nieebuhr)가 말하는 권위적 심판자에 의해 "부서져 버리는"(shattering) 그런 경험도 아니고, 틸리히(Tillich)가 말하는 이해심 깊은 어머니에 의해 "받아드려지는"(acceptance) 그런 경험도 아니다. "같이"(C0-)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함께하는 행위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265]

이와 같이 여성해방의 영성에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영성을 형성케 하는데 도움이 될 신학적 자료를 발견하고 제공하는 과제가 여성신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서구교회에서는 이미 이 분야의 작업이 크게 진전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 서구에서는 남성들 가운데서도 호응을 보내며 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는 극히 드문 사실이다.

---

263) R. R. Ruether, *Sexism and God,* Talk, 47-71.
264) Ibid., 116-138; Christin Lore Wever, *Woman Christ: A New-Vision of Feminst Spirituality* (San Fransico: Harper & Row Publisher, 1987).
265) Judith Plaskow, *Sex, Sin and Grace*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한국교회 여성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커다란 힘으로 뭉쳐저있는 영성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것을 보지못하고 있다데 문제가 있다. 그들을 깨우치는 현실을 보는 눈을 제공해 주고, 그들이 지향해야 할 비젼을 주어야 한다. 여기에 여성신학의 과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으로 가꾸어 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에 필요한 실천을 도모하는 것이다.

손승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여성은 자율과 관계를다 같이 포함하는 영성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여성들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게 하고 여성들 자신의 자율적 자기 결단에 의해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의 영성, 그리고 남녀간의 회복된 관계양상으로서의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요청되는 관계지향의 영성, 이 두 영성의 이미지는 바로 여성해방이 지향하는 목적이 된다. 한국교회 여성 들의 영성은 그 강력한 추진력과 더불어 그 힘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가져야 하며, 이것을 위한 영성신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한다.[266)]

266) 손승희, 157

C. 역사적 . 사회적 . 심리적 연구

예수에게 있어서 여성은 완전한 인간이었다.[267]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완벽한 가부장주의의 남성중심적 제도하에 여성을 억압해 왔다. 여성은 속박의 제 1 인자였다. 여성은 남자 노예가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노예였다.[268] 여성들의 압제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착취를 지지하고 영존시키는 보편적인 착취 형태이다.[269] 가부장주의가 여성의억압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억압해 왔으며, 자연에 대한 파괴를 낳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性)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주의, 계급 차별주의, 식민지주의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들의 여성해방운동은 신음속에 있는 일치성의 경험을 강조한다.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문서들과 논문 기사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남성들의 지배와 여성들의 복종관게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신음의 표징임을 증명하고 있다. 럿셀은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본래의 피조물의 형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순종과 타락된 상태에서 초래한 것이다"[270]라고 말한다.

이런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여성은 교회와 사회에서 온전하고 정당한 위치에 자리 할 수 없으며, 차별과 편견으로 비인간화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현실상황은 어떠한가? 우리가 선택한 미국은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고 한다. 미국은 시초 청교도(Puritans)의 신앙과 개척정신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며 이런 주변도에서 이민생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상현이 지적한대로, 우리는 여러가지 인간적인 이유로 도미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해보려고, 혹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아 보려고 온 것이다.[271]

그러나 우리의 이민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상의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축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변두성과 주변성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

267) 이우정, *깨어라 여성* (서울:학민사, 1978), 31.
268)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29.
269) Ibid., 29. quoting "Report of 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Role of Women in Tehoogical Education," *Women's Liberaton and the Church, edited by* Sally Bentley Doely (Association Press, 1971), Appendix, 136
270) Ibid., 28.
271) Sang Hyun Lee, ed., "Called to be Pilgrims," *Korean American Ministry*, 91.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272] 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교회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프레에이리(Freire) 는 "역사의 변화는 여성의 진보에 따라 표시될 수 있다"[273]고 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회와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차별주의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중요한 과제인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성차별주의로부터의 전향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와 역할로부터 스스로를 자유케 함을 의미하며, 또한 그에 기반한 유형들로부터 사회 구조를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의 중심부와 이러한 양면적인 투쟁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T. Richard Snyder 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

> "고정관념들은 위리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교회 생활에서 "타자" (secondary place)에 귀속시켰다. 우리가 교회 안의 질서도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다 더 큰 차원의 사회에서 변혁자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 ? 그러므로 교회가 효과적인 변혁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계급의식에 의한 소외를 극복하는 큰 용단이 있어야 한다."[274]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러한 참여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사람들의 공동체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은죄이다." 혁명적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제일 잘아는 피압박자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歷史) 속에서 인간공동체의 해방을 위해 역사(役事)하고 계신다. 여성들은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기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275] 그러므로 프레이리 (Paul Freire)가 말한 것차럼 여성들 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역사적인 과정이나 혹은 이 역사성 속에 참여하며 미래를 형성하고 세계를 변화 시키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연구팀의 조언 속에, 올바른 문제의 정의, 문헌 고찰과 가설을 세우는 일, 조사 연구의 실제, 자료 분석이 교회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삶의 상황(Sitz im Leben)에서, 면밀히 조사, 진단,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272) Ibid., 63.
273) Freire, *Pedagogy*, 75.
274) T. Richard Snyder, *Divided We Fall: Moving From Suspision to Solidarity* (Louisville, KY:Westminster /John Knox Press,1992), 16.
275) Paul Friere, *Pedagogy of the Oppress,* translated by Myra Bergman Ramos(New York: Continum, 1970), 72 .

1. 역사적 연구

한인 인구는 1965 년의 미국 이민법 개정 이민법으로 말미암아 엄청한 증가를 가져왔다. 1970 년 71,000 명에서 1980 년에는 355,000 으로 무려 413%가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 총 인구는 11%, 중국계는 85%, 일본계는 18%, 필리핀계는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학자 유영의 교수에 의하면 1985 년 9 월 30 일 까지 재미 한인 총 인구는 약 650,000 으로 추산한다고 하였다.[276] 이는 시민, 영주권자, 유학생, 지사원, 외교관 가족, 영주권 대기자,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현재 재미 한인 인구의 공식적인 집계는 1990 년도 미국 연방 정부의 인구 통계가 나아와야 알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약 1 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시기의 한인 이민의 특징은 초기의 외교, 정치망명, 유학, 집단노동 이민이나 1950 년대의 전쟁 이민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개정 이민법의 정신에 따라 1965 년 이후 초기는 전문인들의 취업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계속 유학과 지상사요원들이 대거 진출하여 잔유함으로 많은 고급인력의 이민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지금까지 이루어진 초기 이민자들이 그들의 가족을 초청함으로 새로운 한인 이민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65 년 이후의 재미 한인사회는 초기의 특수 이민의 형태를 벗어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민병갑 교수에 따르면, "한 소수민이 자기 민족끼리 잦은 접촉을 갖고 그들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켜나가며 민족의식(Identity)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털어 Ethnicity 라고 말한다.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이민 집단(민족)이 이민하여 정착한 나라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며 적응해 나가는 현상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한다. 우리 교포들이 동화되어 가는데는 매우 느린 편이다. 반면에 우리 교포들은 한국인의 소수민 Ethnicity 를 유지해 가가는 것은 비교적 성공적이다.[277] Ethnicity 으로서 미국과 같은 복합민족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능숙히사용하고 미국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등 동화되어 감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278]

---

276) Eui Young Yu,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in america and their Settlement Patterns," in *Korean Community in America*, edited by Ill soo Kim(New York:The Korean Association of New York, 1986), 17.
277)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177-178.
278) Ibid., 177.

민병갑 교수의 연구 통계에 의하면 한인 교포의 70%정도가 한국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90%이상이 교회나 동창회등 한인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인들이 어떤 다른 소수민족보다 동족끼리의 접촉이 빈번하며 유대관계가 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79] 이 70% 교포가정이 한인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잇는 교포들을 모이게 하는 대표적인 조직체이다. 대부분의 교포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교회에서 한인들을 만나 친교를 나누고 또 같은 교인들 사이에는 친구관계가 유지되어 평상시에도 교제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포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육 및 우리 고유의 풍속들이 유지될 수있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미국사회에서 우리의 문화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280] 그러나 이상현 교수는 우리의 순례자로서의 더 나가야 할 차원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우리가 한국적인 것, 한국의 과거만을 절대시 하여 현재 미국땅에서 닥쳐오는 기독인으로서의 책임을 등한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다. 한인들의 모든 공동체에게 우리의 민족성의 유한성을 말 해줄 예언자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 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우리가 공헌할 더 큰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 우리가 순례자라면 아늑한 한인사회에만 있지 말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항상 추구하며 계속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281]

2.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

이민한인목회는 이민 한인들을 목회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민 한인교회는 목회의 이중과제를 가지고 있다. 재미한인들은 물론 이민교회는 한국 문화안에 있으며 동시에 이민이라는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다양한 민족, 인종, 관습에 근거한 이민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의 만남 속에 있다. 이것이 매일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Sitz im Leben)이다. 이러한 이민 한인교회는 우리의 목회현장인 이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특수한 한인 이민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

279) Ibie., 178.
280) Ibd., 90.
281) 이상현, *이민목회*, 75-76.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사화와 결별해서는 살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역시 사회와 분리해서는 살 수없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이이기 때문이다. 브르구만(Brueggmann)은 종교는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는 사회와의 만남(encounter)이다라고 했다. 종교 는 아직도 현실인식에 중요한 준거틀이 되고 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상에서 하나 님과 다른 창조물과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브르그만 (Brueggmann)은 공동체를 샬롬공동체로서 상호성과 공정성(Inequity)의 관계로 보았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주체적인 존제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것이다.[282] 즉 종 교를 사회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시범을 보인 교회이다. 그 교회에는 거듭 분석해 보아도 개체란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은 크리스천으로 모인 하나의 사회성을 지닌 모범적인 사회였다.

우리교회의 경우 영적인 면에 치중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 사회성에 소홀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인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며, 소기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늘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것 같다. 특별히 본 연구자가 전담하는 목회가 아니고 본인을 포함해서 세(3)분의 목사들이 "팀목회를 시도하는 형편이어서 유익된 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가끔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민생활 특히 한인교회의 경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이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하지만, 반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수평의 관계는 등한시 한 감이 없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 즉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교회는 종래의 답습적인 일방식 목회를 지양하고 사회성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총하여 체험과 협동의 신비성을 경험하게 한다.

이민 생활이란 항상 쫓기는 시간 속에서 피곤한 체력으로인하여 개인적인 신앙 관리정도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 교인을 상대로 한 훈련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사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282) Walter Brueggemann, *Living Toward A vision: Biblical Reflections in Shalom*(New York: United Church Press, 1976), 40-42

“너와 너 사이”의 관계성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283] 나아가 사회참여의 귀중성을 깨닫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사회의 삶 속에 심어 놓는 것이 우리교회의 실천할 과제이다.

니버 는 그의 저서<그리스도 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그리스도는 문화 아래 있으면서 문화에 대립했으며 문화위에 있으면서 문화의 변혁자가 되기도 했다."[284] 실제로 예수는 유대교 문화권에 살면서 유대교에 도전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 항거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는 문화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문화에 반기를 들었고, 합당한 문화에는 역설적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로 유도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항상 세속문화 속에서 두 가지 형태를 보이지않으면 안된다. 그 하나는 이상적 모델로서의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그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한 개혁자로서의 새 기능을 지닌 교회이다.

“변혁자”(Transformer of Culture)이신 그리스도 [285]의 능력과 삶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들 속으로 뛰어 들어, 그것의 변혁을 위하여 “주체자”로 일해야만 한다. 여성은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생리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여성의 강인한 생명력과 어머니다운 포용심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공동체의 초석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나님 나라의 수직적 관계에 편중된 성도들의 삶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함께 더불어 동역(partnership)하는 수평적인 삶으로 확대되는 바를 지향하고저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간에 서로 섬기며, 이웃 및 지역공동체 속에서 봉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 하는 것이 선교적 차차원에서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교회 교인들의 의식구조를 분석해 볼 때, 전도가 보이지 않는 난감한 상태였다. 그길은 이민생활의 안정도가 구축되지 않은 것과 그리고 한계성의 문제이다. 인간을 자아본능의 욕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인교포들에게 이 두가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에 오게 된 심리적 동기가 각기 다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옛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여 찾아 왔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

283) Martin Buber, *Ich und Du*,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New York: Charles Scribness Sons, 1970), 17.
284)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1), 45-148.
285) Ibid., 190 -229.

게다가 한국 이민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주변 상황에서 돌출하므로써 분출되는 심리적인 갈등의 심도가 높다. 특히 이민가족제도의 변화,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증가, 여성의 장시간 노동과 가사점담으로 이중의과로와 피로함과 여기에 달린 많은내면적인 적지 않다. 언어의 장벽과 상호분망한 생활로 말미암은 대화의 결핍으로 여기에 파생되는 심적 갈등 또한 농후하다. 그러면 교회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가?

"여성의 인간화를 요구하는 여성운동은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오랜 역사동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예속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와서는 여성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의식적 움직임이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286] 자유에 대한 이 격동적인 움직음은 여성들에게나, 다른 압제받는 두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을 비롯한 한인교회의 경우 과도기적 현상에서 아직도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여성 안수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예를 들면, 캐토릭교회나 침례교회 등). 그렇다고 여성들 자신들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관심한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내 재미이민 한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것 중에서 다음 란에 한인 가족제도 변화에 있을 문제들과 특별히 변화된 부부역할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인 가구형태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한인가구(Family Houshold)의 구성과 그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 한인들은 다른 민족이나 인종집단에 비해 매우 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남성세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인 가족 가구(Family Houshold)를 형성하고 있다. 1980년도 통계에 따르면 남성세대주와 그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한인의 경우 72%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인의 63%, 일본인의 61%에 비해 비율이 높다. 독신가구의 경우는 백인 26%나 일본 29%에 비해 한국인 17%이다.[287]

둘째로 이민 사회에서 한인 부부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정 윤리는 유교적인 기르침이 지배적이었다. 특별히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은 부부의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었다. 즉 남편은 가

286) 이효재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9), 3 .
287) Eui Young Yu,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in America and their Settlement Patters," *The Korean Community in America*, 21.

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되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요한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판단과 결의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아내는 남편의 생활을 내조하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의 일체를 책임지는 가정주부로서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여자가 혼전에 일을 하던 직장이 있었서도 결혼을 함으로 가정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민병갑 교수는 한국정부 통계를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1980 년대 한국정부 통계에 의하면, 14 세 이상 도시에 사는 여자 중 30%가 직장에 나간다. 그러나 이중 결혼한 여자의 취업율은 19%에 불과하다.[288]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한인 가족의 부부역할은 이민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것 중에 큰 한가지의 변화는 여성의 역할이다.

이민을 온 한인 가족은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1980 년도 통계를 보면 16 세 이상의 한인 여성 54%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56%가 기혼여성이다.이러한 한인여성의 취업률은 같은 미국내에 있는 미국태생 여성들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태생의 여성취업 비율을 보면 16 세 이상 여성 중 51%가 직업에 참여하고 그 중 49%가 기혼여성의 취업율이다.[289]

이러한 큰 변화의 원인을 민병갑 교수는 다음의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는 한인 이민자의 미국노동 시장에서의 불리한 노동 조건 때문이다. 둘째로는 달러 가치의 귀중성에서 찾고 있다. 셋째로는 새로운 이민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념을 바꾼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290] 그러면 이러한 여성들의 높은 취업과 함께 그들의 전통적인 다른 부부역할 분담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가사에 관계된 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요소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그대로 남아있다. 둘째로는 가족의 중요한 삶의 내용과 방향결정에 대한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2 년 호교수에 의한 L.A.한인 가족 부부의 가사결정 역할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22%가 남편에 의하여 71%가 협의 가운데 그리고 7%가 아내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한국가족의 부부역할

---

288) 민병갑교수외 9 명, 47-150 .
289) Kye Young Park, "Sexism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미국속의 한국인:* , 민병갑교수외 9 명 편, 94-96 .
290) 민병갑외 9 명편, 214.

분담 중 결정권은 여전히 남성위주적인 경향이다. [291] 셋째로 재산권 소유형태를 보면 더 남성 위주인 것을 보게 된다. 박계영 씨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여성이 같이 노동에 참가하나 그결과로 얻는 소유에 대한 법적 명의는 남편 명의가 57%, 공동 명의가 29%, 아내 명이가 14%로 보고 있다. [292]

이러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종합적인 요인이 이민 한인 가족의 부부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들 중에 한가지는 부부이혼율의 증가란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다. 1980 년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한인 부부의 이혼율은 15 세 이상 1,000 명당 37 명이 이혼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국내의 경우 1,00 명당 6 명에 비하여는 월등히 높고 미국 태생 여성의 1,000 명당 72 명에 비하여서는 낮은 편이다.[293] 이것은 이민 한인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전제들의 보다 구체적인 실증을 얻기 위해 여성을 중심한 질문지법을 사용해 보았다. 본 조사 내용은 교인의 의식구조 실태 질문지로서 여성 12 명(60%) 남성 8 명(40%) 으로 하여 질문서 25 항을 취급하였다. 질문서중 남성 8 명을 취급한 것은 본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많은 것은 교회의 여성 수가 70%이상이라는 것을 참고 했다. 다음란에 시태조사 도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291) Ibid., 214.
292) Kye Young Park, 96
293) 민병갑, 210.

본 조사는 질문서법과 interview 법을 병행하였다.

총 설문지 배부수 20 부, 회수 20 부(100% 응답)

표 2. 나이별

나 이	실 수		합계(%)
	여(%)	남(%)	
20-29 세	---	---	---
30-39 세	---	1(5%)	1(5%)
40-49 세	2(10%)	2(10%)	4(20%)
50-59 세	4(20%)	3(15%)	7(35%)
60-69 세	4(20%)	1(5 %)	5(25%)
70 세이상	2(20%)	1(5 %)	5(25%)
합 계	12(60%)	8(40%)	20(100%)

연령분포를 보면(표 2) 50~59 세가 7 명으로수위이고 다음이 60~69 세이며, 그 40~49 세, 70 세가 5 명 그리고 30-39 세가 1 명으로, 30 대에서 70 대 사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리측정을 시도해보았다.

표 3. 학 력

학 력	실 수		합 계(%)
	여(%)	남(%)	
무학	1(5 %)	---	1(5 %)
국졸	---	---	---
중졸	---	---	---
고졸	3 (15%)	1(5%)	4(20%)
대졸	7 (35%)	5(25%)	12(60%)
대학원 이상	1 (5%)	2(5%)	3(15%)
합 계	12 (60%)	8(40%)	20(100%)

(표 3)은 학력분포로 무학에서 대학원으로분포 되었으나 학력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거의 같거나 높은 것을 나타낸다.

도표 4. 교회직분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장로	1(5%)	2(10%)	3(15%)
권사	6(40%)	1(5 %)	7(35%)
안수집사	1(5%)	---	1(5 %)
서리집사	3(15%)	2(10%)	5(25%)
평신도	1(5 %)	3(15%)	4(20%)
합 계	12(60%)	8(40%)	20(100%)

(표 4)는 교회직분포로 평신도부터 장로에까지 분포되었으나 권사가 수위이고, 다음이 집사이고, 평신도가 4 명이고, 장로가 3 명의 순위이다. 여성들의 참여도 남성보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

표 5. 한국교회의 70%는 여성이다. 그러나 행정권이 없다.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시정해야 한다.	12(60%)	7(35%)	19(95%)
그대로 좋다	....	1(5%)	1(5%)
무관심이다.	....	.....	....
투쟁해야 한다.	....	....	....
합계	12(60%)	8(40%)	20(100%)

여성이 반수 이상을 상회하는현 한인교회에서의 남녀의식과 심층도를 측정헤 보았다. "시정해야 한다"의 실수가 여자가 12 명으로 60%이고 남자가 7 명으로 35%으로 나타났는 데, 역반응의 현상을 보여 준다.

표 6. "여자는잠 할지니라"(고전 11:34) 라는 이 성경귀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1)성경적이다.	3(15%)	2(0%)	5(25%)
(2)그 지방의 특수 사정이다.	5(25%)	3(15%)	8(40%)
(3)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3(15%)	2(10%)	5(25%)
(4)성차별의 문제다 .	---	---	---
(5) 잘 모르겠다.	1(5%)	1(5%)	2(10%)
합 계	12(60%)	8(40%)	20(100%)

위의 조사 도표(도표 6) 를 주의 깊게를 간찰해 보면, "그 지방의 특수 사정이다" 가 여성이 상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성경적이다"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이다. 여성들이 아직도 문자적으로 성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지방의 특수 사정이다"가 우위이지만 내면적으로 아직도 여성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결여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교회여성의 의식화 개발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응답내용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성(%)	
(1) 기도한다.	---	1(5%)	1(5%)
(2) 교육한다.	8(40 %)	5(25%)	13(65%)
(3) 올 바른 성서이해	4(20%)	2(10%)	6(30%)
(4) 의식에 잠재한 병을 치료한다.	---	---	---
(5) 여권신장을 한다.	---	---	---
(6) 가부장제를 폐지한다.	---	---	---
합계	12(60%)	8(40%)	20(100%)

(표 7)에서 가장 수위가" 교육한다"가 65%로, "올바른 성서이해"가 30%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두 구분 다 더 높다. 의식화의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 주는가?라는질문을 해 볼 때, 우리의 비전과 가능성의 과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안에서 찾을 수있는 결론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정의, 사랑, 평화의 나라)의 도래를 외친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진실은 민중의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다. 예수 님의 성육신은 모든 사람들, 즉 민중들을 그 노예 상태인 기근, 비참, 억압과 무지, 곧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모든 부정의와 증오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그의 오신 목적에서 이미 밝히셨다(사 61:1-2,눅 4:18).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와 새 생명을 위해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상처를 당하셨다.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The Wounded Healer)이시다. 여성들의 외로움과 소외됨과 눌림과 분리됨은 곧 그들의 상처이다. Nouwen 은 "우리 자신의 상처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근원(Source of Life)이 될 수 있다"고 했다.[294]

Clinebell 에 의하면,"모든 창조적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의 근본 목표는 인간의 온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295] 개인의 성장은 그 사람이그러한 그러한 성장을 통해 타인과 연대하여 사회.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여성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치료케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이다. 그 치료는 여성이 자기 치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일인것이다. 여기 신앙공동채의 과제가 있다. 럿셀은 교회공동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교회란 성차별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복된 소식이 설교되는 곳이며, 가부장제로 부터 출애굽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며, 서로 돕는 새 삶에 뛰어 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더불어 양육되는 곳이며, 그 공동체가 이러한 비전과 투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곳이다."[296]

본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의식화 를 통해 여성들의 억압으로부터 침묵을 깰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의식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있으며 여성의 인간화를 성취하기 위한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줌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면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 여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치료의 힘에로 분출 하도록 여성을 해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

294) Henri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Minisrty *in Comtemporary Society*(New York: Image Books Dougleday,1979), 87.
295) Howard Clinebell, *Contemporary Growth Therapies*. trans. Jong Hun Lee(Soul: The Presbyterian Churchof Kore,1990), 22.
296) Letty M. Russell, " 성차별주의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간을 위한 선교와 교회공동체," 김윤옥 편, *여성들을 위한 신학*, 396.

D. 정치적. 경제적 연구

1 . 정치적 연구

여성은 여성이라는 신분으로 두가지 경제적 수탈을 당한다. 즉 자본주의와 또 하나의 남성위주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점으로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남자의 절반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하면 심지어 여전도사의 경우 3 분의 1 밖에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경제적 모순을 어데서부터 파생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전제할 때, 정치와 경제를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를 그 나라의 통치권의 지배하에서 법을 준수하며 경제수행을 해야 하므로 국가의 흥망성쇄에 따라 경제도 영향을 받으며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정치는 권력의 행사(行使)라고 하며 강력한 power(힘)의 역동체라고 한다.

기독교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교회는 인생의 전성기와 세속의 모험의 절정기에 있는 수천명을 빈곤과 금욕, 기도로써 구원을 얻도록 수도원에 가두어 놓을 수 있었다. 또 왕들로 하여금 정욕의 대상인 힘들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들끼리 싸움을 만류하지 못했고 영주들의 횡포를 억제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인(burgesses), 자치도시(borough)에 대한 포악한 통치를 유화통치로 이끌지 못했다.[297] 그러면서 교회는 남성중심의 제도정치를 강화하여 여성들을 족쇄에 묶어 놓음으로써 교회에서의 활동을 통제하다시피 했다.

남성은 여성들에게 양순과 복종, 그리고 여성자신의 뜻을 남성의 수중에 맡기는 것이 성적 매력의 본질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그 수단을 이용했다.[298]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남성에 의한 피동체나 혹은 애완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여성들이 성서 속에서 자신을 찾은 진지한 작업을 하므로 여성신학자들과 교회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현실 이민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한인교포들의 미국에서의 정치참여는 어떠한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주 한인이민사를 살펴보면 한인이민의 주된 동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동기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경제적 자립, 둘째는 정치적 안정, 셋째는 발전되 교육을 목적

---

297) John Stuart Mill, *여성의 예속*. 김예숙역 (서울:이화여자대학교, 1986). 54.
298) Ibid.. 63.

하는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런 주된 동기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이민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처하여 있는 그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한인교포의 이민사는 1902 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교포들은 과거 20 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했다. 그러하지만 한인교포들은 짧은 기간사이에 비약하여생활기반도 닦았으며 일류대학의 입학률은 아시아계 중에서도 최고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299] 그러나 한편 이 민 경력이 짧기 때문에 [300] 교포의 권익보호와 포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참여의 역사가 짧다. 1979 년에서 1980 년 기간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종교적인 예배이고 , 둘째는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이고, 셋째로는 사회적인 교제를 위하여 나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301] 한인교회의 질적인 교회상을 찾아 볼 때 오늘 한인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로 사도전승적인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볼 때 , 한인교회는 샤마니즘적인 기복신앙 에 깊이 빠져있다. 둘째로 보편적인 교회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인교회는 지나친 분열과 대립의 양상에 빠져있다. 셋째로 거룩성이란 신앙의 순수 실천의 과점에서 볼 때 한인교회는 지나친 관료적인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 깊이 빠져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인교회의 문제는 곧 한인사회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는 한민족의 이민사와 같이 한 "한인공동체의 센터"이었기 때문이다.[302] 복음의 메신저로 찾아온 선교사의 안내로 보다 복된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이민의배를 탄 한인 이민 사회는 버려야 할 구습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할 복음의 새삶을 입어 아름다운 축복의 새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교회는 다시 본래적 교회의 질적 사명을 회복하여 많은 어두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위로만 아니라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 참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그러하지만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아시아제 미국인들은 미국 선거저읮에 있어서 흑인, 유대인, 남미계 등다른 소수민족들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포 함한 아시아게는 타 인종들에 비하여 소수민족 사회에서나 자신들 일터에서 잡음을 피하고 평

299) 민병갑, 220.
300) Eui Young Yu, 17-18.
301) Won Moo Hurh, "Korean Immigrants and Religious Participation," *The Korean Community in America*, 163
302) Huo Keun Yoo, "Korean Churches in North America," *Korean American Ministry*, ed.,Sang Hyun Lee, 51-54.

온하게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연구자의 질문지법 실험에도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표 24. 귀하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관심이 많다	6(30%)	4(20%)	10(50%)
무관심이다	3(15%)	2(10%)	5(25%)
모르겠다	3(15%)	2(10%)	5(25%)
합 계	12(60%)	8(40%)	20(100%)

위의 표 24 에서 "귀하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서 10 명이 "관심이 많다" 혹은 "어느정도 있다"로 50%로, '무관심" 그리고 "어느정도 무관심"를 하나로 묶으면 10 명으로 50%이다. 표 24 에서 "관심이 많다" 남녀 50%인데 비헤, "무관심"과 "모르겠다"가 50%로 동점으로나타나났다. 여성이 여성중에서 50%가 "관심이 많다" 고 한 것 은(12 명 중 6 명), 남성 8 명 중 4 명의 66% 남성 보다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므로 분망한 시간에 그런 시간적 겨를이 없었겠으나 설사 생할의 안정을 이룩한 사람일찌라도 문화적인 갈등, 언어의 장애 등올 정치참여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남성에 비해 더 무관심상태라고 해도 관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재래식 여성관념으로 남성에 비해 정치.사회성이 대개 결여 되어 있을 뿐더러 이민생활에서 더 쫓기고 일에 시달리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정치적 공적 신분에 있는 삶을 살펴보면, 미국전역에서 시장이 16 명, 상원의원 2 명, 하원의원 3 명인데 그 중 13 명이 일본계이며 4 명이 중국계로 알려져 있고 한국계는 아직 없다 .근래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 여성들은 정치를 도외시 혹 은 무관심 상태인 것 같다. 교회가 개인 구원이나 가족구원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 미주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끼리 끼리 뭉쳐 사는 것이 아니라 미주 속에 흩어져 살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를 심어야 한다. 그 거창한 과제가 우리 교회 여성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2. 경제적 분석

교회여성에게는 정치면과 더불어 경제부문에 이중 부담이 있다. 이민생활에는 부부가 맞벌일이를 해야 가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주부에게는 더 하나의 이중 부담이 초래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성찰 네용은 이미 "배경이론" 의 "미국사회 속의 한미여성의 위치와 역할"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중복을 피하고 몇가지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 한국 이민여성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 주변의 일각에서 알고 있는 여성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민여성의 취업실태를 미전역에 결쳐 조사한 자료가 없으나 김광정, 허원무씨가 수년전 공동으로 L.A. 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67.9%로 그 당시 백인기혼여성의 취업률(48.5%)이다. 흑인 기혼여성의 취업률(59.7%)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이민여성들의 직종별을 보면 34%가 자기 사업(소기업)을 경영했으며, 30% 가 불루칼라 또는 노동직, 나머지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직에 봉사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거의가 매일 8 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는 주말을 막론하고 평일 10 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견지에서 고찰해 볼 때 이민은 한국여성에게는 한국서 보다 더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민 온 한인여성의경우 허약자나 고령자 혹은 특수 사정(직장에서 일시 쉬는 사람)에 처한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인여성에의 직업의 성향은 연령별에 따라 각기 각종의 양상이 나타났다.20~30 세 계층은 사무실, 야채가게 Casher 로 일했고, 40~50 세 계층이 봉제공장 또는 자영사업이며 30~50 세 계층의 여성들은 Nail 싸롱, 그리고 60~70 세계층은 아이보기, 밑반찬, House Keeper 드의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우리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여성들의 직종도 그러하며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 수록 직능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므로 경제력도 확보하게 된다. 여성이 경제력 확보는 여성의 경제독립을 의미하며 아울러 가정에서의 권리가 상승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가정에서는 가사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303] 미국 가정문제 연구소가 1 백 62 쌍 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남녀평등이적극적으로

303) 민병갑, 210.

집안일을 4~5 시간 더 소비하고 있다.[304] 즉 풀타임 직장과 풀타임 가정일의 이중부담이 더우기 주목할 만 현상은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 자신도 직장에 나가든, 안나가든 집안일을 원칙적으로 아내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본 연구자의 질문법설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여성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5 개의 질문(도표 8-12 번)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전통적 여성관을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응답했다.

표 8 . 부부이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조사(설문 8-12)

설문내용 : 구분	완전 동의	어느정도 동의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어느정도 반대	완전 반대	총계
8.부인의 직업이 남편이나 일이나 아기 기르는 일에 지장을 줄 경우 일포기한다.	1 (5%)	9 (45%)	3 (15%)	5 (25%)	2 (10%)	20 (100%)
9.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4 (20%)	12 (60%)	1 (5%)	3 (15%)	-- --	20 (100%)
10.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2 (10%)	10 (50%)	1 (5%)	1 (5%)	6 (30%)	20 (100%)
11.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	-- --	11 (55%)	-- --	4 (20%)	5 (25%)	20 (100%)
12. 부부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요리, 설겆이 등 집안일을 아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해야 한다.	8 (40%)	8 (40%)	2 (10%)	2 (10%)	-- --	20 (100%)

위의 설문 표 8 과 9(구분 8, 9)는 남편은 밖에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일과 아기 기르는 일을 맡아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의 분리를 묻고 있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두 문항에 완전히 혹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설문 10(구분 10)과 11(구분 11)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재래의 인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 응답자의 거의 55%가 동의하고 있다. 특별히 약 60%의 응답자가 "가정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완전 혹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직도 유교의 부부역할 분업의 관점이 그대로 있는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가사에 관계된 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요소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상의 고찰에서 여성이 한국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직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이중부담

304) 한국일보, *미국가정문제 연구소*(뉴욕:1989.11.10)

으로 역현상이 표출된다. 이같은 현상은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재미한인가족이 아직 미국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한국적 가정의 재례방식을 답습하는 남성우월주의 작용이라고 본다. 이것 역시 본 연구자의 질문법설문에서 분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인여성은 가정에서도 불균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작업이 우리교회의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이다.

IV.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STRATEGIES FOR GOAL ACCOMPLISHMENT)

A. 목 표 설정 (GOAL SPECIFICATION)

여성지도력을 위한 의식화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다음의 3 가지 변화 목표를세웠다. 그 목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지도자로서의 의식화, 2. 부름받은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위하여 3.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이다.

목표 I.

1. 변화목표 : 여성 지도자로서의 의식화

여성은 창조의 "완성"(Completer)을 위해 하나님의 "보조자" (Helper, Servant)로 창조되었다. 크리스천 여성들은 Co-Creators (창 2:18,눅 1:48-55))로서 교회의 온전과 새 세상 창조를 위해 그리스도의 종 과 사도들(마 22:28,눅 24:1-10, 엡 2:20)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각성하고 교역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을 깨우쳐야 한다.

교회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오랜 연륜으로 굳어진 의식임으로 단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의 문제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4 개의 사항들을 여성의식화 개발을 위한 시행전략으로 삼고 전력을 경주하였다.

2. 행정상의 목표(Administrative Goal)

성차별, 인종차별,계급차별을 지양하고, 남녀의 Partnership 을 지향하는 교회개혁의 목표에 대하여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성서연구, 교육, 세미나, 특강, 문서 및 상담을 통하여 의식화를 개발하려고 한다.

1). 성서 연구를 통한 의식화의 개발

성경은 교인들을 바로 깨닫게 하여 바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마가복음 13:14)라는 말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창세기(2:18), 갈라디아서 (3:27-28) 와 구약의 지도자들(미리암, 라합, 드보라, 에스더 등), 예수의 여제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롬 16:1-16)에 관한 성경을 배우며 연구함으로써, 여성지도자들의 모델을 발굴하여,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줌과 동시에 의미를 부여하여 각성케 한다.

2008 년 6 월 부터 9 월 까지 매월 4 째 주일에 1 회 설교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다.

1). 6 월 여성 평등성과 동역성에 대한 설교........."돕는 배필" (창 2:18)
2). 7 월 예수의 여성 제자직을 위한 .... "예수의 발 아래 여인"(눅 10:38-42)
3). 8 월 여성의 사도직을 위한 설교.................. "교역자 뵈뵈"(롬 16:1-16)
4). 9 월 성서적인 이상적 지도자 상.................. "섬기는 지도자"(막 10:45)

왜곡된 편견과 사고, 습관 등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성서"의 효력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및 한미교회여성들은 생존에 바쁘고 지쳐서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직 과도기이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의식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인은 여성들의 수동적인 역할에 익숙해 있고 변화에 대한 거부적인 의식을 감안하여 말씀선포에 주력한다

2). 교육을 통한 의식화의 개발

교육은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특강과 세미나, 은사 검사를 통하여 교육하므로써, 여성의 잠재된 달란트를 발국하도록하며 이를 활용하게 하므로서 비전을 심어준다. 교육의 필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한다. 예수님께서도교육환경(teaching situation)속에 연루 되시곤 하신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교육환경에 대한 것들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심(요 4:1-4)이나 지상명령(至上命令)을 가르치심(마태복음 16:13-28) 등이 있다. 특강과 세미나를 통하여 본격적인 교육을 하므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서관을 확립토록 하며, 자기의 위치를 찾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자아를 격하시켰던 자기비하의 의식에서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1). 특강을 통하여 올바른 성서관을 갖도록 교육한다.

한국교회나 본 교회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문자적인 표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통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이야기나 받아 내려온 전통 전통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해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 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특강을 통하여 교육을 하며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경읽기에 관하여 특별교육을 시도해 본다.

(2). 세미나를 통하여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여성의 잠재의식을 깨우치고 교육한다.

여성들을 억압 속에 서 비인간화시키고 종속시킨 한국의 가부장제적 전통속의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여성의 잠재의식을 깨우치고 교유한다. 아울러 성서속의 숨겨진 위대한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사역의 모델로 제시하며 교육한다. 예수께서도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여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으로 지도하였다. 공중의 새, 들의 백 합화, 포도나무 등을 들어서 시각교육을 했는가 하면 우상과 형식에 치우 친 바리새인 과 서기관을 지칭하여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실제적인 교육을 하셨다. 무식하고 거칠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영적. 지적 교육을 통하여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받아 새로 운 인격체가 형성되었다[305] 이처럼 교육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교회의 경우 생활에 쫓기고 분망하다 보니 자녀교육도 그러하거니와 교회에서의 교육이란 거리가 먼 상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유목사로서의 본인의 나태함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이번 연구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힘써 보겠다.

305) Herman Herrell, *예수의 교육방법*, 박영호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21-26.

세미나의 이 부분에서는 교회여성의 깊이 잠재된 의식을 깨우치는 의도에서, 성서 속에 나 타난 여성지도자 인물들을 소개함으로써 일말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성서속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남성지도자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자극이 되어 교육의 성과를 올리게 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 여성들의 사명을 깨우치기 위해 "교회와 여성운동"에 관하여 세미나를 한다.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정보를 얻기 위해 20 명에게 설문지로 조사한다.

2008 년 7 월 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저녁 예배시간에 다음과 같이 성경공부를 실시 한다. 이로써 성서 속의 여성지도력에 대하여 여성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의식화를 시도하였다. 여성의 지도자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성서연구를 6 회 수행하였다. 이 성경 공부에 참고 재료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편.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 김윤옥편.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초판 1988, 2 판, 1991.

(3) 크리스챤아카데미 신학연구소위원회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7 월 : 선지자 미리암 .... (출 2-15 장, 민 12 장)
8 월 : 사사 드보라..(삿 4-5 장)
9 월 : 메시아를 고백한 마르다 ....(요 11:17-44)
10 월 : 사도 중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마 28:7, 막 16:9)
11 월 : 감독, 교역자 뵈뵈.................................(롬 16:2)
12 월 : 교사 브리스길라................................ (행 18:18,딤후 4:19)

의식화의 연구의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성서연구를 구약과 특시 신약에서 초대 교회의 여성지도력에 초점 두고 성서해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 예수의 제자는 남성 12 제자 뿐인가?
— 예수의 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예수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어떠 하였나?
— 예수는 여제자들이 있었나?
— 초대교회 제도속에서의 여성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었나?
— 바울의 여성관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 성경공부와 연구는 진지했으며, 한편 의문이 돌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계가가 되도록 하였다. 더우기 간단한 선다형식의 질문지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보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본다.

(3). 문서를 통한 의식화의 개발

교인들에게 신앙양서를 읽도록 권장하므로서 "여성도 지도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긍지와 가능성을 갖게 하여 남성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육성한다. 글은 지식을 넓혀 주고 상상력도 상승케해 주며 반복해서 계속 읽을 수 있어 기억하기 좋으므로 점진적 의식화 개발에는 효과적인 촉매작용이 될 수 있다.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책들을 읽게하여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여성지도상"을 회복도록 한다.

2008 년 7 월 부터 8 월까지 행정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1) 7 월 교회내 도서실에 작은 문고를 설치하여 독서를 장려한다.

(2) 7-8 월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장로교 여성사*][306) [*성령충만한 여인*][307) 등의 책들을 읽게하여 여성의 긍지를 심어주며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었다. 이상의 두 책에서 여성지도자상을 부각시키며 교인들에게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4) 상담을 통한 의식화의 개발

내방, 심방, 상담을 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성 스스로의 지위를 찾도록 협조해 주며 지도한다. 여성들은 지나치게 남을 양육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기술만을 계발하고 , 남성지배적인 사회풍토 때문에 자신의 많은 다른 잠재력의 계발은 억제 당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심리상태가 왜곡되고 많은 여성들이 치료를 호소하는 결과를 빚었다.

모든 창조적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모든 상담과 심리치료의 근본 목표는 인간의 온전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각종 심리치료란 과거의 고통스런 체험이나 복합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성장이 극심하게 위축된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신들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일 따름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집단 활동은 소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풍성하게 활용하도록 그리하여 창조력을 높이도록 해 주는 수단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핵심과제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창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일깨워 주고, 그 희망을 그들이 실현하도록 돕는데 있다.[308) 이를 위하여 내방, 심방, 상담을 통하

306)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1979).
307) Beverly LaHaye, *The Spirit Controlled Woman*, trans., by Eunys Riew (Irvine, CA:Harvest House Publishers, 1976).
308) Howard Clinebell, *현대성장상담요법,* 이종헌역(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1990), 22.

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성 스스로의 지위를 찾도록 협조해 주며 지도 한다

2008 년 8 월 부터 2009 년 1 월까지 다음과 같이 행정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한다.

(1). 목사실을 개방하여 수시로 내방하여 상담케 한다.

(2). 내방할 수없는 교인들에게는 전화나 이메일로 상당하도록 한다.

(3). 상담의 방법으로 지시적 상답과 비지시적 상담을 사용한다.

(4). 주로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상담을 시도한다.

(5). 상담이 필요한 교인에게는 목회자가 직접 심방하여 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6).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하는 교인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자를 소개했다.

(7). 상담을 통하여 여성의 은익된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하여 의식화의 교육을 촉진시켰다.

(8). 때에 따라서는 그룹으로 상담을 시도했다.

목회에 있어서 상담이 주는 비중은 크다. 설교는 전 교인 상대로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것이지만, 상담은 개인상대의 교육이므로 신앙과 교육 등의 2 중 3 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제시해 주며 의식화교육을 하므로 환경적응에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심방이란 보편적으로 언급하면 상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심방은 전 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을 상대로 하며, 이런 경우 가정의 신상문제를 털어 놓고 심방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도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상담의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면접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치료면접(Treatment interview)이라고 불리워지며, 이것은 단순한 기술용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상담(Counseling)이라는 용어인데 점차로 일반화 되어 특히 교육계에서 사용된다. 칼 로저스(Carl R.Rogers)에 의하면, 상담이란 우연적이고 표면적인 면접에 대해서 씌어지는 경향이 있고, 정신요법이란 말은 심층면에서의 인격의 재 체제화를 목표로하고 한층 더 강력하게 장기간을 통해서 갖는 계속적인 면담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309] 효과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이해하게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상담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시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일장 일단이 수반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상담방법을 모두 수용하여 실효성을 기두도록 추진하며 힘써 보았다.

309) Carl R. Rogers, 한승호역,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지문각, 1969), 17.

목표 II.

1. 변화목표 : 부름받은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만민을 해방시키셨으며 그리스도는 포로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안의 참 인간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있다. 성령의 선물은 남녀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들(Spiritual Gifts)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조화있게 활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기쁜 속식을 전하며, 예언자적 외침을 계속하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새질서에 참여해 질서에 참여 해야 한다.

2. 행정상의 목표 (Administrative Goal)

여성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들(Talents)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교회와 사회변혁에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교강론, 성서연구, Workshop, 수양회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기회를 만든다.

의식화 교육에서 우리가 자아 의식을 갖고 동기를 얻었다 할찌라도 무엇을 어떻게 어느면에서 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적당한 자기의 위치를 발견. 확보하게 하게 하였다. [성령충만한 여인]은 자신의 은사를 찾아 볼 수 있을 뿐더러 자기의 적당한 봉사의 분야를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책 속에 있는 질문지들을 배부하여 집에서 조용히 심사 숙고하여 답을 준비하고 웍샵을 통하여 서로 비교하며 대화를 통하여 서로 협력한다. 그리하여 은사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은사와 교회봉사의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1). 2008 년 9 월, 첫째, 둘째 주일 성경을 토대로 한 2 회의 집중적인 "성령의 은사" 에 대한 연구와 웍샵을 통하여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할 것인지 격려하며 협조해 준다.

2) 2008 년 12 월 3 째 주일 저녁 예배에 전 교인 Talent Show 로 은사(Talent) 발표회를 가진다.

3). 2008 년 10 월 4 째주일을 "여성교회" 주일로 온 교회가 지키며 모든 예배순서를 여성 회원들이 진행하도록 참여시킨다.

4). 2008 봄(부활절)과 가을(추수 감사절)과 겨울(성탄)계절을 기하여 락빌교회 여성목 회와 인도네시아 Ora Et Labora 교회 독신녀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통신, 헌물, 친선 방문 등을 통하여 외국선교를 지향한다.

5). 2008 년 9 월 여성목회 선교부에 네 봉사그룹을 편성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a.본 교회 내의 봉사그룹, b. 한인 이민사회 워싱톤 지역 : 한인 봉사회, 양노원, 청소년 선도, 빈민구제, c. Rockville 지역사회 그룹, d. 세계적인선교 그룹).

6).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여성의 정책기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며, 교회의 기관인 당회, 이사회, 교육부와 선교부에 여성위원들을 참석케 한다.

7).2008 년 10 월계절행사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이나 구제기관을 돕도록 계획한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8). 2008 년 11 월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의 50%를 1 여신학생을 장학금으로 한다.

목표 III.

1. <u>변화목표</u> :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역하는 샬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전인적,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교회제도를 제거 혹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현한다.

2. <u>행정목표 (Administrative Goal):</u>

교회와 사회 봉사를 위해 남성과 여성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조를 개발하여 여성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동역하도록 계획한다.

1) 2008 년 8 월 부터 여성교회 회원(회장)이 제직회와 당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2) 2008 년 9 월부터 10 구역중 50%이상을 여성들이 구역장을 담당하게 한다.

3) 2008 년 9 월부터 2009 년 1 월까지 매월 4 째 주에 (노년)여성들의 이민적응을 위해 2 세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반을 실시한다.

목표 II.

1. 변화목표 : 부름받은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만민을 해방시키셨으며 그리스도는 포로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안의 참 인간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있다. 성령의 선물은 남녀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들(Spiritual Gifts)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조화있게 활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기쁜 속식을 전하며, 예언자적 외침을 계속하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새질서에 참여해 질서에 참여 해야 한다.

2. 행정상의 목표 (Administrative Goal)

여성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들(Talents)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교회와 사회변혁에 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교강론, 성서연구, Workshop, 수양회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기회를 만든다.

의식화 교육에서 우리가 자아 의식을 갖고 동기를 얻었다 할찌라도 무엇을 어떻게 어느면에서 봉사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적당한 자기의 위치를 발견. 확보하게 하게 하였다. [성령충만한 여인]은 자신의 은사를 찾아 볼 수 있을 뿐더러 자기의 적당한 봉사의 분야를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책 속에 있는 질문지들을 배부하여 집에서 조용히 심사 숙고하여 답을 준비하고 웍샵을 통하여 서로 비교하며 대화를 통하여 서로 협력한다. 그리하여 은사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은사와 교회봉사의 자기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1). 2008 년 9 월, 첫째, 둘째 주일 성경을 토대로 한 2 회의 집중적인 "성령의 은사" 에 대한 연구와 웍샵을 통하여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할 것인지 격려하며 협조해 준다.

2) 2008 년 12 월 3 째 주일 저녁 예배에 전 교인 Talent Show 로 은사(Talent) 발표회를 가진다.

3). 2008 년 10 월 4 째주일을 "여성교회" 주일로 온 교회가 지키며 모든 예배순서를 여성 회원들이 진행하도록 참여시킨다.

4). 2008 봄(부활절)과 가을(추수 감사절)과 겨울(성탄)계절을 기하여 락빌교회 여성목 회와 인도네시아 Ora Et Labora 교회 독신녀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통신, 헌물, 친선 방문 등을 통하여 외국선교를 지향한다.

5). 2008 년 9 월 여성목회 선교부에 네 봉사그룹을 편성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a.본 교회 내의 봉사그룹, b. 한인 이민사회 워싱톤 지역 : 한인 봉사회, 양노원, 청소년 선도, 빈민구제, c. Rockville 지역사회 그룹, d. 세계적인선교 그룹).

6).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여성의 정책기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며, 교회의 기관인 당회, 이사회, 교육부와 선교부에 여성위원들을 참석케 한다.

7).2008 년 10 월계절행사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이나 구제기관을 돕도록 계획한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8). 2008 년 11 월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의 50%를 1 여신학생을 장학금으로 한다.

목표 III.

1. 변화목표 :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역하는 샬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전인적,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교회제도를 제거 혹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현한다.

2. 행정목표 (Administrative Goal):

교회와 사회 봉사를 위해 남성과 여성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조를 개발하여 여성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동역하도록 계획한다.

1) 2008 년 8 월 부터 여성교회 회원(회장)이 제직회와 당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2) 2008 년 9 월부터 10 구역중 50%이상을 여성들이 구역장을 담당하게 한다.

3) 2008 년 9 월부터 2009 년 1 월까지 매월 4 째 주에 (노년)여성들의 이민적응을 위해 2 세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반을 실시한다.

B.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목표 1

변화목표: 여성 지도자로서의 의식화

여성은 창조의 "완성"(Completer)을 위해 하나님의 "보조자" (Helper, Servant) 로 창조되었다. 크리스천 여성들은 Co-Creators (창 2:18,눅 1:48-55))로서 교회의 온전과 새 세상 창조를 위해 그리스도의 종 과 사도들(마 22:28,눅 24:1-10, 엡 2:20)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각성하고 교역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을 깨우쳐야 한다.

행정목표 (Administrative Goal):

1). 2008 년 7 월 3 째주일 교역자회의를 통하여 본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를 이해 시키고 이를 연구 기간동안 교회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행할 것을 동의하였다.

2). 여성의 이상적인 역할을 위하여 2008 년 8 월 21 일 "돕는 배필" (Creative Helper)(창 2:18)의 제목으로 설교하여 여성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과 동등성을 경험하게 했다.

3) 2008 년 9 월 18 일 교회 여성의 섬기는 지도자적 삶 (Servant-Leader)(막 10.45)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여성들의 성서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교했다.

4) 2008 년 10 월 "한국여성의 오늘과 내일의 과제"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 강연 내용은 1989 년 11 월 25 일미국장로교 총회 재미 전국여선교회산하 수도노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웍샵(Baltimore Days Inn)에서 본 연구자가 "한국여성의 오늘과 내일의 과제" 에 대해서 했던 주제강연 내용과 같다. 이 강의에도 본 교회 여선교회 임원들이 참석 했고 다른 교회의 많은 여선교회 임원들인 여성들과 함께 큰 자극과 더불어 주체성과

책임감을 의식하는 경험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표 II.

변화목표 : 부름받은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은 만민을 해방시키셨으며 그리스도는 포로를 해방시키셨다. 예수 안의 참 인간됨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에 있다. 성령의 선물은 남녀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들(Spiritual Gifts)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조화있게 활용해야 한다. 여성들은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통해 기쁜 속식을 전하며, 예언자적 외침을 계속하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새질서에 참여해 질서에 참여 해야 한다.

행정목표 (Administrative Goal):

1).2008 년 구조 변화를 위해 본 연구반원의 일부를 교육위원회 연구원으로 지명하였다. 김정숙 집사를 총무로, 나영주을 한글학교 교장으로, 홍성남 성인성경 교사로, 황인원 사모를 유치반 원장-교사로 봉사하게 했다.

2). 9 월 3 째주부터 10 월 2 째주까지 4 주간 성서를 토대로 "영적 은사"(Gift)에 대한 강의 실시하며(매주 9.00am-10.00am), 2 회의 Workshop 을 통하여 은사 검사를 하고 그 은사 활용을 위한 사역장을 확보하였다. 아래는 은사검사를 위한 교제이다.

(1) "Beverly LaHaya, trans., Eunyes Riew(Harvest House, 1976). *성령충만한 여인.* In Korean by Word of Life Press,1978)

(2) Bruce Bugbe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 Work: Understanding God's Design for You in the Church. The Right People...In the right Places,,,For the Right Reasons. Participant's Guide* (Grandraph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3).11 월 4 째주 12 명의 여선교회 위원들이 영성을 위한 예배와 친목을 위해 West VA 에서 1 박 2 일의 수양회를 가지고 지난 일들의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할 계획들을 의논하면서 친목을 겸하였다. 모든 순서가 여성목회 예배부의 여성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의 체험을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목표 III.

변화목표 :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역하는 샬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전인적,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교회제도를 제거 혹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실현한다.

행정목표(Administrative Goal)

1). 2008 년 9 월 여성목회 주체로 2 세 자녀들을 영어교사로 초빙하고 노년여성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반을 매월 2 회에 걸쳐 1 째주와 3 째주일 예배후에 실시하여 여세대간의공통점을 가져 보았고,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의 자체성을 경험하였다.

2).12008 년 10 월 3 째주일 이민 여성들의 자신들의 갈등과 자녀들의 이해를 위해 저녁 예배 시간에 전 교인앞에서 패널 토의와 나눔의 시간을 갖었다. 이를 통하여 남녀 간,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를 도모 한다.

C. 시행전략 실행에 대한 평가

1. 평가 기준

1). 주제 설교, 강의, 세미나 등 사업의 계획과 실천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원에 의하여 평가된다.

2). 간단한 설문서를 통하여 현재의 의식과 신앙을 분석 평가한다.

3). 연구 과제를 실시한 설문서를 재차 실행 한 후 연구과제 시핸전과 실행후의 변화척도를 연구반에 의하여 평가하여 본다.

4). 교인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회중들의 반응을 통하여 평가해 본다.

본 연구 과제의 목적을 "여성 지도력에 대한 의식화 개발"에 두고 이를 변화 목표 3 가지를 설정하였다. 그 첫째는 성서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바른 의식화를 하는 것과 지도자로서의 자각을 가지는 것, 둘째, 이 자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도적인 구조에 대한 정비, 셋째로 이 신앙의 실천을 교회 밖으로까지 연결을 도모했다. 이런 과제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 본대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교회여성의 의식화 개발을 위한 과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추진하며 모색해 보려고 할 때 상상 밖에 장애의 요인들이 많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집요한 집념과 이를 관철하려는 신념이 본 연구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2. 평가 와 사정

목표 I : 여성지도자로서의 의식화를 위하여

<u>행정상의 목표(Administrative Goal):</u>

1). 성서 연구를 통한 의식화의 개발

성경은 교인들을 바로 깨닫게 하여 바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지침서(막 13:14)가 될 수 있다. 창세기(1:26-28), 갈라디아서 (3:27-28) 와 구약의 지도자들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예수의 여제의 여 제자들과 바울의 동역자들(롬 16)에 관한 성경을 배우며 연구함으로써 깨닫게 하며 의미를 부여하며 각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으로 듣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 있고 해방시키는 말씀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교회여성의 의식화 작업의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성서연구를 통해 억눌려 온 여성들을 해방해 보려고 했다.

성서연구의 방법에는 제 1 단계로 주제별 설교와 제 2 단계로 신.구약 성서 속에 파묻힌 위대한 여성지도자들을 발국하는 성경공부를 다루어 보았다. 성서를 바탕으로 하여 성서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성서연구에서 자신을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찾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며 각성케 했다.

Change Assessment

설교와 성서연구를 통한 두 가지 방안은 보편적으로 양호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1) 설교의 평가

여성을 주제로 한 7 회의 특별설교에서나타난 교인들의 반응도를 일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여성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인식시켜 주는 도전적인 좋은 설교”로 깨닫게 하며 긍정적인 표현으로 융통성을 보였다.

(2) 성서연구의 평가

여성은 남성(아담)의 갈비뼈로 남성(아담)의 ‘도울는 배필’로 창조되었고 남자보다 순서적으로 나중에 창조되어서 열등하며 수동적이어서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여성들의 지도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여성은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된다”라고 하는 몇 몇 구절들로 인하여 여성은 교회나 사회에서 남성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하며,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성서 속에 예수의 여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도, 예언자, 선생, 교역자

등의 여성지도자들 발굴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교회에서의 주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확신과 인식을 갖게 끔 되었다.

2) 교육을 통한 의식화

"평생교육"이란 말이 근래 교회주변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계속 성장해야 하므로 비롯된 말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1 회성이나 또는 몇 차례 시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강과 세미나를 통한 교육이라는 것도 최종적인 변화를 단번에 가져 올 수는 없을 것이나, 변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 역시 앞서 성서연구에 힘입어 마음을 넓히며 좋은 반응도를 보였다.

Change Assessment

특강과 세미나를 통하여 교인들은 진취적이며 의욕적인 면을 나타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한 의식화의 점차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1). 특강과 평가

특강의 "성경의 형성과 올바른 해석"에서 성경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성경을 분량적으로 많이 읽는 식의 과거의 습관을 지양하고 질적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2). 세미나의 평가

"한국여성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세미나는 교회여성의 깊은 잠재의식을 깨우치는 작용을 했다. 그러면서 여성자아의 삶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귀중함을 절감하는 태도로 반응이 나타났다.

3). 문서를 통한 의식화의 개발

교인들에게 신앙양서를 읽도록 권장하므로서 "여성도 지도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긍지와 가능성을 갖게 하여 남성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육성한다.언제나 이민생활에 쫓기는 교인들에게 독서를 장려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으나 이를 적극 권장하므

로서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독서의 환경을 조성하였고 독후감을 물어 책의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토록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은사를 검하는 질문에 답하므로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교회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자리를 갖게 하였다.

Change Assessment

교인들에게 추천한 [함께하는 여성신학] 과 [장로교 여성사] 등의 두 권의 저서를 필독하게 하여, 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경각심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두 책의 독후감에 반응된 표현으로서는

"성서 속에 그런 고귀한 여성지도자들이 있었는가?"

"억압된 삶속에서 께어난 여성지도자들이 있었는가?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는가?

등의 이런 의문의 감탄사가 연발되면서 "여성의 역할의 가능성'의 변화하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의 자아 상을 보다 승화시켜 보려는 의지가 농후하였다.

4). 상담을 통한 의식화의 개발

내방, 심방, 상담을 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성 스스로의 지위를 찾도록 협조해 주며 지도한다. 특히 교회여성들의 의식의 밑 바닥에 깔린 내면의 문제는 정신적인 면과 밀착되는 것으로 이들을 Counseling 의 요법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더욱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상담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내담자(Client, Subject, Counselee)가 새로운 선택을 적절한 행동으로 실제 실천으로 옮길 결심을 강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룬다면 그 상담을 성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unseling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과제에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전략을 펼때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문제였다. 가령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 온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려니와 그것이 연구의 과제로 취급하는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담에는 기술이 필요했다. 그 방법이 교역자가 심방형식으로 대상자를

찾아가 상담의문위기를 조성하여 자신의 문제를 깨우쳐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사된 상담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 선에 도달하게끔 되었다.

Change Assessment

효과적인 상담에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으로 상담할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본 연구자는 상담을 통한 의식화의 개발이 목적이므로 성경에 소개된 여성지도자들을 적절하게 인용 사용하였다.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한 이야기(사사기 4:4-24), 여교역자 뵈뵈 (롬 16:1-2)등을 소개하면,

"정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시대에도 여자를 귀히 사용했군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는데 힘써 일해야 겠어요."

이렇게 주고 받는 대화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깨달으며 새로운 변화의 결심을 보였다. 그리고 스스로 만연된 자기비하의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여성의 의식화의 개발이 필요함을 자가하는 경지에 까지 도달하게끔 되었다.

(1) 2009 년 2 월 현재 전여성의 60 % (60 여명) 이상이 "여성목회"에 소속, 참여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 소속,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2) 2009 년 1 월 부터 질문지 조사결과와 개인과 그룹 면접에 의하면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사도)으로서, 봉사와 섬김의 역활에 대하여 깨닫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동기가 급증한 것을 볼수있다. 구경꾼으로 소외되었던 주부들, 독신 여성들과 국제결혼한 가정부와 새신자 10 명이 교육부와 선교부 및 문화부 에서 봉사한다.

(3) 2008 년 2009 년 1 월부터 10 구여중 5 구역을(50%) 여성들이 구역장으로 봉사한다.

(4) 2008 년 11 월 선정된 20 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교회와 여성운동"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에, 친교시간의 식사를 분식이나 간식으로 간소화 하고 성서연구에 소극적이던 여성들이 성서적인 봉사를 위해 매주 예배전 70%(20 먼중 14 명) 이상이 정규적으로 성서연구에 참석하고 있다.

(5). 2009 년 7 명의 여성위원들이 1 월부터 각 소그룹에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목표 II: 부름 받은 여성으로서의 참여를 위하여

행정목표 (Administrative Goal):

1).2008 년 구조 변화를 위해 본 연구반원의 일부를 교육위원회 연구원으로 지명하였다. 김정숙 집사를 총무로, 나영주을 한글학교 교장으로, 홍성남 성인성경 교사로, 황인원 사모를 유치반 원장-교사로 봉사하게 했다.

2). 9 월 3 째주부터 10 월 2 째주까지 4 주간 성서를 토대로 "영적 은사"(Gift)에 대한 강의 실시하며(매주 9.00am-10.00am), 2 회의 Workshop 을 통하여 은사 검사를 하고 그 은사 활용을 위한 사역장을 확보하였다. 아래는 은사검사를 위한 교제이다.

(1) "Beverly LaHaya, trans., Eunyes Riew(Harvest House, 1976). *성령충만한 여인.* In Korean by Word of Life Press,1978)

(2) Bruce Bugbe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 Work: Understanding God's Design for You in the Church. The Right People...In the right Places,,,For the Right Reasons. Participant's Guide* (Grandraph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3).11 월 4 째주 12 명의 여선교회 위원들이 영성을 위한 예배와 친목을 위해 West VA 에서 1 박 2 일의 수양회를 가지고 지난 일들의 평가와 앞으로 해야 할 계획들을 의논하면서 친목을 겸하였다. 모든 순서가 여성목회 예배부의 여성위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의 체험을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되었다.

Change Assessment

1. 아래의 두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은사(탈랜트)을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교회사역 부분을 확이할 수 있었다.

(a) "Beverly LaHaya, trans., Eunyes Riew(Harvest House, 1976). *성령충만한 여인.* In Korean by Word of Life Press,1978)
(b) Bruce Bugbe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 Work: Understanding God's Design for You in the Church. The Right People...In the right Places,,,For the Right Reasons. Participant's Guide* (Grandraph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반응을 보면,

(1)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다. 이제부터 은사에 맞는 봉사를 찾았으니 열씸히 헌신 해야 겠다."
(2) "내게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치야 겠다."
(3) " 진작 알았으면, 많이 봉사했을 것을...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보아야 겠다..."

서로 주고 받는 나눔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들을 자각할 수 잇었다.

2. 여성목회와 그 소그룹들의 자체모임과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3.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로 돕던 것으로부터 직접 파송하는 교회로서 전환을 위하여기도 하고 있다.
4. 본 연구자가 1993 년 7 월-8 월간, 1994 년 4 월-5 월, 9 월에 3 회에 걸처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4. 교회여성 목회와 Indonesia, Ora Et Labora 교회 독신 여성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매년 성탄에 헌물, 헌금등으로 돕고 있다.
5. 1995 년 20 명의 아프리카 단기선교단 파송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이미 30% 의 선교활동비가 모금되어 있다).
6. 2008 년 9 월 1 째주부터 네째주까지 4 주간의 "성령은사"에 대한 집중적인 성서연구와 1994 년 10 월 1 째-2 째주 2 회의 workshop 을 통해 평소에 알지 못했던 각자의 Gift 와 재능들이 상호 권면과 격려에 의해 발굴.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장래의 할 일까지 생각하고 있다.
4. Sharing life, servant life 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친교 시간이나, 수양회때 활발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점점 더 고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5. 여성목회의 선교부 산하에 네(4) 여성 그룹이 교회내, 교회 밖의 워싱톤지구 락빌 지구, 세계적관심을 가지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 두 여신도가 워싱톤 여성장학회에 참석하고 신학생 장학금을 조달하고 있다.
   2). 여성목회주최로 20 명의 여성들이 당회와 1995 년 신년에 음식을 준비하여 락빌지역에 있는 빈민을 방문하고 위로했다.
6. 여성목회 선교부 주최로 매년 2 회(추수감사절과 신년) Homeless 나 구제기관을 통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다(한인봉사회, 양로원과 청소년 센터등).
7. 매 주일 오후에 12 명의 위원들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심방을 돕고있다.

8. Sharing (Support group) 활동에 의하여, 신.구 교인들이 교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신속하고 곧 참여활동에도 스스럼 없이 잘 소속하여 참석하고 있다.
9. 12 월 25 일 성탄절에 여성들의 주체로 전교회 교인들의 탈렌트 쇼를 통하여 자신들의 은사를 재확이할 수 있어으며, 또한 전 교이들이 풍성한 성탄행사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목표 III: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하여

행정목표(Administrative Goal)

1). 2008 년 9 월 여성목회 주체로 2 세 자녀들을 영어교사로 초빙하고 노년여성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반을 매월 2 회에 걸쳐 1 째주와 3 째주일 예배후에 실시하여 여세대간의공통점을 가져 보았고,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의 자체성을 경험하였다.
2).12008 년 10 월 3 째주일 이민 여성들의 자신들의 갈등과 자녀들의 이해를 위해 저녁 예배 시간에 전 교인앞에서 패널 토의와 나눔의 시간을 갖었다. 이를 통하여 남녀 간,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를 도모 했다.

Change Assessment

1. 여선교회와 각 소그룹의 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전 여성들이 교회 친목실에 모여 함께 예배, 성경공부, 친목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있다.
2. 구(old) 여선교회와 어버이회 2 그룹만 있었는데, 성인반, 청년반, 주일학교반, 유치반, 영어반, 신입반, 선교반, 구제반, 행사반 등 확장되었으며 12 위원중에 4 명이 2009 년 1 월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3. 2008 년 12 월, 교회 전체여신도 120 여명중 20% 정도(24 명)의 소수의 여성들만이 한정된 부엌일 정도에서만 봉사 했는데, 전 여신도의 50% (60 여명) 이상이 각 소그룹에 소속하여 각 그룹 활동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
4. 매년 2 회에 걸쳐 5 월과 10 월 4 째주일을 여성목회 주일로 정하고 전교인이 함께 지키며, 모든 순서들을 여성들이 진행하고 있다.
5. 2008 년 6 명의 집사 후보중 5 명의 여집사(90%)가 안수 받고 봉사하고 있다.

6. 2008 년 7 월부터 성경공부를 바탕한 6 주 코스의 "새 신자 교육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입 교인과 구교인들이 자유로운 대화와 친교 속에 적응하며 봉사 하고 있다.

7. 2008 년 9 월부터 2 세 자녀들을 영어교사로 초빙한 영어반에 참석한 노년 여성들이(할머니들), 6 개월후에, 기본적인 전화내용에 응답할 수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배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바른 목회의 시작은 올바른 성서적인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바른 신앙은 바른 의식을 창출한다. 바른 의식이 있을 때 올바른 행위의 실천을 실행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의식화의 문제였다. 의식화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 하루 아침에 되어 지는 과제가 아님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변화만 일어나면 그들의 삶과 실천에 놀라운 창조적 행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란 주제의 대상이 무관심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이라는 것이었다. 여성의 거의가 자기의 의식상태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만 해야 하는지?"

"왜 여성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극심한 성차별의 극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방관만 하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사고나 의식구조가 교회여성의 의식화 개발의 거부 반을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몇번이나 양보하고저 했으나, 그때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이 논문의 제한된 프로그램을 맞출 수 있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부반응뒤에는 반드시 가능성도 있다는 믿음과 확신은 바른 성서적 신앙위에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창조적 목회실천을 실현하게 되는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신앙에 근거한 용기와 Passion 이 필요하다.

V. 목회능력(Ministerial Competencies) 에 대한 과제

이 과제를 함께 연구하고 평가 할 연구반은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택하였다.

1994 년 10 월 16 일에 교회 각 기관에서 선정된 7 명의 연구반원들은, 이 연구를 위해 모든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본 연구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주고, 본인의 목회유능성에 대해 정규적인 체크와 조언을 주었다. 연구반과의 동역은 새로운 방향에 도전과 더불어, 본인의 연구 방향과 목회방향을 조정하며 새롭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본인을 격려하며 시안을 넓고 새롭게 하는데 큰힘이 되어 주었고, 이 과제를 연구하고 평가할 7 명의 연구반원(Site Team)은,홍성남 집사, 임정하 집사, 서은숙 집사, 노영찬 교수(목사), 박영일 장로, 조명칠 장로, James Kim(김한용-영어목회전도사)이다. 그러나 첫 연구반의 구성은 도중에 몇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혹은 사망 등으로 교체되어 현재 6 명을 이루고 있다.

연구반원들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교인들의 입장에서 많은 지혜를 주었고 나의 연구 방향과 목회방향을 조정하며 새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반원들은 이 목회자의 의견과 연구 취지를 경청해 주고 늘 긍정적인 태도로 협력해 주었다. 연구반원들의 의견과 조언이 목사의 귀에 항상 즐겁게 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도전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

목회자 능력 평가 방법에 대하여 많이 심사숙고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특성은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일이 그렇게 편안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를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쉽고 친숙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잘 설명하여 충분한 이해를 구했다.

이와 같은 평가서의 종합은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역할들에 대한 유능성. 유무의 평가 등급을 1 에서 4 까지 구분하였다. 여기에 유능성이 인정되는 만족도의 최고를 1 로 하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최저를 4 로 정의 하였다.

본 연구자의 목회 유능성에 대한 6명의 연구반원들의 평가는 화목자, 설교자 , 상담자, 목자, 종교교육자, 지도자, 범교회자, 행정가의 순위로 높은 평가를 해 주었다. 연구반의 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신실성, 정확성, 솔직성, 겸허와 인애, 추진력 등의 순서로, 과분할 정도로 목사의 장점과 강점들을 모든 항목에서 열거 해 주었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 그러한 면에 매우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목사가 되라는 격려로 마음에 담아 두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약점들을 지적해 줄 때, 이와 같은 평가는 자기성찰과 과감한 변혁의 결단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과 더불어 계속 진지한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의 유능성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더 개발 할 것을 다짐 하면서, 부정적인 지적은 개선의 분발점(turning point)이요, 또 하나의 출발의 기회로 도전을 받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A. 목회능력 개발 분야 선정(Competency Selection)

연구반원들의 조언과 본인의 노력과정에서 계속 느끼는 약점. 개선해야 할 분야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 년 12 월 16 일 연구반원들이 보여 준 유능성 결과는, 1) 화해자 2) 설교자 3) 상담자 4) 목자 5) 종교교육자 순으로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위에 열거한 5 가지 분야에도 많은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진지하고도 꾸준한 노력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능성 평가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 볼 때에 특별히 정지시켜야 하며 새로 시작해야 할 몇가지 분야들을 선택하여 본다.
연구반의 평가나 나 자신의 분석 평가에 따라 세 가지 목회 능력만을 선택하고 개발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역할들에 대하여 개발하고 훈련아여햐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한된 시간 안에 본 연구과제의 진행에 효과적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고려된 선택이다.

1. 신학자 (Theologian):

건전한 신학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목회와 설교 또는 성서 연구를 할 수 없다. 더우기 현시대의 다원화와 복합적인 사회 변천에 따라 이런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즉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매개신학, 문화신학, 관계신학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신학자는 자기 당대의 문맥에서 말씀을 특수한 시간과 장소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성숙한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활동적인 성경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런면에 본인은 아직 미흡하다.

2. 변혁자(Change Agent):

선지자로서 목사는 사람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고 사회부조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 주는 윤리적 의미를 고취 시켜야 한다. 변혁자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이슈(issues)에

민감하여야 한다. 교회 안팎의 억압되고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사회봉사에 참 여토록 해야 했으나, 본인은 이런 면에 관심이 부족했다.

3. 상담자 (Counselor) :

어떤 형식의 상담이던 그 효과는 항상 상담자에게 달려 있다.상담자 자신의 개방적이고 진지하고 꺼리낌이 없고 수용적이고 성숙도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자질들을 돌 볼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다른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있는 독창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근본적으로 고치고, 지탱케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롭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민 교회 여성들을 목회자의 따뜻하고 관심 깊은 보살핌을 열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실천적으로 같이 하며 대응할 수 있는 이해 깊은 참 목사상을 개발하고 훈련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상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면에 더 개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상담자나 치료자, 교사 등의 성장촉진자들이 타인의 성장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1)

이를 위하여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쉽게 접근하거나 찾아 갈 수 있는 인간미와 철칙으로 피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시적인 상담보다는 비지시적인 상담으로 피상담자의 말을 기울여 듣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특별히 상담에 대한 의미와 기술 등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본 연구 과제가 수행되는 기간인 2008 년 7 월부터 2009 년 3 월까지 9 개월 동안 다음의 기준과 지침을 따라 선택된 목회역할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306) Clinbell, Howard, 24.

B. 목회능력 개발 시행전략

A. 신학자 (Theologian)로서 능력 개발

1. 2008 년 6 월부터 7 월까지, 다음의 자료를 비교 연구함으로 신학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자신의 신학자 능력을 개발 하도록 한다.
   (1) Letty M. Russell, *Human Liberation in a Feminist Perspective-A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1974.

   (2) Rose Radford Ruether, *Sexism and God-Talk: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s,1983.

2. 2008 년 8 월부터 10 월까지 위의 자료 외에도 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전망을 가질수 있도록 신학 전문서적, 즉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민중신학, 매개신학, 문화신학, 관계신학 등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3. 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1 월까지 회의나 강좌에서 배운 지식을 기록하여, 더 알고 싶은 부분을 계속 연구한다.
4. 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1 월까지초교파적인 목회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호배움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신학에 대하여 이해를 촉진시킨다.

B. 변혁자 (Change Agent) 로서의 능력 개발

1. 2008 년 10 월 31 일까지 다음의 자료를 연구함으로 목회자로서의 변혁자상에 대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역할의 실천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1.

2. 2008 년 9 월부터 2009 년 1 월 31 일까지 종래의 지도자 중심을 지양하고, 교인스스로 사회봉사 분야를 연구하여 참석하도록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 봉사 분야의 대상을 연구하게 한다.

3. 2008 년 9 월부터 2 개월마다 1 회 사회사업에 관계된 활동을 계속 추진하게 한다.

4. 2008 년 10 월 사회사업에 관계된 사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연구한다.

C. 상담자 (Counselor)로서의 능력 개발

1. 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1 월까지 매일 1 시간이상의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지적 생활의 균형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가 끝난 후에도 이것은 평생의 과업으로 계속 수행한다.
2. 2008 년 1 월 봄 학기 방학을 이용하여,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 연구하여 자격증을 얻는다.
3. 2008 년 7 월-8 월까지 두권의 전문 서적을 비교 연구하여 상담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자신의 상담 능력을 개발한다.

Clinbell, Howard. Translated by Lee,Jong Hee. *현대성장상담요법* .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90.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Translated by Pi, Hyun Rin and Lee, Hae Ryun. *크리스챤 카운슬링*.Seoul:Tyrannus Press, 1984.

4. 2008 년 6 월부터 9 월까지 3 개월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 10 월부터, 본인 혼자 독점해 왔던 상담을 2 명의 여성목회 위원들에게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을 분담하게 한다.

VI. 목회 능력개발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MINISTERIAL OMPETENCIES)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Site Team 의 평가 및 Feedbak, 자신의 평가, 면담등을 사용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에 선택한 세가지의 목회 역할 능력의 증진을 측정 평가하고자 한다.

A. 목회자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1. 신학자(Theologian):

1). 2008 년 8 월까지 위에 언급한 두 권의 책을 비교 연구하여 자신의 신학자적 자질을 평가 하도록 한다.

2). 2008 년 10 월까지 성서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길을 열어놓는 놓는 것이 신학이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전망을 가질 수있도록 포괄적인 신학 연구를 한다.

3) "말씀'의 광맥을 찾아 그 말씀이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에 관련시키는 일을 하도록 이를 개발하며 연구토록 한다.

4). 2009 년 1 월 연구반원들의 평가를 듣는다.

2. 변혁자(Change Agent):

1). 2008 년 9 월 위의 자료를 심독하여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변혁자로서의 자질을 평가 해 본다.

2). 2008 년 12 월 까지 08 년 7 월 이후 6 개월 동안 만난 새신자들과 함께 대화의 모임을 갖고 자신의 변혁자로서의 목사상에 대해 자세히 평가해 본다.

3). 2009 년 1 월 31 일 연구반의 관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3.상담자(Counselor):

1). 2008 년 7 월 부터 10 월까지 매월 3 째 주 마다 심방을 통하여 개별상담을 하게한다.

2). 2008 년 7 월 부터 2009 년 1 월 31 일 까지 전화를 통하든지, 목사실을 내방하여 개별 상담을 하게 한다.

3). 특별한 케이스(마음의 환자)는 상담자기 직접 찾아가 기도하며 상담요법을 사용한다.

4). 깊은 심층환자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교인이나 특별한 지식이라 기술을 요하는 케이스는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한다.

B. 목회 능력 개발에 대한 평과

(EVALUATION OF MINISTERIAL COMPETENCIES GROWTH)

이 항목의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는, (1) Site Team 의 평가 및 관찰 (2)자신의 평가 (3) 면담의 방법을 통하여 목회능력의 자질 향상을 달성하려고 한다.

1. 신학자 (Theologian)

Letty M. Russell 의 *Human Liberation* 과 R. R. Ruether 의 *Sexism and God-Talk* 을 비교 연구 한 결과, 여성의 인간화와 해방은 온 교회, 사회와 인류의 기본적인 과제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엥로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과 이것을 위해 여성들 자신들의 의식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눌린 여성들의 영성을 해방하여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성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니의 자녀로서, 동역자로서의 나 자신의 자아 정립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목회자의 능력 개발은 부단히 신학적인 수련과 자기의 연마로서 점진적으로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항목의 개발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책들을 심독하였다. 그 중 여성신학,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해방의 신학, 관계신학, 아시아 여성의 신학, 성차별과 신학등, 포괄적인 신학 서적과 다양한 신학자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목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신학의 새로운 시각을 넓혀 주고 자신의 변화와 더불어 목회에 도움을 주었다. 계속해서 양서를 구입하여 심독함으로 계속적인 개선과 개발을 꾀하고 있다.

휘오렌자(E.S. Fiorenza)의 *In Memory fo Her* 를 한글로 번역하여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으나 이미 번역된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2. 변혁자 (Change Agent)

1). 사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를 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원 봉사를 하도록 행동을 유발하였다.

2). 양노원, 노인회관, 한국 청소년 쎈터 등을 방문하여 사회 참여의 문을 열어 주고 그러므로 사회 봉사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3). 사회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헌연구(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 을 권장하였다.

변혁자는 선지자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지식을 일깨워 주고 윤리적 의미를 고취시켜야 하므로 이상의 세 항목을 개선의 작업으로 실천해 보았다.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 받아 자원 봉사케 하는 마음으로 이끌었으며, 그러므로서 억눌리고 소외되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려는 의욕이 분출되었다. 이런 점진적 관계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보려고 했다.

본인은 이 논문 기간의 이해와 자각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 St. Mary's Medical Center 와 CJW Medical Center 협동원목으로 봉사하고 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 절실히 느낀 것은, 변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의 변혁이 현장에서의 만남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체험했다. 그러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변혁의 실천에 참여하여 같은 체험으로 봉사하도록 협력했다. 새로운 변혁의 과정을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가증하다는 것을 터득하며 배우고 있다.

3. 상담자(Counselor)

위의 두 자료, Clinbell, Howard 의 *현대성장상담요법* (Contemporary Growth Theraphies)과 Collins, Gary R. *크리스챤 카운슬링*(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을 심독하므로서 상담자로서의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에 대한 깊은 자각을얻었다. 특별히 클라인벨(Clinbell,Howard) 은 치료법을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통찰지향의 전통치료법, 형태/ 행동/ 위기 치료법, 잠재력 개발치료법,

관계/구조/급진치료법, 영성치료법이다.1). 본 연구자는 특히 관계/구조/급진 치료법에서 취급한 여권주의적인 치료법에 관한 것과 (영성치료법에 관심을 두었다. 여권주의적인 치료법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 양자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급진적'치료법이라 한다. 왜냐하면 교회여성들이 오랜 동안 가부장제적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억압을 당하여 위축되었으므로, 여성들의 영성을 해방시키는 과제가 이 본문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Collins 의 *크리스찬 카운슬링*은 세밀하게 상담과정의 안내를 주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어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떠한 분류의 상담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은 상담자로서 온전한 인간성을 되찾고 해방되는 것이며, 잠재력을 찾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다.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상담자의 문제를 경청하여 피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심방상담, 가정상담, 특별상담에 대 한 계획을 세우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양서나 강의, 세미나 참석 등의연구가 필요하다. 상담시에는 위의 점들을 사려하며 사례를 취급하였다. 우선 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상담자의 문제를 경청하고 피상담자가 자신이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과가 있었다. 3 명의 여성회원들이 12 그룹을 위해 매월 1 회씩 4 째주 금요일 "동료상담" 을 상담있다

본인은 오랜 경험에서 목회상담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상담"이라고 생각했다. 피상담자의 인격을 이해해 주며 수용해 줄 수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피상담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성의 바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점에 아직 미숙한 자신을 절감하고 있다. 상담분야의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인은 이러한 배움과 터득으로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혹은 개인적 만남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환자들, 가족들과 직원들을 상담하고 있다.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담분야를 위해 본 연구자는 겸허한 자세로, 보다 나은 상담분야의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07) Ibid., 26-28.
308) Ibid., 22-23.

부　　　록 (APPENDIX)

1. 연구 조사 질문들 (Research Questions)

A. 성서적 질문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남녀 구별없이(갈 3:28) 교회 사역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있는 은사(talents, skills)이 있다(고전 1:6-7). 은사의 다양성(diversity)과 차이성(difference)은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의 힘(Energy)이다. 각자가 받은 다양한 (Different) 은사들(엡 4: 11-13,롬 12:6-8,고전 12:8-10,28-30)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위해개발하고 조화있게(Harmony) 활용하도록 서로 도와야(Support)한다. 럿셀(Russell)은 "모든 여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자유를 가진존재이며(갈 5:1, 13)그들이 열망하는 세계를 위해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도록 위임 받았다" (고후 3:17, 1:22)고 강조 하고 있다.

1. 여성들의 잠재력과 은사들(G i f t s)을 Supportive Ministry 를 위해, 어떤형태로 개발하고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나 ?

성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고 해석되어서 여성의 종속적인 역할과 이차적 지위를 그대로 합법화해 주어 왔다. "경전과 전통은 그 자체가 성문화된 집합적 인간 경험이다." "경험"은 상호작용하는 변증법 속의 신적존내의 경험, 자신의 경험, 그리고 공동체와 세계의 경험을 포함한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여성들에게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을 포함해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Fiorenza 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는 말씀으로 비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돌판"(tablets od stone)이라는 은유를, 여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밀어줄 힘이 될 "빵"(bread not stone)의 이 메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어떻게 가부장적 고정 관념과 편견들에서 성서를 해방시킬 수 있나?

B. 신학적 질문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Oikonomia,지배, 섭리), 즉 세계(oikoumene)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은 창조자, 해방자, 화해자로서 계시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해방 일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 해방을 열망하며 고통하는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방을 의미한다. "온전한 인간성"을 실현 시킨다는 것이 모든 해방 신학의 목표이며 인생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처럼, 여성 신학의 목적도 "여성의 온전한 인간성을 촉진 시 키는데 있다"(to promote the full humanity of women). 구체적인 해방은 역활을 반 대로 뒤 바꾸는 또 다른 압제자를 내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방은 우리 특정 그 룹이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모든 인류의 반대파들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 방운동의 하나하나가 비인간적인 삶에 대항하여 새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것이다." "해방은 "하나님의 미래를 다른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는 행진이다." 크 리스천들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혁명을 위해 함께 결합 되어야 한다. T. Richard Snyder 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해방을 위한 투쟁의 유대적관계"(solidarity to struggle for liberation)라 고고 강조했다.

1. 남녀 동역(partnership)을 통한 자신과 이웃의 인간화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현대 신학의 과제와 문제는 신학의 현재화(現在化)의 필요성이다.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의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회상의 "현제화"와 그 복음전승의 "현제화"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에 담긴 진리를 해석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현대인의 전망이나 문제들과 생동적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전승된 메시지(신앙, 희망,사랑)의 전승과 현대문화에 매개 해 주어야 한다.

Tillich 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했다. 신학이 현대인의 전망이나 문제점과 생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 한다면, 내용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Moltmann 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개의 신학'(Theologie der Vermittlung)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교 신학은 전승되어 온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그때 그때마다 사람들의 이해 지평에 매개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했다.

2.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교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해와 만남의 관계로 변혁 될 수 있나 ?

C.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질문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제도 및 문화에 따라 영향 받으며 개인 각자가 속한 집단적 양식에 따라, 존재 의식과 사회화가 이루어 진다. 현대는 극단적인 문명(civilization)의 발달로, 사회적(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기에 처해 있다. Holland 는 "종교는 사회 위기들 중 가장 급진적 차원(radical dimension)에 있다. 인간문화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영(Spirit)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문명은 파괴를 향하여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 했다. 현대는 지구촌 시대이다. 급진적 다원주의의 지구촌 상황에서, "새로운 보편주의"(New Universalism)가 현대의 "지구신학"(Global theology)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복합수준(multileveled)의 보편적 대화(universal communication)를 통해 상호이해가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우리의 호교론(護敎論)과 고정 관념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문제와 분열을 갖게 한다.

Martin Bubur 는, "이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매개로 이용할 때, '그 것의 세계'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begegnung) 에 있다"고 했다. Richard Nieber 는 "기독교와 문명의 관계는 영속적인 문제" 로서, "그리스도는 문화 의 변혁자"(Transformer of Culture)라고 했다. 즉 "문화의 세계(인간의 성취, human being's achievement)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안에 존재한다."

1. 여성들이 "변혁자"로서의 봉사 참여를 촉진 하는데, 어떻게 동양의 가부장적 문화가 생산적인 요소로 기여 될 수 있나?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healing)을 얻는다(이사야 53 장 5 절). 결국에는 하나님

의 희생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해소하시는 것이다.

Moltman 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에서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저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이 세계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 주어야 한다. 기독교적 실존은 십자가에 달린 그 분의 뒤를 따르면서, 인간자신과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實踐)이다" 라고 했다.

2. 여성들의 억눌림과 고통을, 어떻게 지역사회 공동체 속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사회 변혁을 위한 "힘"(energy,source)으로 변혁 시킬 수 있을까?

D. 심리적 질문들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적 가치와 인간 됨의 존엄, 안전 (불안과 과도한 공포로부터 자유), 행복, 적합하다는 느낌, 내적 자유, 자신의 잠재력에 맞는 가치 있는 목표의 의미와 실천 행동을 말한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자율성, 능력, 지도력 등에 대한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인 인습과 굴레가 여성의 성장을 방해해 왔다. 그러므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정치적인 차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과제는 여성들이 이러한 내면의 풍부한 잠재력과 힘을 찾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Clinbell 은, "개인의 성장은 그 사람이그러한 성장을 통해 타인과 연대하여 사회정치 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회요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여성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치료케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이다" 라고 했다.

1. 여성들의 욕구를 성서 안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 남성들은 어떻게 협조적인 역할을 실천 할 것 인가?

상담은 한 인간을 도와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발견하고, 실재 생활에 만족스러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리하여 자기 앞에 놓여진 가능성 가운데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인

간대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James W. Fowler 의 신앙의 성숙한 단계는 "보편화하는 신앙"(universalizing faith), 즉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성숙된 인간 공동체의 정신의 화신들(incarnators)과 행동자들(actualizers)-순교자들에서 보는- 이다. Rogers 는 성숙되고 건강한 인간은 통합된(integreted) 인간 즉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2). 여성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Carl Roger 의 심리적 원리와 Fowler 의 신앙 발달의 단계를 상담에 적용할까?

E. 교육적 질문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의 의식이존재한 것 만큼 오래 존재 했다. 라틴어 어원 "교육(*ducare*)이 의미 하듯이, 교육은 끌어 내는(lead out) 행위로서, 힘(power)이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자는 그의 힘(power)을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쓸 수도 있고(power over), 학생과 더불어 소유할 수도 있다(power with). Freire 는 교육을 '자유의 실천'(Freedom of practice)으로서 남녀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세계를 변혁하는 데 참석할 방도를 발견하는 수단'(means)라고 했다. 즉 교육은 "문화적해위" 로서, 문화를 고정된 신화가 아니라, 문제(problem-posing education)로서, 끊임없는 과정 속에 진행되는 해방의 실천(Liberating praxis)이었다. "여성의 인식방식(way of knowing)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 문화적 여건때문에, '행동결'의단계' 에 이르기 까지 남성과는 다른 발달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Blenkey 는 '건설적인 인식단계'(Constructivist Knowldge), 즉 '행동결단'의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열망한다" 고 한다.

1. 여성들의 인식 방법 (way of knowing)의 "행동결단의단계"를 위해 어떻게 프레이레 (Paulo Freire)의 Praxis 이론을 실현 할 수 있을까 ?

오늘날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봉사에 대한 욕구들(needs)이, 전문적 지도자들의 능력 이상으로 능가해 간다. Everlyn Johnson 은 오늘의 교회는, "개방된, 협조적 공동체(open, supportive community)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성도들 즉, 임명된 자들과 임명되지 않은 자들의 혼합된 지도력 스타일들을 포함하

는 '분배된 지도력'(shared leadership)의 도전을 받는다" 고 강조한다. 교육자의지도력(leadership)은 효력(effectiveness)에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대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헌신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격려하고, 조력하고 영감을 주는 자이다. 즉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help)때에, 비로소 지도자로서 인도(lead)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도자는 "협력-지도자"(Helper-leader)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usan Hunt 는 Helper-leader'는 의(義)의 매시지와 모형(model)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젼과 열정과 헌신과 모험을 겸비한 비이기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

2. Supportive Ministry 를 통한 여성들의 "Helper-Leader" Skill 훈련은 어떻게 Helper leadership 과 함께 동역에서 활용될수 있는가 ?

E. 정치적 질문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다. 다른 해방신학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해방신학(Feminist theology of liberation)은 남녀 간의 차별을 넘어서서, 가부장제도 하에서 받는 억압에서 벗어나,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있게되는 그러한 상태를 목표로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교회의 제도는 남(男)교역자 중심(sacerdotalism, clergy-centered)의 체제이다. 그리하여 성직자 우상화체제를 유지(status quo)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고 있어서, 여성들은 성직에서배제되어 왔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곳에서 뛰쳐 나가는 탈출공동체(Exodus Community)이야 한다. Wayne Oats 는 종교가 병들 때의 첫 현상은 지도자 우상화(leader deification)라고 했다. 교역은 봉사(diaconia,service)라는 성서적 개념속에 내재해 있다. 봉사는 지배로서의 권력을 스스로 비우는 것(self-emptying of power as domination)이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doulos, slave) 그리스도의 겸손과 봉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헌신하여 봉사와 사랑의 용납을 하는 것이다.

Ruether 는 "교역에의 부름은 교회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아첨

꾼이 되거나, 혹은 공공 질서의 수동적인 지지자가 되라는 부름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교역은 권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즉, 서로 서로의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 했다.

1. 건전한 신앙 공동체(mutual community as shalom community)를 이룩하기 위해 어떻게 남성 "성직자 중심"(clericalism) 으로부터 교회를 해방 시킬 수 있을까 ?

2. 교회여성들의 의식(심리)구조 실태 조사

ㅡ 설문지 지원서ㅡ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뉴욕신학대학원에서 금 번에 [여성지도력에 대한 의식화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교회 내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귀하의 교회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한미교회의 목회를 갱신하는 데 참여하신다는 뜻에서 본 조사에 적극협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상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년 12 월 16-28 일

조사자: 이 재 희 목사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 락빌한인장로교회 교육목사
현재 미국병원 협동원목

2. 교회여성들의 의식(심리)구조 실태 조사

ㅡ 2) 실태 조사 설문지ㅡ

실시기간 : 2008 년 12 월 16-21 일

다음 질문 중 해당란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요.

1. 성 별
   ______ (1) 남자
   ______ (2) 여자

2. 나 이
   ______ (1) 29 세 미만
   ______ (2) 30-39 세
   ______ (3) 40-49 세
   ______ (4) 50-59 세
   ______ (5) 60 세 이상

3. 학 력
   ______ (1) 무학
   ______ (2) 국졸 또는 국퇴
   ______ (3) 중졸 또는 중퇴
   ______ (4) 고졸 또는 고퇴
   ______ (5) 대졸 또는 대학 중퇴
   ______ (6) 대학원 이상

4. 교회 직분(해당사항에 모두 표 하셔도 됩니다.
   ______ (1) 장로
   ______ (2) 권사
   ______ (3) 안수집사
   ______ (4) 서리집사
   ______ (5) 교사
   ______ (6) 성가대원
   ______ (7) 평신도

5. 한국교회의 70%는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행정권이 없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 (1) 시정해야 한다.
   ______ (2) 그대로가 좋다.
   ______ (3) 무관심이다.
   ______ (4) 투쟁해야 한다.

6. “여자는 잠잠할지니라”(고전 11:34)라는 이 성경귀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_______ (1) 성경적이다.
_______ (2) 그 지방의 특수사정이다.
_______ (3)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_______ (4) 성차별의 문제다.
_______ (5) 잘 모르겠다.

7. 교회여성의 의식화 개발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_______ (1) 기도한다.
_______ (2) 교육한다.
_______ (3) 올 바른 성서이해
_______ (4) 의식에 잠재한 병을 치료한다.
_______ (5) 여권신장을 한다.
_______ (6) 가부장제를 폐지한다.

8. 부인의 직업이 남편이나 일이나 아기 기르는 일에 지장을 줄 경우 일을 포기한다.

_______ (1) 완전동의
_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_ (5) 완전반대

9.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_______ (1) 완전동의
_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_ (5) 완전반대

10.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한다.

_______ (1) 완전동의
_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_ (5) 완전반대

11.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

_______ (1) 완전동의
_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_ (5) 완전반대

12. 부부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요리,설겆이등 집안일을 아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해야 한다.

______ (1) 완전동의
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 (5) 완전반대

13. 직업상/사교상 필요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묻지 않고 친구와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______ (1) 완전동의
______ (2) 어느정도 동의
______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______ (4) 어느정도 반대
______ (5) 완전반대

14. 신앙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 (1) 1 년 ~ 5 년
______ (2) 6 년~ 10 년
______ (3) 11 년~20 년
______ (4) 20 년 이상

15. 현교회구조와 제도에 만족하십니까?
______ (1) 만족
______ (2) 불만
______ (3) 그러 그렇다
______ (4) 갱신이필요하다
______ (5) 모르겠다.
______ (6) 기타

16. 불만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 (1) 행정적 모순
______ (2) 제도적 모순
______ (3) 성차별
______ (4) 불평등
______ (5) 모르겠다
______ (6) 기타

17. 귀하는 교회에 여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느낍니까?
______ (1) 그렇다
______ (2) 시기 상조다
______ (3) 무관심

18. 귀하는 여목사의 필연성을 느낍니까?
_______ (1) 느낀다
_______ (2) 시기상조다
_______ (3) 무관심

19. 귀하의 남성. 여성으로서의 출생소감은?
_______ (1) 만족
_______ (2) 불만
_______ (3) 후회
_______ (4) 그저 그렇다
_______ (5)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_______ (6) 무관심

20. 남성중심의 한국교회구조속에서 여성임으로 봉사를 하면서 피해를 느낀적이 있읍니까?
_______ (1) 느낀다
_______ (2) 그저 그렇다
_______ (3) 느끼지 않는다

21. 교회에서의 여성의 미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 (1) 순종
______ (2) 양보
______ (3) 침묵
______ (4) 사랑
______ (5) 정의
______ (6) 지혜

22. 현 교회생활을 만족하십니까?
______ (1) 만족
______ (2) 불만
______ (3) 갱신이 필요하다
______ (4) 모르겠다

23. 교회에서 갱신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 (1) 교회의 민주화
______ (2) 청소년문제
______ (3) 평신도운동
______ (4) 교회지도자
______ (5) 여성안수문제
______ (6) 교회제도
______ (7) 기타

24. 귀하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읍니까?

______ (1) 관심이 많다

______ (2) 무관심이다

______ (3) 모르겠다

25. 귀하는 이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______ (1) 만족

______ (2) 불만족

______ (3) 후회

______ (4) 그저 그렇다

3.) 교회여성들의 의식(심리)구조 조사결과 통계 표

총 설문지 배부수.. 12 부, 회수 12 부(100% 응답)

표 1. 성 별

구분	실수	%
여자	12	100
합계	12	100

표 2. 나 이

구분	실 수	%
(1) 20-29 세	---	---
(2) 30-39 세	---	---
(3) 40-49 세	2	16.7
(4) 50-59 세	4	33.3
(5) 60-69 세	4	33.3
(6) 70 세이상	2	16.7
합계	12 명	100

표 3. 학 력

구분	실 수	%
(1) 무학	1	8.3
(2) 국졸 또는 국퇴	---	---
(3) 중졸 또는 중퇴	---	---
(4) 고졸 또는 고퇴	3	25
(5) 대졸 또는 대학 중퇴	7	58.3
(6) 대학원 이상	1	8.3
합계	12	100

표 4. 교회직분

구분	실수	%
(1) 장로	1	8.3
(2) 권사	6	41.7
(3) 안수집사	1	8.3
(4) 서리집사	3	25
(5) 평신도	1	8.3
합계	12	100

표 5. 한국교회의 70%는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행정권이 없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실수	%
(1) 시정해야 한다.	12	100
(2) 그대로가 좋다.	---	---
(3) 무관심이다.	---	---
(4) 투쟁해야 한다.	---	---
합계	12	100

표 6. "여자는 잠잠할지니라"(고전 11:34)라는 이 성경귀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분	실수	%
(1) 성경적이다.	3	25
(2) 그 지방의 특수사정이다	5	41.7
(3)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3	25
(4) 성차별의 문제다.	---	---
(5) 잘 모르겠다.	1	8.3
합계	12	100

표 7. 교회여성의 의식화 개발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구분	실수	%
(1) 기도한다.	---	---
(2) 교육한다.	8	66.6
(3) 올 바른 성서이해	4	33.3
(4) 의식에 잠재한 병을 차료한다.	---	---
(5) 여권신장을 한다.	---	---
(6) 가부장제를 폐지한다.	---	---
합계	12	100

표 8. 부인의 직업이 남편이나 일이나 아기 기르는 일에 지장을 줄 경우 일을 포기한다.

구분	실수	%
(1) 완전동의	---	---
(2) 어느정도 동의	6	50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2	16.7
(4) 어느정도 반대	3	25
(5) 완전반대	1	8.3
합계	12	100

표 9.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구분	실수	%
(1) 완전동의	2	16.7
(2) 어느정도 동의	9	75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1	8.3
(4) 어느정도 반대	---	---
(5) 완전반대	---	---
합계	12	100

표 10.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한다.

구분	실수	%
(1) 완전동의	1	8.3
(2)어느정도 동의	6	50
(3)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	---
(4)어느정도 반대	1	8.3
(5)완전반대	4	33.3
합계	12	100

표 11.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

구분	실수	%
(1)완전동의	---	---
(2) 어느정도 동의	7	58.3
(3)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	---
(4)어느정도 반대	2	16.7
(5)완전반대	3	25
합계	12	100

표 12. 부부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요리 설겆이 등 집안일을 아내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해야 한다.

구분	실수	%
(1)완전동의	5	41.7
(2)어느정도 동의	6	50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1	8.3
(4) 어느정도 반대	---	---
(5) 완전반대	---	---
합계	12	100

표 13.직업상/사교상 필요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묻지 않고 친구와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실수	%
(1) 완전동의	---	---
(2) 어느정도 동의	2	16.7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1	8.3
(4) 어느정도 반대	2	16.7
(5) 완전반대	7	58.3
합계	12	100

표 14. 신앙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구분	실수	%
(1) 1 년- 5 년	1	8.3
(2) 6 년-10 년	1	8.3
(3)10 년-20 년	2	16.7
(4)20 년 이상	8	66.7
합계	12	100

표 15. 현 교회구조와 제도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실수	%
(1) 만족	3	25
(2)불만	---	---
(3)그러 그렇다	5	41.7
(4)갱신이필요하다	3	25
(5)모르겠다	1	8.3
합계	12	100

표 16. 불만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실수	%
(1)행정모순	3	25
(2)제도적 모순	3	25
(3)성차별	---	---
(4)불평등	1	8.3
(5)모르겠다	5	25
합계	12	100

17. 귀하는 교회에 여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느낍니까?

구분	실수	%
(1)그렇다	10	83.3
(2)시기상조다	1	8.3
(3)무관심	1	8.3
(4) 모르겠다	5	25
합계	12	100

18. 귀하는 여목사의 필연성을 느낍니까?

구분	실수	%
(1)느낀다	7	58.3
(2)시기상조다	3	25
(3)무관심		
합계	12	100

표 19. 귀하의 남성. 여성으로서의 출생소감은?

구분	실수	%
(1)만족	10	83.3
(2)불만	---	---
(3)후회	---	---
(4)그저 그렇다	2	16.7
(5)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	---
(6)무관심	---	---
합계	12	100

표 20. 남성중심의 한국교회 구조속에서 여성임으로 봉사를 하면서 피해를 느낀적이 있습니까?

구분	수	%
(1)느낀다	---	---
(2)그저그렇다	4	33.3
(3)느끼지 않는다	8	66.7
합계	12	100

표 21.교회에서의 여성의 미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실수	%
(1) 순종	1	8.3
(2) 양보	1	8.3
(3) 침묵	1	8.3
(4) 사랑	2	16.7
(5) 정의	---	---
(6) 지혜	7	58.3
합계	12	100

표 22. 현 교회생활을 만족하십니까?

구분	실수	%
(1)만족	8	66.6
(2)불만	---	---
(3)갱신이 필요하다	2	16.7
(4)모르겠다	2	16.7
합계	12	100

표 23. 교회에서 갱신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실수	%
(1)교회의 민주화	2	16.7
(2)청소년문제	5	41.7
(3)평신도운동	1	8.3
(4)교회지도자	2	16.7
(5)여성안수문제	---	---
(6)교회제도	2	16.7
(7)기타	---	---
합계	12	100

표 24. 귀하는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읍니까?

구분	실수	%
(1)관심이 많다	6	50
(2)무관심이다	3	25
(3)모르겠다	3	25
합계	12	100

표 25.귀하는 이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실수	%
(1)만족	8	66.7
(2)불만족	---	---
(3)후회	---	---
4) 그저 그렇다	4	33.3
합계	12	100

표 8 . 부부이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조사(설문 8-12)

설문내용 : 구분	완전 동의	어느정도 동의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어느정도 반대	완전 반대	총계
8.부인의 직업이 남편이나 일이나 아기 기르는 일에 지장을 줄 경우 일포기한다.	1 (5%)	9 (45%)	3 (15%)	5 (25%)	2 (10%)	20 (100%)
9.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4 (20%)	12 (60%)	1 (5%)	3 (15%)	-- --	20 (100%)
10.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	2 (10%)	10 (50%)	1 (5%)	1 (5%)	6 (30%)	20 (100%)
11.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	-- --	11 (55%)	-- --	4 (20%)	5 (25%)	20 (100%)
12. 부부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요리, 설겆이 등 집안일을 아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해야 한다.	8 (40%)	8 (40%)	2 (10%)	2 (10%)	-- --	20 (100%)

위의 설문 표 8 과 9(구분 8, 9)는 남편은 밖에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아내는 가정일과 아기 기르는 일을 맡아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의 분리를 묻고 있는데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두 문항에 완전히 혹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 설문 10(구분 10)과 11(구분 11)은 가정에서는 남편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재래의 인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역시 응답자의 거의 55%가 동의하고 있다. 특별히 약 60%의 응답자가 "가정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남편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완전 혹은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도 부부간의 분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남편이 우월한 위치에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부인의 직업이 남편이나 일이나 아기 기르는 일에 지장을 줄 경우 일을 포기한다.

응답내용/구분	실 수		합계
	여(%)	남성(%)	
(1) 완전동의	---	1(5%)	1(5%)
(2) 어느정도 동의	6(30%)	3 (15%)	9(45%)
(3) 반대도 찬성도아니다	2(10%)	1(5%)	3(15%)
(4) 어느정도 반대	3(15%)	2(5%)	5(25%)
(5) 완전반대	1(5%)	1(5%)	2(10%)
합 계	10(60%)	8(40%)	20(100%)

(표 8)은 남녀의 역할의 분리을 알아보고자한 설문이었다. "완전합의"에 남성이 1 명이고 "어느정도 동이" 에 여성의 수가 6 명(30%)으로 수위고, 남성의 수는 3 명(15%)으로 남녀의 수를 합하면 50%가 동의하고 있으며, 남성 6 명 중에 4 명(20%)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유교의 부부역할 분업의 관점이 그대로 있는것을 알 수 있다.특별히 가사에 관계된 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요소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 그대로 남아 있다

표 9.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

응답내용/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1) 완전동의	2(10%)	2(10%)	4(20%)
(2) 어느정도 동의	9(45%)	3(15%)	12(60%)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1(5%)	---	1(5%)
(4) 어느정도	---	3(15%)	3(15%)
(5) 완전반대	---	---	---
합계	12(60%)	8(40%)	20(100%)

(표 9)"어느정도 동의"가 12 명으로수위로 60%를 나타낸다. "완전동의"에 있어서 남녀가 각 2 명으로 10%를 나타난다. 이것을 합하면 동의가 80%로서 매우 높다. 특기할 사항은 "어느 정도동의" 사항에서 남성이 15%인데 비해 여성들은 45%이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아직도 유교의 부부분업정신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명의 여성 중에서 "완전동의" 2 명, "어느정도 동의"9 명으로 11 명 즉 91%가 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대단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0.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남편이 결정한다.

응답내용/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1) 완전동의	1(5%)	1(5%)	2(10%)
(2) 어느정도 동의	6(30%)	4(20%)	10(50%)
(3)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	1(5 %)	1(5%)
(4)어느정도 반대	1(5 %)	---	1(5%)
(5) 완전반대	4(20%)	2(10%)	6(30%)
합 계	12(60%)	8(40%)	20(100%)

(표 10)에는 "완전동의"에 남녀가 동점이고 "어느정도 동의"가 50%로 수위인데, 여성들이 6 명으로 30%로, 남성들은 20%로 보다 높으다. 그러나 여성 12 명 중에
1 명이"완전동의"
혹은 "어느정도 동의"가 6 명이면, 여성 중에서 58%가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있다. 반명에 남성 8 명중 "완전동의"에 1 명과" 어느정도 동의"4 명으로서 8 명중에 83%가 동이하고 이있
다. 남녀 모두가 한국가족의 부부역할 분담 중 결정권은 여전히 남성위주적인 경향이다.

표 11. 아내가 남편에게 말 대꾸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을 누릴 수 있다.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1) 완전동의	---	---	---
(2) 어느정도 동의	7(35%)	4(20%)	11(55%)
(3) 반대도 찬성 도 아니다	---	---	---
(4) 어느정도 반대	2(10%)	2(10%)	4(20%)
(5) 완전반대	3(15%)	2(10%)	5(25%)
합계	12(60%)	8(40%)	20(100%)

(표 11)"어느정도"에 55%로 수위로 나타나 있으며 "어느정도 반대"20%, "완전반대" 25%을 합쳐도 "동의"가 2 배로 높다. 아직도 여성들의 침묵과 순종의 개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2. 부부가 일을 할 경우 남편은 집에서 요리, 설겆이등 집안일을 아내와 거의 같은 비율로 나누어 해야 한다.

구분	실 수		합계(%)
	여(%)	남(%)	
(1) 완전동의	5(25%)	3(15%)	8(40%)
(2) 어느정도 동의	6(30%)	2(10%)	8(40%)
(3) 반대도 찬성 도 아니다	1(5 %)	1(5%)	2(10%)
(4)어느정도 반대	---	2(10%)	2(10%)
(5) 완전반대	---	---	---
합계	12(60%)	8(40%)	20(100%)

(표 12) "완전동의" 8 명으로 40%, "어느정도"가 8 명, 40%로 동점이나, 이를 합치면 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에서 함께하는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다.

3. 목회자유능성 평가 설문

1) 연구반 명단(Site Team)

본인을 격려하며 시안을 넓고 새롭게 하는데 큰힘이 되어 준 연구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노영찬	남	47	교 수	부 목사	대학원졸	중상 ....(타 교회로 이전)
2.	박영일	남	53	시계점	장 로	고 졸	중 ....(타주로 이사)
3.	조병칠	남	54	보 험	장 로	대 졸	중상
4.	김한용	남	25	학 생	전도사(영어)	신학생	중 ......(타 주로 이사)
5.	홍성남	여	57	식 점	장 로	고 졸	중
6.	임정하	여	45	서 점	집 사	고 졸	중상 .....(중국 선교사)
7.	서은숙	여	49	식점원	집 사(회장)	대 졸	중하 .....(사망)

그러나 본 연구자의 논문이 뒤 늦게 계속되는 형편관계로, 그리고 연구반원들의 형편의 변화로 재조정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의 연구 명단 중에 다른 교회로 이전한 분이 4 분(1,2. 4, 6,) 이고, 사망한 분이 한 분(7 번)이다. 물론 팀목회자들도 모두 따나셨고, 본 연구자 자신이 현제 목회현장에 있지 않음으로, 위의 명단 중 2 분(3 번,5 번)과

[새로 재조정된 연구원 명단]

(Name)	(Sex)	(Age)	(Job)	(Church) Title	(School) graduate	(Economic) status
1. 이근실	여	73	은퇴	장로	대학원이상	중상
2. 김성희	여	63	가정	권사	대학원	중상
3. 이 영	남	65	의사	장로	대학원이상	중상
4. 송영두	남	75	자영	장로	사관학교	중
5. 홍성남	여	69	식당	장로	대학 중퇴	중
6. 조병칠	남	65	보험	장로	대 학	중상

2) 설문지 및 평가 통계표

-. Site Team 의 조명 -

때: 2008 년 12 월 16-일

곳: 엠마오감리교회 샤론합창단실

본 란은 연구존문을 위한 Site Team 의 종합평가로서 2008 년 10 월부터 익년 12 월까지의 연구한 활동의 실적을 설문서 측정법으로 연구의 부분적 항목을 작성하여 그 반응도를 측정해 보았다.

1. 후보자의 유능성, 신실성 및 스타일 평가

다음 사항을 읽고 이재희목사의 유능성, 신실성 및 스타일에 대하여 해당란에 가장 우수한

것부터 1, 2, 3, 4 로 표기 해 주십시요.

______ (1) 설교자
______ (2) 종교교육자
______ (3) 화목자
______ (4) 상담자
______ (5) 행정가
______ (6) 변혁자
______ (7) 신학자
______ (8) 목자/목사
______ (9) 지도자
______ (10) 범교회주의자

3) 연구반 유능성 평가 통계표

ㅡ 평가 기준 점수:

1 위 (4 점), 2 위 (3 점), 3 위 (2 점), 4 위 (1 점)으로 계산한다.

유능성 평가 정도	1(4)	2(3)	3 (2)	4(1)	총점	종합순위
설교자	1(4)	1(3)	....	1(1)	(8)	# 3
종교교육자	...	...	1(2)	...	(2)	# 8
화목자	3 (12)	...	1(2)	1(1)	(15)	# 1
상담자	1 (4)	2(6)	1(2)	....	(12)	# 2
행정가	1(4)	...	...	.....	(4)	# 4
변혁자					(0)	
신학자					(0)	
목자/목사		1 (3)		1(1)	(4)	# 4
지도자	1(4)	....	...	....	(4)	# 4
범교회주의자	1(4)	...	...	...	(4)	# 4
합계	8(32)	4(12)	4(8)	3(3)	19(57)	

위의 결과는

#1 화목자 (86 %)

#2 상담자 (77 %)

#3 설교자 (44%)

#4 목사, 지도자, 범교회자, 행정가 (16%)

#8 종곡육자(20%) 의 순위로 되어있다.

4. 신.구약 속에 나타난 여성지자들

1). 구약성서 속의 여성 지도자들

(1). 여 선지자 미리암(ים מר, Miriam)(출 2-15 장, 민수기 12 장)
출애굽기 2 장-15 장과 민수기 12 장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셔요.

a 미리암의 히브리 이름의 뜻은?

b. 미리암의 부모 이름은?

c. 미리암의 형제들의 이름은?

e. 미리암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f.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g. 미리암이 생모와 아기를 연결시켰는데 그 영향력을 생각해 봅시다.

h. 미리암은 어떤 지도자였읍니까?

2. 여 사사 드보라(בדוה,Deborah) (삿 4-5 장)
사사기 4-5 장을 읽고 다음에 대답해 보십시다.

a. 드보라의 히브리어 이름은 ?

b. 드보라와 삼손을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를 느낍니까?

c. 드보라는 어떤 여성지도자였읍니까?

e. 출애굽 후 왜 왕 세우기를 거부했읍니까?

3). 민족을 구한 왕후 에스더(רתסא,Esther) (에 1-7 장)
에스더 1-7 장을 일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a.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b. 에스더의 대화의 기술(Communication skill)는 어떠했읍니까?

c. 에스더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 와스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 평가 해 봅시다. 여러분이 와스디였다면 어떻게 처신했겠읍지까?

2). 신약성서 속에 나타난 여성지도지도자들

다음 3 여성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예수님의 여제자들입니다.

(1) 그리스도를 고백한 마르다
요한복음 11 장 17-44 절까지 일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다음 질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X 를 하시요.

a. 마르다의 메시아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어떻게 다릅닙까?

(1) 똑 같은 메시아 고백이다.( )
(2)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다르다.( )
(3) 그 동안 마르다의 고백은 가리워져 왔다.( )
(4) 베드로는 더 위대하다.( )
(5) 기타 ( )

(2). 최초로 신학을 논하고 메시아를 증언한 사마리아 여인(요 4:1-19)
다음을 읽고 옳타고 생각되는 곳에 x 표를 하시요.

a 다섯 남편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합니까?

(1) 창녀로 취급되어야 한다. ( )
(2) 인생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며 노력한 모습으로 볼 수 도 있다.( )
(3)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
(4)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준다.( )
(5) 기 타 ( )

b.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증언했읍니까?

(1) 예수에게서 자기가 찾던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
(2) 다섯 남편이 있었던 것을 알아 내서 감복했다. ( )
(3) 하나님 예배 문제를 바로 알게 되었다.( )
(4) 메시아로 만난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 기 타 ( )

c. 예수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읍니까?

(1) 사마리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 )
(2)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서 천대받기 때문에 ( )
(3)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 )
(4) 사마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 )
(5) 기 타 ( )

(3). 메시아를 확인한 이름없는 여인 (마 26:6-13, 막 14:3-9, 요 12:1-8)
다음 질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x)표를 하십시요.

a 향유부은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사랑했읍니까?

(1) 300 데나리온 의 향유를 부음으로써 ( )
(2) 예수의 고민을 알고 장례로 준비하면서 ( )
(3) 그 당시 관습을 깨뜨리고 용감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 )
(4) 의로운 예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함으로서 ( )
(5) 기 타 ( )

b. 향유부은 여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용서받으려는 행동 ( )
(2)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주변의 장애를 깨뜨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은 일을 단행한 사람 ( )
(3) 예수를 이해하고 사랑한 사람으로 기리 기억되어야 할 사람으로 ( )
(4) 가나안 사람을 동정하는 자선행위보다 건세계에 메시아를 전한사람( )
(5) 기 타 ( )

다음은 바울의 여동역자들입니다.

(4). 겐그리아 교회의 목사(διακονοος) 인 뵈뵈(롬 16:1-2):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a. 뵈뵈가 바울로부터 받은 두 가지 칭호는 무엇입니까?

b. 뵈뵈와 같은 여성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5). 부부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마서 16 장 3-4 절):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다.

a. 브리스길라의 가정교회가 세워진 지명 셋은?

b. 브리스길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을 만났읍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볼로가 복음을 잘못 증거할 때 시정해 주었읍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런 입장이 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x 표를 하십시요.

( ) (1) 훌륭한 선교사들은 자기일을 알아서 할 것이다.
( ) (2) 남에게 간섭하는 일(특히 영적인)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 ) (3) 남편이 결정하도록 한다.
( ) (4) 브리스길라 처럼 한다.

(6). 탁월한 사도로 불리운 유니아(롬 16:7)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a. 유니아가 받은 참된 사도직의 의미를 우리 현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b.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브리스길라, 뵈뵈, 유니아 같은 여성을 찾아 봅시다. 나는 어느 입장입니까

6. 은사검사

참고 자료: (1) Beverly LaHaye, *The Spirit Controlled Women*_.Tr. by Eunyes Riew.
Harvest House Publishers, Irvine,CA, 1976.
양은순력,(성령충만한 여인).서울:생명사,1978.
(2) Bruce Bugbe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 Work: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For the Right reasons. Participants Guid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A. 다음에 성경을 일고 각 성경구절에 기록된 영적 은사들을 열거해 봅시다.

(고린도 전서 12 장 8-10 절)

1. 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

(고린도전서 12:28) (로마서 12: 6-8)

10. ______________________ 14. ____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___ 15. ___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 16. ______________________
13. ______________________ 17. ______________________

(에배소서 4:11) (로마서 12: 6-8)

18. ______________________ 20. ______________________
19. ______________________

(출애굽기 31:3)

21. ______________________

(디모제전서 2:1-2) (시편 150:3-5)

22. ______________________ 23. ______________________

B. 다음에 19 가지 영적은사 중 가장 자기에게 유능한 것 부터 3 가지만 선택해 보십시요.

1. 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

[19 가지 영적은사들]

1. 행정(Admimistration)	7. 믿음(Faith)	13. 지도(Leadership)
2. 사도 (Apostleship)	8. 주기(Giving)	14. 자비(Mercy)
3. 공예 (Craftsmanship)	9. 도움기(Helps)	15. 예언(Prophecy)
4. 경건 (Discernment)	10. 친절 (Hospitality)	16. 목자(Shepherding)
5. 격려 (Encouragement)	11. 중보(Intercession)	17. 가르침(Teaching)
6. 전도 (Evangelism)	12. 지식(Knowledge)	18. 지혜(Wisdom)

C. 여성의 기본적인 네가지 기질

인간의 본성의 일부로서 기질도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영적 성품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네 가지 기질이 여러가지로 혼합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혹은 네가지 기질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기질을 결정하고 그 기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령께서 장점을 증가시키시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길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네 가지 기질을 (1) 우울질, (2)점액질 (3) 담즙질, (4) 다혈질)이다.

각 기질마다 4 분야 즉, (1) 직업과 취미 (2) 감정 (3) 대인관계 (4) 활동에 대하여 검토를 하면서, 이 중에서 취미(1)와 활동(4) 분야만을 선택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분야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우울증

우울질의 여성은 내성적이며 끊임 없는 자기 검토를 통해 너무나 자신에게 집착 되어 착되어 있기 때 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녀가 "고통스러운"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 한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어둡고 우울하며 염세주의자 이지만 아주 재능이 많고 천재적인 수가 많다.

1) 직업과 취미

예술가, 음악가, 재봉사, 요리사, 회계사, 미용사, 운동관람가, 교육가(보통 수학, 혹은 영어, 내부 장식가, 패션 디자이너, 작가, 기술자, 시인(시를 쓰거나 감하는)

2) 활동

(1) 장점	(2) 약점
-- 강한 완전주의자적인 경향이 많다.	-- 우유부단하다.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일을 좋아한다.	-- 이론적이며 비실제적이다.
-- 지배력이 있다. 맡은 일을 곧 마친다.	— 쉽게 피로한다.
— 창조적이고 지적인 일에 적합하다.	—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주저한다.

-- 양심적이고 철저하다.
-- 재능이 있고 천제적이다.
-- 자신의 한계를 안다.

-- 너무 분석적이다; 실망하게 된다.
-- 일생의 과업은 가장 큰 희생과 자기 부인과 봉사를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 필요 이상으로 기분에 젖는다.

2. 점액질

점액질의 여성은 지나치게 내성적이며 자신에 대해 독특한 침착성을 지니고 있어서 느끼고 태평스러우며, "균형잡힌" 기질이다. 그러한 여성은 고집이 세고 우유부단하며 운명에 맡기기를 잘한다.

1) 직업과 취미

가정주부, 훌륭한 어머니, 장부 재원, 상담자, 교사(국민학교), 기술자, 마지 못해 하는 지도자 행정관, 재봉사, 비서, 일류요리사, 운동관람가

(1) 장점

--침착하고 믿을만 하다
--성격이 좋고 서귀기 쉽다.
--말은 많지 않아도 명랑하고 유쾌하다.
—마음씨가 친절하다.
--평화를 사랑한다.

(2) 약점

--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 염세적이고 두려워 한다. 염려한다.
-- 크게 웃는 일이 드물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다.
-- 타협적이다.
— 독선적이다.

2) 활동

(1) 장점

-- 압력을 받아도 일을 잘한다.
--실제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일하나 보수적이다.
-- 단정하고 능숙하다
-- 안정감을 준다.
--믿을 만한 일꾼이다.

(2) 단점

-- 조용하고 가라 앉은 방관자이다.
-- 느리고 게으르다
-- 마지 못해 하는 지도자이다.
-- 동기가 부족하다
-- 우유부단하다
-- 개입하지 않고 자신을 지타치게 보호한다

3. 담즙질

담즙질의 여성은 외향적이며 아마 생산적일 것이다. 그로 인해 그저는 "활동적"인 기질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 담즙질의 여성은 아주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하다.

1). 직업과 취미

강력한 지도자, 전문적인 직업인, 여성단체의 회장, 가정접대자, 행정비서, 운동경기 참여자, 육성화 회장, 행정관, 고등학교 교사, 선거 위원, 은행 책임 사무원, 개혁운동자.

(1) 장점

(2) 약점

—자신이있고 결단력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고 자기 결정력이 있다.
— 낙천적이다.
— 자부심이 강하다.
— 두려움이 없고 대담하다.

— 벌컥화를 내는 문제가 있다.
—아주 고집이 세다.
— 남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다.
— 남정적이 아니며 차다.
—미적 감각이 둔하다.
— 동정심이 없고 거칠다.
— 성급하고 격렬하다.
—눈물에 혐오감을 가진다.

2) 활동

(1) 장점

— 훌륭한 조직자요 추진자이다.
— 결단성이 있다. 결정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다.
— 비상시에 신속하고 대담하다.
— 머리가 예리하고 빠르다.
— 행동에 옮길 만한 큰 잠재력이 있다.
— 동요되지 않는다.
— 아주 실제적이다.
— 남에게 자극을 주어 활동하게 만든다.
— 반대 속에서도 성공한다.
— 목표를 세우고 거기 도달한다.

(2) 약점

—지나치게 자신 만만하다.
—교활하다.
—편견이 있다.
— 독단적이다.
—미세한 것에 실증을 낸다.
—분석력이 없다.
— 남에게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라고 강요한다.
— 따분하고 남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한다.
— 자신의 계획이나 추진에만 시간을 보낸다.

4. 다혈질

다혈질의 여성은 지나치게 외성적인 정신과 재능으로 "유쾌한" 기질이라고 불리우기게 적합하다. 다혈질의 여성은 따뜻하고 활발하며 파티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1). 직업과 취미

여배우, 여자 연사, 판매원, 병자를 방문하고 돌보기, 훌륭한 요리사, 자발적인 일꾼,사랑이 많은 어머니, 보모, 지도자, 후한 대접에 정신을 쏟는 일, 접수 계원, 운동경기 참여자.

2) 활동

(1) 장점

—첫 인사이 좋다.
— 현재에 살기 때문에 실증을 내지 않는다.
—병자를 돌보는 은사가 있다.
—새로운 계획이나 추진에 쉽게 뛰어 든다.
—열정은 품고 있다.

(2) 단점

— 전혀 조직성이 없다.
— 신빙성이 없다.약속 시간에 늦는다.
— 절제가 없다.
— 일해야 할 때에도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한다.
— 주위가 쉽게 산만해 진다.
— 목적 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

1. 위의 네 가지 여성들의 기질의 장점과 단점을 상고할 때에 가장 가까운 당신의 기질은?
( )안에 x 를 하십시다.

( )우울질

( ) 점액질

( ) 담즙질

( ) 다혈질

2. 당신의 기질 중 개발해야 할 2 가지 단점을 적어 보시요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이 계속 지키고 더욱 양성해야 할 장점 2 가지를 적어 보십시다.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이 돕고 싶은 사람들은 ? ( ) 속에 X 표를 합시다.

( ) 유아	( ) 독신부모	( ) 독신남.녀	( ) 실업자
( ) 어린이	( ) 대학생	( ) 직업여성	( ) 육체불능자
( ) 사춘기청년	( ) 이혼남.녀	( ) 젊은 부부	( ) 감옥수
( ) 청년엄마	( ) 과부	( ) 노인	( ) 심방

기타 ____

6. 특강(Special Lecture) 및 쎄미나 강연:

아래에 기록된 것은 본 연구자의 여성지도자 수련회에서 특강한 주제 강연내용이다. 이 자료들을 특강의 내용으로 재사용한다.

(1) 주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자

—여성교회 지도자 수련회(1987. 4.25.)—

Koren-American Women's Organization of Presbyterian Church(U.S.A.)

Women's Organization of Mid Atalntic Synod of PCUSA

(2) 주제: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여성 지도자

—동부지역 여성교회 지도자 수련회(1987. 11.24.) —

Koren-American Women's Organization of Presbyterian Church(U.S.A.)

East Area Women's Organization of Mid Atalntic Synod of PCUSA

<이 주제 강연은 4 부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그 중의 한 부분인 " 한국여성의 어제와 오늘"에서 "어제"에 대한 것만을 강의하겠다.>

— 1 부 강연—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수록 동서양의 경우, 거의 다를 바 없이 여성의 지위는 높은 것이었다. 먼 옛날의 사제직인 무당은 여성이었고 모계(母系)를 계승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불교가 성했던 신라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거의 평등하고 자유스러웠던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고려초기에도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데 남손(男孫)이 없 을 경우는 여손(女孫)이어가게 하였다. 고려후기에 오면서는 잦아지는 외적(外敵)의 침입에 대한 공포와 우세한 외적이 동정녀(童貞女) 를 바치라는 영(令)을 내림으로 공녀(貢女) 제도가 생기자 여자는 집 안에 숨겨두어야 했으며 부득불 외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게 하여 공녀가 되지 않게 주의를 하는 한편, 일찍 결혼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 유교와 여성의 비인간화 —

역사적으로 유교는, 특별히 이조시대(1392-1910) 때에 무려 500 년간 국교로서 한국문화와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등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유교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낮게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고려 말기 유교의 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 이조 왕조시대가 되면서 왕권을 강화하여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유교에 기초한 이념을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군신(君臣)간의 철학으로 여기게 하였고, 이러한 논리를 뒷 받침하여 여자에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女不事二夫)"는 열녀관(烈女觀)을 강조하게 되었다.

과부에 대한 규정 또한 엄격하였다.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과부의 문제가 가능했다. 즉 과부 아닌 과부"Technical widow"이다. 즉 "태어난 과부"(born widow)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흔히 임신한 어머니들이 때때로 태어나지 않은 애기들 간에 약혼을 약정했다. 만일 남자애기가 여자애기 출산하기 전에 죽으면, 이러한 사실이 인위적으로 탄생되지 않은 여자애기는 출생 즉 과부 즉, "Techmical widow를 만들어 진다. 즉 애기 '생과부'가 되는 것이다. 후에 그 애기가 장성하여 이혼하 면 "과부의 재혼녀"가 되며, 처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9)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시가의 충실하고도 얌전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시가에 충실히 충복이 되는것을 절조를 지킨 미덕으로 칭송하고 미화시켜서 사실상 재혼의 길을 막았다.

여성은 자연히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세不東席),부창부수(夫唱婦隨),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현모양처 등을 강조하게 되었는 데, 이 같은 여성관은 주로 주자학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유교적 남녀윤리의 기본이 되었다.

남녀유별(男女有別)은 하나의 기본적 신분사회적 질서 였는데, 남녀칠세부동석을 목표로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존여비와 함께 여성생활을 평생을 통하여 속박하는 큰 멍에였다. 그러므로 남녀칠세부동석의 남녀분리는 여성의 비인간화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었다. 즉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남녀의 구별은 엄격했다. 남자는 앞방에 거했고, 여성은 뒷 방 보이지 않는 방에 은거 했다. 밖에서나 공중에서도, 부인은 남편의 뒤에서 서너 발 뒤에서 걸어야 했다. 남자들 은 대 낮에 자유로 활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즉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종이 울리면, 소위 "여자의 시간"에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여자가 만일 낮에 나가려면 얼굴을 가리 우는 쓰세 치마 혹은 장옷을 입어야 했다.

이러한 남녀구별은 20 세기 초까지 격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남녀분리로 하여, 여성들은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결국 여성들은 사회활동들에서 독립할 기회들로부터 제외되었다. 여성들은 또한 정규교육을 받는 것이 허락 되지 않았다. 또한 가정 밖의 세상에서 자기의 생업(career)에 필요할 재능이나 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다. "여성의 재능의 결여 그 자체가 덕(德)이었다." 그리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격언이 여성들의 세상욕망을 점검하기 위해 흔히 쓰였다. 그 결과로 여성들 중에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게 되었고 남자보다도 여성들 중에 문맹과 무식이 더 높았다.

유교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초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데 있다고 보았고,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유교 윤리는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지아비=하늘'이라는 등식을 여성을 여성들의 가슴 깊이 새겨 주었다. 또한 부부유 별(夫婦有別)이 강조되어 우주 만물에 하늘과 땅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남(男)과 여(女)가 있어 하늘과 땅의 구분처럼 남자의 업(業)과 여자의 업(業)이 완전히 구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교적 남녀윤리가 여성으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권리마저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악법이다. 칠거지악은 이혼 조건에 해당하는 일곱 가지 조항이다.

(1)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여자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3) 음란한 여자 (4) 질투가 심한 여자
(5) 불치병을 가진여자 (6) 말이 많은 여자
(7) 도둑질을 한 여자 등이다.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무자(無子)도 여자만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살아서도 시집귀신 죽어서도 시집귀신'이 되어야 하는 출가외인(出家外人)으로서 소박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의 형벌이 아닐 수 없다. 이혼을 당할 때에도 결혼 후의 남편과 자기와의 동공생활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물론 결혼시 자기가 지참한 재산까지도 몰수 당하고 할 수 없는 일로 체념한다. 또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도 남편의 집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하므로빼앗기고 맨몸으로 쫒겨나도 팔자소관으로만 돌리고 있다.

삼종지도(三從之道)란, 여성이 어릴 때는 딸로서 아버지를 따르고, 혼인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사후(死後)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3 가지 계율이다. 즉 여성의 일생 모두가 남성들에게 의존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을 가정적 역할로 한정시켜 부계가족에 예속시키는 유교 윤리였다.이러한 모든 규정은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가부장적 관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남성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여자들의 자유를 비참하게 박탈하였다. 이런 유교의 봉건적인 사회에서의 여성은 한 마디로 문서 없는 종(slave)과 같은 것이었다. David 과 Vera Mace 는 여성의 기능은 4 글자 즉 "obey"(복종) 의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 다고 했다. 여성은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피조물인 것이다.

여성들은 평생 이름이 없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여성비하를 가져온 여성의 학대이었다. 결혼 전에는 단순히 소녀 쩍 애칭으로 불리었다. 예를 들면, 섭섭하다고 해서 "서분이",

"서운이", "섭섭이", 화가 난다고 해서 "분통이", 후회스럽다고 해서 "유감이", 언짢다고 해서 "언년이", 곱다고 해서 "곱다니", 복스럽다고 해서 "복실", 큰 아이라 해서 "큰 년", 작은 아이라고 해서 "작은 년"이라 했다. 결혼 후에는 소녀 때의 애칭은 사라지고, 오로지 남편의 가족의 성을 따서 공중에 알려졌다. 즉 "김씨", "최"씨" 등으로 불리었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에 어머니를 붙여서 "복실이 어머니" 등으로 불리었다. 이것은 한국인의 성격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부녀의 지위는 극도로 낮았다. 부인은 남편을 '가장', '집주인'이라 칭하고, 남편은 부인을'여편네', 심지어는 '부엌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부인보다 앞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부인에 대하여 '그 계집이 남편을 잡아 먹었다'라고 칭했다. 한국여성들은 일평생 온전한 인간이 아니요, 종이나 개나 매 한가지였고 남자의 노리개요 남자의 소유에 불과했다. 여성들이 어려서 부터 평생토록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장했으니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나 부정적으로 부각되었을까 상상이 된다.

1909 년 국가의 등록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이름을 갖지 못했다. 미혼녀는 이성녀(李性女),김성녀(金性女)로 기혼 부인에게는 이씨부인, 김씨부인, 과부에게는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로 불렀다. 1909 년에야 그해의 인구조사 등록에 따라서 비로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이름이 주어 졌다.

이미 여성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소위 '얌전한'성격을 형성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러나 이 '얌전하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의 개성,감정,욕망, 주장 등을 억압하여 항상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집단의 구성원, 예를 들어 부모,남편, 시뷰모,시숙,시동생, 시누이 등에 대해서 비굴 복종의 태도로 대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에서 여성은 자아를 부정하는 고난의 생활로서 이것을 '시집살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시집살이의 성격을 잘 나타낸 말에 "벙어리 3 년,소경 3 년, 귀먹어리 3 년"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세월을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회 속에서 가정(家庭)이란 이름하의 감옥에서 사랑보다는 제도에 의해 복종하며 살아온 한국여성들에게는 남다른 특수한 성격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자아(自我)를 상실한 채 수즙음과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간됨을 부인하고야 가능한 것이다. 시집식구들의 갖은 학대와 멸시 등 온갖 역경 속에서도 참아야만 하는 것이 운명이었기에 형성된 성격은 인고성향(忍苦性向) 이었다. 노예같이 혹사당하는 한국여성은 흡사 "목석"(木石)과도 같았다. 즉 움직이는 목석(木石)이었다

한국여성사는 바로 얼마만큼 여성을 목석화(木石化)했느냐 하는 여성인격의 말살과정

을 뜻한다. 집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릇 한죽 헤아릴 수 있는 지능마저도 허락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지어 보일 수 있는 기능마저도 허락받지 못했으며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미소 지어 보이는 정도의 감정표시 조차 부덕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움직이는 목석(木石)을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여성의 인고성향(忍苦性向)을 농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남성들의 횡포가 여성 본연의 실존적 자세마저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한국에 천주학이라는 신교가 들어오자 한국여성들은 오랫동안 막연하게 그려오던 탈출구에 눈을 떴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억눌려 온 묵은 모럴에 저항했고 또 그토록 가혹한 고문을 감당해 왔으며, 사지를 찢기 우면서도 웃으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교리엔 무식했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것은 한국여성이 당한 사회적인 구속에 대한 반발이요 또 그 사회적 구속으로 농축된 인고성향의 발로인 것이다.

기독교 선교 이전의 한국여성의 삶은 새 날을 기다리는 캄캄한 밤의 연속이었으며, 목마르게 자유의 날을 기다리는 억울한 죄수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 긴 밤의 세월은 한국여성으로 하여금 빛을 기다리는 심정에서 복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강열한 신앙의 바탕과 수난을 이겨나갈 인내를 갖게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계획 중에서 한국여성을 동역자로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여성의 농축되었던 모든 잠재적 능력은 복음을 받고 나니 눌렸던 만큼 정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힘차게 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 제 2 부 웍샵—

A. 그룹만들기(Small group)

앞사람부터 1, 2, 3, 4, 번호를 반복해서 부른다. 같은 번호끼리 한 그룹을 만들고, 같은 번호의 그룹이 한 자리에 앉게 한다. 그리고 다음의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1. 각자의 이름을 소개합시다.
2. 각자의 이름의 뜻은 ?
3.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는 ?
4.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부장제적 고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의논해 봅시다.

B. 전체가 다시 재합(Large group)

위의 질문들을 가지고 나눈 이야기들을 각 그룹의 대표를 선정하여, 전체 그룹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시간표(Schedule)-주보

(1) 주제: <u>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자</u>

—여성교회 지도자 수련회(1987. 4.25.)—

Koren-American Women's Organization of Presbyterian Church(U.S.A.)

Women's Organization of Mid Atalntic Synod of PCUSA

기타 연구 활동- 여선교회 주최 장기 대회



사진 **(1)** 교육부 총무가 된 김집사님이 장기자랑 대회에서 개회인사하고 있다.



사진**(2)** 임집사님이 남자집사님과 장기대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3) 여선교회 주최 장기대회에서 연출하는 교인들 관경







BIBLIOGRAPHY
--참고문헌--

1. 외국서적

BIBLICAL

Bleicher, Josef. *현대解釋學.방법,철학,비판으로서의 해석학.* 권순홍역. 서울: 한미당, 1990.

Bright, John. *구약성서의 권위.* 임권호. 임태수역. 서울: 콘코디아 출판사, 1979.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 John Knox Press, 1973.

_______.*Living Toward A Vision . Biblical Reflectons on Shalom.* New York: United Churches Press, 1982.

Cox, James W. Ed. *Biblical Preaching. An Expositor's Treasury.* AComprehensive *Guide for Timely Biblical Exposition from every part of the Scriptures -including over 200 sermon outlin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Edith Deen, *All of Women of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3.

E .S. Fiorenza. ed. *Searching the Scripture: A Feminist Introduction,*Vol.1. New York: Crossroad, 1993.

Funk, Robert W. *Language, Hermeneutics, and Word of God. The Problem Of Language in the New Testament and Contemporary The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Gottwald, Norman K. *The Bible and Liberat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5.

Hoope, Leslie J., *Being Poor. A Biblical Study.* Michael Glazier, Inc., 1987.

Hunter, A. M. *신약성서개론.* 박창황역. 서울: 콘코디아 출판서, 1982.

Jawett, Paul K, *Man as Femal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1975.

MacHaffie, Barbara J., ed. *Readings in Her Story.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Mollenkott, Virginia Ramey. *Women, Men, the Bible. Revised edition with Study Guide* .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8.

Moltman, Juren. *해방의 언어* . 전경윤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Reik, Theodor, *The Creation of Woman,* McGraw-Hill Book Co., Inc., 1960.

Richards O. Sawrence. *창조적인 성서교수법.* 권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Russell, Letty M. ed., *The Liberating Word. A Guide to Nonsex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1976.

______. e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 Westminster Press,1985.

Scanzoni, Letha & Hardesty, Nancy. *All We're Mean To Be: A Biblical Approach to Woman's Liberation.* Waco, Texas: Word Books, 1974.

Shaller, Lylee. *The Changing Agent.* New York: Abingdon press, 1989.

Stewart, James S.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김덕중역. 서울: 콘코디아 출판서, 1983.

Swidler, Leonard, *Biblical Affirmation of Woman.* Philadelphia:Westminster Press, 1979.

Tamez, Elsa. *Bible of the Oppressed.* New York: Orbis, 1982.

Trible, Phyllis, *Text of Terror,* Fortress Press, 1978.

______.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Fortress Press, 1978.

______.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최만자역. 서울: 전망사, 1989.

Wink, Walter. *Transforming Bible Study. A Leader's Guide.* Nashville: Abingdon, Press,1980.

THEOLOGICAL

Andolson, B. H. *Women's Consciousness a Leader in Feminist Ethics.* Chicago: Winston Press,1980.

Anderson, James D. and Ezra Earl Jones. *Ministry of the La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 1986.

Andrew Kirk, J. *해방신학.* 전호진역. 서울: 정운사, 1983.

Anderson, Ray S.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Barth, Karl. *Church Dogmatics,*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Inc.,1961.

______. *The Humanity of God* . John Knox Press, 1970.

Boff, Leonardo. *Church, Charism and Power.* London: S C M Press, 1985.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3.

______. *나를 따르라.* 허혁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Bugbee, Brud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 Work. Understand God's Design For you in the Church. The Right People..In the right Places... For the Right Reasons. Participan's Guid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lbishers House, 1994.

Bristow, John Temple. *What Paul Really Said About Women. An Apostle's Liberating View's on Equality in Marriage. Leadership and Love.* San Francisco :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88.

Brown, Robert M. *영성과 해방.* 이재원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Cady, Susan. *The Future of Feminist Spiritu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6.

Cady, Susan, Marian Ronan, and Hal Taussig. *Wisdom's Feast. Sophia in Study and Elebration.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f Sophia: The Future of Feminist Spiritual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6.

Carr, Anne E., *Transforming Grace: Christian Tradition & Women's Experienc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8.

Carrol, Jackson W.,Hargrove, Barbara and Lummis, Adair T. *Women in Cloth. A New Opportunity for the Churches.*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1981.

Chopp, Rebecca S. *The Power of the Speak. Feminism, Language, God.* New York: Crossroad, 1991.

Christ, Carol P. *Diving Deep and Surfacing: Women Writers on Spiritual Quest.* Boston: Beacon Press, 1980.

Christ, Carol P.& Plaskow Judith, ed., *Woman 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Clark, Elizabeth, *New woman New Earth.* New York: The Seabury Book, 1975.

_______. *Woman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1977.

Clyde, Hoeltke. *A Theology of church Leadership.*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Cobb, John B. Jr. and David R. Griffin. *Process Theology. An Introductory Expos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6.

____. *종교다원주의와 오직예수.* 강성도역. 서울: 조명사, 1992.

Cone, James H. *God of the Oppressed* .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1975.

____. *Liberation. A Black Theology of Liberation.* J. B. Lippicott Company, 1970.

Conn, OannWalski. *Women's Spirituality:Resources: Christian Development.* New York: Paulist Press, 1986.

Cornwell, Collective. *Your Daughters Shall Prophecy.* New York: Pilgrim, 1980.

Costas, O. E. *성문밖의 그리스도.* 김상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Coward, Harold G. *Pluralism.* Challenge to World Religion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Cullmann, Oscar,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PA: The Westminster Press, 1957.

Daly, Mary,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68.

_______. *Beyond God the Father: Toward a Philosophy of Women's Liberation* Beacon Press, Inc., 1973.

Duchrow, Ulrich . Liedke, Gehard. *샬롬*. 손규태. 김윤옥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Fabella, Virginia, Park and Sun Ai Lee. *We dare to Dream.* Hong Kong: AWCCT, 1989.

Fenhagen, James C. *Mutual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77.

Fiorenza, Elizabeth S.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Beacon Press, 1984.

_______.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93.

Grant, Jacquelyn. *White Women's Christ and Black Women's Jesus. Feminist Christology and Womanist Response. Academy Series,* No.64. Atlanta, GA : Scholars Press, 1989.

Gutie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1988.

Hahn, Celia A., *Lay Voices in an Open Church. Washington, D.C.* The Alban Press, 1985.

Hardesty, Nancy *A., Women Called to Witness, Evangelical Feminism in the 19the Centur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4.

Hiltner, Seward. *목회신학 원론*. 민경배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Hull, Gretchen Gaebelein. *Equal to Serve. Women and Men in the Church and Home. A Crucial Questions Book.*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85.

Gibbs, Mark and Morton T. Ralph. *평신도의 해방.* 이계윤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Johnson, Elizabeth A.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 New York : Cross Road, 1993.

Katoppo, Marianne, *Compassionate and Free. An Asian Woman's Theology.* World Council Churches,1976.

Krieger, David J., *The Universalism, Foundations for a Global Theology.* Maryknoll, New York: Orbits Books, 1991.

Kung, Hans. *The Church.* London: Burns Oates, 1967.

LaHaya, Beverly. *Spirit Controlled Woman.* Translated by Eunys RiewIrvine, CA: Harvest House Publishers,1976.

Lane, Dermot A. *The Experience of God.-An Invitation to Do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81.

Lois, Julio. *해방신학의 구조와 논리.* 김수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Luthi, von Kuit. *하나님의 새이브.* 김윤옥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Marney, Carlyle. *Priests to Each Other.* Valley Forge, PA: Judson Press,1974.

Michell, Ella Person. *Women: To Preach or Not to Preach. Outstanding Black Preachers Say Yes!.* Judson Press, 1991.

Moltman, Jurgen. *오늘의 신학 무엇인가.* 차옥성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_______.*희망의 신학.* 전경윤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_______.*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김견친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Nei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I. Human Destiny. New York: Charles Scriber's Sons,1964.

_______.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79.

Neuwen, Henri J. M.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Image Books Doubleday, 1990.

Oates, Wayne E. *The Christian Pasto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2.

Ochs, Carol, *Women and Spirituality.* New Jersey: Rowman & Allanheld, 1983.

Olmsted, Michael S.& Paul A. Hare. *A Small Group.* New York: Random House, 1978.

Plaskow, Judith & Christ, Carol P. *Weaving the Vision. New Patterns in Feminist Spirituality.*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1989.

_______.*Sex, Sin, Grace.*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0.

Power, David N. *Gifts That Differ.* New York: Pueblo Publishing Company, 1980.

Rad, Gerhad von, *Old Testament Theology.* San Francisco :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62.

Richards, Lawrence O.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Ro Young-Chan, *The Korean Neo-Confucianism of Yi Yulgok.*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1989.

Rowthorn, Anne. *The Liberation of the Laity.* Wilson, Connecticut : Morehouse-Barlow Co. Inc., 1986.

Ruether, Rosemary Radford. *Sexism and God-Talk. Toward a Feminist Theology.* Boston: Beacon Press,1983.

_______.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73.

_______. *Women-Church, Theology & Practice of Feminist Liturgical in Commun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5.

_______. Christian Feminism.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4.

_______. ed. *Religion and Sexism.* New York: Simon & Scuster, 1974.

Russell, Letty M. *Human Liberation in a Feminist Perspective-A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_______. *The Future of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_______. *Grow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Russell , Letty M. and Judith L. Weidman, ed. *Christian Feminist : Vision of a New Humanity .* Sanfrancisco: Harper & Row, 1984.

Segundo, Juan Luis. *A LiberationTheology: 15th Anniversay Editi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the author.* Maryknoll,New York: Orbis Books, 1988.

Stacker,Joe R.& Bruce Grubbs. *Shared Ministry.* Nashville: Convention Press,1985.

Stone, Howard W., *The Caring Church. A Guide for Lay Pastoral Car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3.

Suchocki, Marjorie Hewitt. *God- Christ- Church. A Practical Guide to Process Theology* . New York: Crossroad, 1986.

Swidler, Leonard.ed. *Toward a Universal Theology of Religion.* Maryknoll, New York: Orbits Books, 1988.

Syers, Dorothy, *Are Women Human?*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ers, 1978.

Snyder, T. Richard. *Once You Were no People.* I.N.: Stone Books, 1988.

Tillich, Paul and Robert C. Kimball.Ed. *문화의 신학.* 김경수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Trible, Phyllis.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Fortress Press, 1978.

United Church of Christ. *Pastoral Letter On Contemporary Racism And The Role Of the Church.,* The United Church of christ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 Eerdmans, 1073.

Wahlberg, Rachel C., *Jesus According to a Woman.* Paulist Press,1975.

Wever, Christian Lore, *Women Christ: A New vision of Feminist Spirituality.* San Francisco : Harper & Row Publishers, 1987.

Young, Pamela Dickey. *Feminist Theology / Christian Theology: In Search of Meth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SOCIOLOGICAL / HISTORICAL

Banks, Robert. *Paul's Idea of Community: The Early House Churches in their Historical Setting*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Baum, Gregory. *종교와 소외.* 이원규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Bloesch, Donald G. *세계의 예수 공동체.* 김현진역.서울: 문실출판사, 1991.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Translated by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54.

Buber, Martin. *I and Thou. A new translation, with a prologue and notes.* Translated by Walter Kaufmann.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1970.

Carmody, Denise Lardner. *여성과 종교.* 강돈구역. 서울: 서광사, 1979.

Cassidy, Richard J. *예수, 정치, 사회.* 한완석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Chan, Sucheng. *Asian American. An Interpretive History.* Boston: Twayne Publishers,1991.

Cooley, Frank L. *The Growing Seed . The Christian Church in Indonesia.* Jakarta, Indonesia: Dewan Gereja-Gereja di Indonesia,1982.

Geerts,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Gonzalez, Justo L. *근대 교회사.* 서영일역. 서울: 은성사 , 1988. 1991.

Haines, Byron L. and Frank L. Cooley, *Christian and Muslims Together. An Exploration* by Presbyterian. Philadelphia: Geneva,1987.

Holland, Joe and Peter Henriot ,S .J. *Social Analysis.* Washington, D. C.: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1983.

Kim, Byung Suh and Sang Hyun Lee. *The Korean Immigrant in America.* Montclair. AKCS Publishing Series, 1980.

Kim, Dai Kyun, *A History of Korean-American Church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Celebration 25th Annisversary of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1972-1996.* National Korean Presbyterain Church (U.S.A.), 1999.

Lee, Inn Sook. *Korean-American Women. Toward Self-Realization.* Ohio: AKCS, 1985

Lee, Sang Hyun. *Korean-American Ministry.* Presbyterian Church(U.S.A.),1987.

Min, Byung Gap. Minority Group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anaan Printing Co., 1990.

Mindel, Charles H., Robert W. Habenstein & Roosevelt Wright,Jr.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New York: Elsevier, 1988.

Nachmias, Davis & Chava.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51.

______.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035. Reinhold Niebuhr, 1963.

Papp, Peggy. *The Process of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1983.

Rhim, Soon Man. *Women of Asia. Yesterday and Today. India, China, Korea, Japan.* New York: Friendship Press, 1983.

Sowell, Thomas. *Ethnic America. A History.* Basic Books, Inc., 1981.

Snyder, T. Richard. *Divided We Fall. Moving from Suspicion to Solidari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Vinger, M. *종교사회학.* 한완상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Ward, Barbara E.. *Women in the New Asia- The changing Social Roles of Men and Women in south and South East Asia.* Amsterdam, Unesco: Jacket and Plates Printed by Arbeidtspers, 1963.

PSYCHOLOGICAL

Adams, Jay E. *성공적인 목회상담.* 정삼지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Belenky, Mary Field, B.M. Clinch, N. R. Goldberg, and G.M.Tarule.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 Basic Books Inc., 1973.

Bolen,Jean S. *Goddness in Every Woman, A New Psychology of Women.*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71.

Carl R. Rogers.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성호역. 서울: 지문각, 1969.

Christ, Carol P., *Diving Deeps and surfacing.* Boston: Beacon Press, 1980.

Cinebell, Charotte H., *Counseling for Liber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Clinebell, Howard J.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 Growth.* Nashville: Abingdon Press,1966 and 1984.

_____. *Growth Counseling: New Tools for Clergy and La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3,1974.

Collins, Gray. *크리스챤 카운셀링.* 피현회. 이혜련역.서울: 노라노 서원, 1984.

Conn, Oann Wolski. *Women's Spirituality. Resources for Christian Development.* New York: Paulist Press, 1986.

Cramer, Raymond L.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 정동 S.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1981.

DeMarinis, Valerie M. *Critical Caring, A Feminist Pastoral Psychology.* Louiville, KY: John Knox Press, 1993.

Droege, Thomas A. *Faith Passages and Patter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1983.

Fowler, James W. *Faith Development.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1.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Gleason, John J. *Growing Up to God. 8 Steps in Religious Develop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Gould, Roger L.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Touch Stone books, 1978.

Honey Karen. *여성 심리학.* 이근수. 이동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 1982.

Huntley, Charles Betts. *목회상담학.* 박종열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0.

Johnson, Paul E. *종교심리학.* 김관석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원, 1964.

Kegan, Robert. *The Evolving Self. Problem and Process in Human Development.*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Kelsey, Morton T. *Christianity as Psychology. The Healing Power of the Christian Messag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Kirwan,T.William.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Michigan: Baker Book House, 1984.

Lierop, Peter van. *牧會相談概論*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78.

Miller, Baker, Jean. *Towards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1976.

Nouwen, Henri J. M. *The Wounded Healer.* New York: Doubleday, 1972.

Scharf, Anne Wilson. *Women's Reality.* Minneaplis: Winsoton Press, 1981.

REILIGIOUS / EDUCATION

Broqning, Robert L.ed. *The Pastor As Religious Educator.* Birmingham,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1989.

Christian Reformed Home Missions, *Discover Your Gifts.* Grand Rapids, MI: Church Deveopment Resoures, 1983.

Coward, Harold G. *Pluralism: Challenge to World Religion.* Marykroll, New York: Orbis Books, 1985.

Dewolf, L. Harold. *신앙과 교육.* 조향록역. 서울: 한국 기독교교육원, 1969.

Everist, Norma J. *Education Ministry in the Congregation. Eight Ways We Learn from One Anothe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1983.

Ford, Leighton, *Tranforming Leadership. Jesus' Way of Creating Vision, Shaping Values and Empowering Change.* _ILL.Inter Varity Press, 1991.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s.*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1992.

Gangel, Kenneth O. *Building Leaders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70.

Gordon,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 Christian Studies Center, 1981.

Horne, Herman Harrell. *예수님의 교육방법론* . 박영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Howe, Margaret E., *Women and Church Leadership.*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Hunt, Susan & Hutcheson, Peggy, *Leadership for Women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1991.

Johnson, David W. & Johnson, Frank P. ed. *Joining Together. Group Theory and Group Skills.* 2nd. edtion. NJ: Prentice-Hall,Inc., Englewood Cliffs, 1975,1982.

Kelly, Eugene W. Jr. *Effectiv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Washington,D.C.: 1979.

Leypoldt, Martha M., *Learning is Change. Adult Education in the Chruch.* Valley Forge: Judson Press,1971.

Little, John W. *예수의* 교수법. 안재복역. 서울: 한국 기독교교육원, 1964.

Miles, Matthew B. *Learning to Work in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Memebers Train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nd edition, 1981.

Miller, Randolph Chump.*기독교 교육과 교회.* 박선수. 황구역. 서울: 하국기독교교육원, 1965.

Neibuhr, Reinhold.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Reflections on the Aims of Theological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77.

O'Hare, Padraic. ed. *Foundations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Paulist Press,1978.

Pai, Young. *Findings on Korean-American Early Adolescents and Adolescents.*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issori-Kansas City, 1987.

Reid, Clyde. *소그룹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의 비결.* 고용수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8.

Tokayer, Marvin. *탈무드.* 은재로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Wagner, C. Pet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서, 1984.

<u>POLITICAL / ECONOMICAL</u>

Brunner, Emile. *정의와 자유.* 전택부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Clarke, Rita-Lou. Pastoral Care of Battered Wome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Clinebell, Howard J. *The People Dynamic*.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Collins, Gary.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Ditzen, Lowel Russell, *Handbook of Church Administration*. New York: The McMillan Company, 1962.

Door, Donald. *Integral Spirituality: Resources for Community.Peace, Justice,and the Earth*. New York: Orbits books, 1990.

Fenhagen, James C. *Ministry and Solitude*. New York: The Seaburg Press, 1981.

Galbralth, John Kenneth, *The Voice of the Poor.: Essays in Economic and Political Persua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Gutierrez, Gustavo. *The Power of the Poor in History*. 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Robert T. Barr. Maryknoll,New York:Orbis Books,1990.

Holck, Menfred, Jr. *Money Management for Ministers*.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ing House, 1966.

Howe, F. ed. *Women and Power to Change*. New Yirk: McGraw-Hill Book, 1975.

Hunter, John E. *하나님을 제한 하지 말라*. 권혁봉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3.

Lerner, Gerda. *The Creation of Patriarc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Richards, Lawrence O. and Clyde Hoeltke. *A Theology of Church Leadership*.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Ryrie, Charles C. *교회에서 여성의 할일*. 양은순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Sherrill, Lewis. *The Gift of Power*. New York: Macillan Company, 1955.

Smith, Donald p. *Congrgations Aliv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Smith, Rockwell C. *Rural Church Administration*. New York: Abingdon-Cocksburry Press, 1957.

Solle, Dorothee. *Political Theology* , Fortress, 1974.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7.

Weldman, Judith. Ed. *Women Ministri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1.

Walker, Lenore E. *The Battered Women.*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Yoder,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PERIODICALS/ JOURNALS / ARTICLES

Cone, James. "Black Theology & Reconcialation," Christianity & Crisis XXX II: 24(January 22, 1973) 307.

Solle, Dorothee. "Mysticisn, Liberation and The Names of God," 179, *Christinaity & Crisis.* 41: (June 22, 1981), 179-185.

Swidler, Leonard. "Jesus was a Feminist,"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Vol.1.13/1, 1992.

Trible, Phyllis, "Feminist Hermeneutics and Biblical Studies," *The Christian Century,* Feb. 1982.

_______. "Eve and Adam: Genesis 2-3 Reread," *Andover Newton Quarterly,* Vol.14 (March 1973), 36.

2. 국내서적

고성실. *여목사에 대한 성경연구*. 서울: 데보라 출판사, 1992.

김관수. *한국교회성장역사*. 서울: 한국역사연구소, 1976.

김관식. *土着化와 解釋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김동길. *여성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청맥, 1988.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쉽*. 서울: 엠마오출판사, 1990.

김수진. *평신도와 교회성장*.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1989.

김이봉. *여성신학*. 서울: 양서각, 1985. 김이봉. *여성신학*. 서울: 양서각, 1985.

김영규. 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 서회 쿠르세이드, 1984.

김재은. 신*앙공동체.인간화모형*. 서울: 성관문화사, 1990.

김택영. *한미교회 75 년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김형덕. *현대사회와 여성*.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단체, 1986.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민병갑 교수 외 9 인. *미국소의 한국인: 교포들의 이민생활 및 사회적응 분석*. 서울: 유림문화사,1991.

문희석. *창조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6.

박순경. *한국민족과 여성신학의 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_______. *한국민족과 여성신학의 미래*. (현대신서 13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박순경. 손승의. 장상. *한국종교와 여성학*. 서울: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84.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 서울: 정음사, 1975.

박용옥. *한국기독교 여성 100 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박창환. *성경의 형성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반피득.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 1966.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대출판부, 1973.

변선환학장은퇴기념논문지불판위원히, *종교다원주의와 한국적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서광선, 정진홍, 한완상, 김관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서울: 대화출판사, 1982.

서광선. *한국여성사 II*. 서울: 이대출판부, 1972.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서울: 분도출판사, 1979.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성갑식. *교회, 사회, 선교.*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4.

손승희, "대한제국시대 기독교의 성령운동," *대한제국연구 III.*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_______.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안병무. *민중사건속의 그리스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_______. *역사와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_______. *사회학적 성서해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안병무. *역사와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안상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오성춘.임창복.황화자.김중운. 편집. *교역고 여성안수.* 서울: 장로회신학대다원화 목회연구원, 1992.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_______.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유성국. *한국의 유교.* 서울: 깅송연합소, 1988.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윤태림.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87.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서회, 1983.

이상근. 신약주석 1-12.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 출판부, 1965 초판, 1985 15 판.

이연옥. *교회여성지도자.* 서울: 쿰란출판사, 1993.

이우정. *한국기독교 여성 100 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5.

_______, *깨어라 여성.* 서울: 학민사, 1978.

_______. 회갑논문집. *예수, 여성, 민중.* 서울: 한신대 출판부, 1983.

이종성. *평신도와 신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4.

이해영. *한국가족구조연구.* 서울: 동화문화사, 1968.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 서울:정우사, 1989.

_______편,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9.

장병욱. *한국감리교여성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9.

정동철. *여성과 정신건강*. 서울: 기린원, 1989.

주선애. *장로교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

최광선편, *재미있는 여성심리*. 서울: 기린원, 1990.

최민지. *한국기독교여성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하현강. *한국여성의 전통상*. 서울: 민음사, 1985.

크리스챤아카데미 신학연구소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편, *함께하는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평화통일반 편, *희년, 통일과 여성신학*. 여성신학사, 1992.

기독교 100 주년 사업위원회편, *여성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NCC. 1985 *세계여성의 지위*. 서울: 여성위원회, 1985.

전국한인교회협의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사: 전국한인교회협의회 25 주녀 기념*. (1972-1996) .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간행물

대한예수교장로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여성문제자료집* 5.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기획연구부, 1988.

_______.*교회여성문제연구자료*(1 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출판사업회, 1991.

_______.*교회여성문제연구자료*(2 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출판사업회, 1992.

_______.*세미나 자료집*(제 9 집).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출판사업회, 1992.

_______.*세미나 자료집*(제 10 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출판사업회, 1994 .

청암크리스챤 아카데미, 靑岩論壇 제 1 집. 서울: 대화출판사, 1992.

_______. 靑岩論壇 제 2/3 집. 서울: 대화출판사, 1992.